

무교회란 무엇이나?

도서출판 보 략

차례

머 리 말	3
-------------	---

♣ 제 1 부

나의 무교회	김 교 신	7
우리의 무교회	김 교 신	9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김 교 신	11
무교회 간판 철거의 제의	김 교 신	15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	김 교 신	17
무 교 회	함 석 현	34
무교회 신앙의 성격	송 두 용	57
‘무교회’ 간판을 내린다	송 두 용	62
무교회 신자는 누구냐?	송 두 용	66
무교회란 무엇인가?	송 두 용	68
무교회 신앙	노 평 구	71
무교회 신앙의 앞날	노 평 구	73
무교회의 사실	노 평 구	75
나의 무교회	노 평 구	77
무교회 신앙의 특질	노 평 구	79
한국 무교회	유 희 세	83

♣ 제 2 부

무 교 회 론	内村鑑三	95
무교회주의에 대하여	内村鑑三	97
나의 무교회주의	塚本虎二	100
무교회주의의 장래	塚本虎二	105
우치무라 선생 · 무교회주의 · 나	塚本虎二	109
무교회주의란 무엇이나?	矢内原忠雄	115
무교회주의의 전선통일	政池 仁	153
무교회주의의 사명	政池 仁	155
무교회에서의 공동체 형성	岩隈 直	160
무교회란 무엇인가?	高橋三郎	166
새 무교회주의	武祐一郎	184
필자소개		207

머 리 말

무교회 또는 무교회주의라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교회에서는 교회와 대결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무교회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도 그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무교회는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헌법이나 규정이나 독특한 신앙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27년 김교신 선생을 비롯한 동지 여섯 명이 ‘성서조선’지를 발간하면서부터 무교회에 대하여 발표된 글들 중에서 몇 편을 골라 모은 것이며, 또 일본에서 우치무라(內村鑑三) 선생이 1901년에 ‘무교회’(無教會)라는 제호로 발행한 기독교 개인잡지에 그 제호를 설명한 글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일본 무교회 잡지에 발표된 글들 중에서 몇 편을 골라 엮은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고 같은 필자라도 한편 한편 그 때에 따라 쓴 것이어서 통일성이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글들을 모아놓은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란다.

무교회주의는 우치무라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예레미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도 있으며, 강조점에 있어서도 각인각색이다. 아마도 이렇게 각자 다를 수 있는 것이 무교회주의의 특색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여기 무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무교회신앙을 통하여 기독교신자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을 전하여 온 분들의 글을 살펴봄으로써, 소위 무교회로 지칭되고 있는 기독교신앙에 대해, 그분들 자신 어떻게 생각하고 있

는가를 알고, 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무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기독교의 순수신앙을 지키고 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성 기독교의 전통에서 이탈된 하나의 이단으로 지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한편, 그 신앙의 순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로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성 교단의 교역자와 신자들로서, 또한 일반사회의 인식에서도, 그뿐 아니라 무교회 신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정된 선입관과 단편적인 소견으로 무교회를 운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부족하지만 이 작은 책자가, 무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물론 여기 실린 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바라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각기 공감하는 점과 또 이의를 제기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사실 여기 실린 글들 상호간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글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는 공통된 생각을 접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무교회신앙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반 위에서, 무교회에 대한 비판도, 무교회신앙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을 펴내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책의 간행에 협조하여 주신 송문호 선생과 배은선 형에게 감사를 표하며, 필자들의 간단한 소개를 권말에 붙인다.

2003년 여름 엮은이 씀

제 1 부



나의 무교회

김 교 신

혹이 와서 권유하기를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씨의 무교회주의는 그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일시적인 필요로 생겨난 것이지 결코 영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하루바삐 우리 교회에 참가하라”고. 누구는 또 말하기를 “우치무라 씨는 영웅이었다. 그런 영웅적 기백을 가진 자가 무교회주의를 제창할 때는 다 소의 효과도 불무하였지만……. 너는 어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라.”고

또 다른 이는 권하기를 “무교회주의란 것은 교회를 맹렬히 공격하는 것이 그 본연의 사명이다. 너도 좀더 적극적으로 기성교회를 폭격하든지 불연이면 어서 우리와 협조하여 교회사업을 하자”고. 또 말하기를 “우치무라 씨 재세 중에는 무교회주의도 성황할 듯하더니 그의 별세 후로는 그 제자들의 부진함에 반하여 교회측의 신학연구가 대성황이어서 소장학자들도 교회측에 오히려 많더라……. 너도 어서 교회인이 되라”고. 그 외에도 성심껏 하는 충고가 부지기수(不知其數).

이런 때에 우리의 친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은 ‘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다. 나는 물론 우치무라 간조가 아니다. 영웅이 못 되어도 ‘나는 나’요 신학설이 변천하여도 ‘나는 나’다. 선생이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 쓴다는 논법은 나에게 하등의 권위가 못 된다.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전집 20권을 펼쳐놓고 페이지마다 고증하기도 성가신 일이요, 우리 영혼에 별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교회를 논하든지 신앙을 의논하든지 ‘나는 나’

8 무교회란 무엇이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할 일이다.

첫째로 우리에게 무교회를 논하는 이 중에는 우리가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무교회주의를 전공한 사람인 줄로 아나 이는 대단한 오해이다. 근래에 공산주의 러시아에서 훈육 받은 청년들이 그 주의를 선전할 사명을 띠고 월경하거나 혹은 군관학교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침입하여 모종 운동에 헌신한다는 보도에 놀란 경험을 가진 인사들은 우리의 무교회도 곧 그렇게 추상하고야 만다.

그러나 우리가 10년에 걸쳐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경’이었다. ‘복음’이었다. 설령 우치무라 선생의 내심에는 무교회주의라는 것을 건설하며 고취하려는 심산이 있었다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요 성서의 진리였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에 관한 왈가왈부(曰可曰否)의 변론을 당할 때는 우리는 대개 유구무언(有口無言)하니, 이는 우리가 전공한 부문이 아닌데 저편에서는 훨씬 열정적으로 연구한 문제인 듯이 보이는 까닭이다.

다음에 무교회주의는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라고 하나, 나의 무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다. 지금 조선 기독교계의 쌍벽이라고 할 만한 장, 감 양 교파는 ‘적극단’ 문제발생 이래 자멸을 목표로 분쟁 또 분쟁이요, 다음가는 성결교파는 성결치 못한 문제로 탈퇴성명 또는 법정고발로써 이 역시 자멸할 때까지 서로 싸울 것이다. 무슨 독한 마음으로 이에 일격을 가하라.

교회 내에 경애할 만한 성도가 존재함을 부인하지 않으나 교회 전체로 볼 때에 그 정리와 부흥에 희망을 두지 못함은 현 교회내의 두령들의 심리와 일반이다. 그러므로 교회개혁 운운의 일

체의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성서의 진리를 배우며 자신을 편달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래도 무교회주의라고 부르고 싶거든 부르라.

(‘36. 9. 성서조선 92호, 전집 2)

우리의 무교회

김 교 신

무교회주의자의 선각자로 세상이 인정할뿐더러 필경 자신으로도 매우 확신을 가진 이가 “무교회주의란 교회와의 대립 항쟁에만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단언하였을 때에,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 무교회주의란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니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고 천명하는 동시에 논자의 그 무지함을 냉소하여 마지못하였다. 이러한 광경을 방관하는 ‘비 무교회자’(교회신도와 기타)들도 과연 무교회주의의 본체가 어느 것인지의아함을 불금하였을 터이지만, 또한 자칭 무교회주의자 또는 무교회 찬동자 중에도 우리의 주창하는 참 무교회론에 논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려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소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에 순수한 무교회 신자인 야마모토(山本泰次郎) 씨의 의견을 역재(譯載)하기로 한다.

나의 무교회주의란 것은 극히 광의(廣義)로, 또 정신적으로 이해한다. 구신약성서를 관철한 정신, 그리스도, 바울, 루터의 정신, 기

10 무교회란 무엇이나?

독교의 정신, 과연 우주에 팽배한 정기라고 이해한다. 나에게서는 무교회주의자란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유무, 세례의 유무 등은 하등 관계가 없다. 무교회주의 곧 복음, 무교회주의자 곧 신자다. 나의 무교회주의란 이런 것이요, 이 무교회주의야말로, 내가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배운바 최선 최미 최고의 것이요 이 의미에서 ‘무교회주의’ 곧 우치무라간조 라고 확신한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자신의 정신이라고 확신한다. 나의 무교회주의는 결코 이 이상의 것은 아니다.

그런 광의의 망막한 무교회주의는 무교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란 결단코 교회를 타파하며 교회와 대립 항쟁하는 일 같은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구원은 교회의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 소극 저열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의 사명이다.

이 복음을 명백히 하는 결과, 자연히 할례와 세례와 교회와 성직이 무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 타도와 해소를 목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본말전도(本末顛倒)요 최대의 곡해다. 무교회주의는 환언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세인의 생각하는 이상 훨씬 적극적이요 고귀한 심원한 정신이다. 이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외에 적당한 칭호가 없다.(성서강의 5호)

이것이 본산지의 무교회주의요 또한 우리의 무교회주의이다. “무교회주의란 것은 교회와의 대립 항쟁에만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말은 인류의 발한 언사 중에 가장 무지한 고백이요 가장 당돌한 선언이요, 가장 무책임한 고집이다.

(‘37. 6. 성서조선 101호, 전집 2)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김 교 신

현재 우리는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에 출석하며, 그 건축비의 일부분도 부담하였고, 청하는 대로 서울 부근 장로교, 감리교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도 하며 때로는 사경회도 인도하여 미력이나 마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다. 우리 친구들과 지우(誌友)들도 혹은 감리교회에서 혹은 장로교회에서 혹은 성결교회에서 충실히 일하며 협조하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 우리가 피차 이렇게 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반가운 일로 안다.

과거에 우리를 지적하여 무교회주의의 직계라 하며, 본지(성서조선)를 칭하여 교회파괴의 기관이라고 배격하는 이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도 무교회주의자인 것을 자인하고 진영을 대립하여 싸우고자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공박함이 없을 때에 홀로 싸울 필요도 없을뿐더러 조선을 배우면 배울수록, 조선기독교회의 내정을 알면 알수록 차마 싸울 수도 없거니와 싸웠던들 별수 없는 것을 알았다.

우리에게는 정치적 권세도 없고, 다른 종교적 교권도 자주(自主)하는 것이 없다. 오직 기독교 교권에 비로소 자립하고자 한다. 그렇다. 루터 시대의 로마 교권이나 영국 국교의 교권 같은 대세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30만 기독교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오늘날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연회에서 파문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에 이상이 없을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직업이나 신사로서의 처세함에 추호의 차이도 없을 것은 정한 일이다. 이런 사리를 판연히 알면서 크게 힘을 다하여 기독

12 무교회란 무엇이나?

교회에 싸움을 거는 것은 마치 소녀를 향하여 결투를 청하는 용사와 다름이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혹시 교회의 그릇됨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교회를 상함으로써 일삼는 자는 아니다.

장래에는 어떤 친구의 제의함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크게 역사하고자 하는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라면 교회 그 물건에 대하여는 벌써 실연(失戀)한 지 오랜 자이다. 물론 교회 안에 경애할 만한 신도들이 적지 않음을 안다. 때로는 독실한 장로와 목사도 전무하지 않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전혀 단념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을 만나 서로 배우며 서로 위로됨이 있고자 함이다.

그러나 교회라는 덩어리가 되고 교회정치라는 연극이 되고 본즉 아주 실망이다. 이는 썩은 것이요 망할 것이다. 저들은 재림하는 예수라도 다시 붙잡아 십자가에 거는 소임밖에는 더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 실로 동정할 입장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만일 어떤 학교 교장이 되거나 어떤 회사 사장이 되게 하라. 그는 벌써 자기 고유의 개성이나 신조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나 회사의 전통과 인습에 묶인 인형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까닭이다. 후원회가 있고, 동창회가 있고, 재단법인의 규약에 이사회가 달리고, 평의원이 따르고, 관례가 있고, 기풍이 없지 않으니, 오호라 안비막개(眼鼻莫開)의 상태이다. 마치 홍합의 발이 바위에 고착함과 같다.

오늘날 사회의 무슨 조직체의 장이 된다는 것은 저의 신념과 지능을 발휘시켜 그 혜택을 널리 분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 기성단체 속에 예속시키며 동화시키며 묶어 매서 군소 악귀

의 식욕을 만족시키려는 데 불과한 일이다. 그러므로 당대의 육해군 대장이라도 일단 모모 정당의 총재로 취임한 후에는 군인 정신을 상실한다고 세간에서 떠들지라도 이는 별로 기괴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개인으로서는 훌륭한 성도이던 자도, 한번 직업적으로 교역에 종사한 후로는 아주 딴사람이 되고 마는 실례가 한둘이 아니다. 정당의 당원으로 모이나 교회의 교역자로 모이는 자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 대부분은 식이(食餌)를 탐하여 움직이는 자들이므로 성자라도 거기에 합하고는 그와 동화됨을 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개인으로 접하여 성도 같고 강단 위에 섰을 때는 천사 같아서 구구절절(句句節節) 청중을 감동시켜 마지않는 목사도 단하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가로에 방황하는 거지의 태도를 버리지 못함은, 온전히 고용살이하도록 만들어놓은 교회의 기관과 조직의 탓인 줄 안다. 이 점에 있어서 교회라는 관념이 세상 것과 우리 것과는 판이한 바 있다. ‘비교회’(非敎會)적 혼백이 단단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근래에 소위 ‘적극단’(積極團)을 토벌하기 위하여 장, 감 양 기독교회가 분분하나, 이것도 그 사실을 발각하고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하여 성토하는 편에도 일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단원 되며 또 그 단장 되는 이들 편에도 세 부득이하여 그까지 밀려간 원인이 있었던 듯하다.

위험하고 교통 불편하고 교육 오락 등 문화시설이 불비한 것보다, 안전하고 전차 전등의 편의가 있고 대학과 극장과 백화점 등이 즐비한 도시로 전임 운동하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사정이

14 무교회란 무엇이나?

라고 하니, 소도시보다 대도시로, 향촌보다 서울로, 소기관보다 중앙 기독교청년회 같은 풍부한 기반으로 진출 장악함에는 필연코 세력이 있어야 한다. 세력은 결당에서 속성되고 작당은 전제적이어야 그 운용이 민활하니, 이른바 적극단의 규약이 전혀 군대식으로 되었고 파시즘으로 되었다 함은 그 발전할 데까지 발전한 것을 증명할 것뿐이다. 오늘날 조선기독교계의 근본기구가 선처되기 전에는 비록 적극단장 모씨를 매장하고 그 단을 완전히 해소하는 날이 있다할지라도 또 제2, 제3의 적극단이 출생할 것을 누가 금할 수 있으랴? 이런 고로 우리는 비단 적극단 한 건에 대한 것만 아니라 현 교회의 근본기구에 일치할 수 없는 자이다.

그렇다면 왜 근본적으로 그릇된 기독교인 줄 알면서 그 기독교회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교회에 출석하며 설교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느냐고, 모순이라면 명백하고 중대한 모순이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하여는 필자에게 반문하기 전에 4복음서를 정독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모순부터 적발하라. 절대로 순결무구해야 할 교회가 여지없이 부패했을 때에 주 예수께 고난이 있었고 우리들에게 비애가 남았다.

(‘35. 4. 성서조선 75호, 전집 2)

무교회 간판 철거의 제의

김 교 신

우리는 과거에 무교회인으로 행세하였던 것처럼 장래에도 무교회인이라는 별명으로써 신앙의 길을 시종(始終)할 것을 예상하며 또한 기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일에 본산지(本產地)의 무교회자들을 향하여 무교회 간판을 취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이를 읽는 이는 본지 4월호에 광고했던 일본 동경 야마모토 다이지로 주필 ‘성서강의’지 5월호에 실린 줄고(편자 주 :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를 병독하라)

‘무교회’라는 데 대한 오해가 깊고 단단하여서 용이하게 본연의 뜻대로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다. “교회와의 대립항쟁에만 그 존립 이유가 있다.”는 듯이 생각함은 무교회를 고의로 궤방하려는 자만 아니라 무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천박한 일반 민중이 그렇게 납득하여 버렸다.

기독교의 제일 대지(大旨)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람과 자기의 이웃 사랑을 중히 여기는 교훈인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예수 믿기를 원하는 이가 어찌면 “대립 항쟁에만 존재이유가 있다.”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짊어질 수 있으랴. 이렇게 사람을 고통하는 자의 심지에는 크게 왜곡된 무엇이 잠재하여 있다고 자증(自證)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 만능을 주창하는 자,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단언하는 자 즉, ‘교회주의자’에게 대하여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프로테스트한 것, 구원은 교회 소속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16 무교회란 무엇이나?

문제라고 정정한 것이 루터의 프로테스탄트주의요, 또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무교회주의이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회가 교회주의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루터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생길 필요가 없었고, 신교 교회가 교회지상주의로 기형화하지 않았다면 무교회주의가 생길 필요가 없었다.

무교회주의는 일명 ‘전적(全的) 기독교’이다. 그 증거로는 우치무라 선생과 그 밖의 무교회자의 저서가 순진한 평신도와 조선 기독교회 교역자들에게까지 좋은 영량(靈糧)이 되는 일로써 알 수 있고, 순 조선산 예수쟁이 선배가 동시에 순 조선산 무교회주의자인 것으로서 증명된다 - 예(例)하면 평북교회의 초석이라는 칭(稱)을 받는 강제건 선생 같은 이를 보라.

무교회자가 대립 항쟁하는 대상이 하나 있다. 그는 “무릇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향하여 선전포고”하는 일이니, 그 대상자는 시대와 장소를 따라 변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의 앞에 진리를 거역하는 역할을 메고 대립한 자는 심히 강대한 괴물이다.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바치고자 하는 무리는 모조리 - 교회의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할 시대를 당하였다. 순교의 피를 뿌려야만 진리의 종교를 판별하게 된 세대이다. 이런 세대인 고로 구원이 교회 안에 있다, 밖에 있다 하는 논쟁에는 우리는 흥미를 잃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감당하는 자, 그대의 무덤을 우리가 예비하고자 하거니와 또한 우리 시체가 보이거든 그대가 취심하라.

(‘37. 5. 성서조선 100호, 전집 2)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

(일본 '성서강의'지에 발표된 것)

김 교 신

1. 서언

전후 2회에 걸친 마쓰마에(松前重義) 씨의 '조선의 희망'이란 글은 참으로 동정에 넘치는 글이었다. 그 중에는 우리들을 과찬하는 데가 없지 않아 읽는 중에 얼굴이 붉어짐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의해 바뀌어진 심정을 가지고 볼 때에는 황폐한 조선반도에도 이와 같은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여 깊이 놀랐다.

이에 대해서 아마모토 주필로부터 “그러면 이에 대해 여러분의 입장에서 장래의 포부, 우리들에 대한 희망, 과거 및 현재의 활동상황,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선에 있어서 섭리의 거룩한 손을 펴고 계시는지 등의 실상에 대하여 '성서강의' 4월호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권유해 왔지만, 나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응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1)과 (2)는 생략한다.

(3) 의견의 온건함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것

의견의 온건함이란 물론 정치상의 의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견이란 무교회에 대한 의견이다. 우치무라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존의 무교회 여러 선생님들과 신진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직접 간접으로 내가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므로 감사의 말씀은 있을지언정 불만 같은 것이 있을 리

18 무교회란 무엇이나?

가 없겠지만 근래의 무교회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런 견해를 선불리 발표하면 나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오해의 씨앗만 남길 수도 있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은 이 글의 제목까지도 무교회라는 말을 쓰지 말고 ‘조선에 있어서의 참 복음의 진전’이라고나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기독교와 혼동하기 쉽고, 따라서 교회신자에게 누를 끼칠 것도 염려되어 그대로 ‘무교회’라는 글자를 빌렸지만, 그 말의 뜻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혹시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은 필자 한 사람의 견해이지 조선 무교회신자의 총의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우선 순서로써,

2. 우리들의 과거 및 현재의 활동상황

3. 조선에서의 섭리의 거룩한 손과 우리들의 장래의 포부로서의 사실을 말하고, 마지막에

4. 무교회 신자에 대한 희망

이 항목에서 평소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볼 생각이다.

2. 우리들의 과거 및 현재의 활동상황

조선에 있어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무교회적 순복음을 가장 빨리 선전하기 시작한 사람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최태용 씨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씨는 그 후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 “우치무라 선생의 감화를 받고 그 저서를 번역한 적은 있지만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는 아니다.”라는 뜻의 말을 하기 시작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 진영에 일대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다음에 초역 소개할 교회 대 무교회의 논쟁문에도 명백하다.

더욱 최근 동경에서 일본신학교를 졸업한 후의 최씨는 1에도 신학, 2에도 신학, 3에도 신학이고, 한편 ‘조선복음교회’라는 새로운 교파를 일으켜 그 감독에 취임하는 동시에, 한편 “무교회주의는 주관적 신앙이다.” 또는 “신학적으로 고찰하더라도 무교회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논하며 가장 활발하게 가장 격렬하게 무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적 순수한 신앙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강렬한 논전의 상대를 준비하시는 바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때때로 격렬한 논전으로써 불꽃 튀기면서 마주 대하는 일도 있다.

1923년의 여름방학에 아사노(淺野猶三郎) 선생을 나는 고향인 북선 함흥에 맞이하여 전도집회를 열었지만, 무교회주의 총본산의 수제자가 왔다고 해서 교회측에서는 비상한 경계를 펴고 교회당은 물론이고 기독교청년회까지도 굳게 닫아버려서, 집회장소를 얻을 수가 없어서 당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보다 앞서 12년 전부터 이미 그 지방에, 주로 최태용 씨에 의해 무교회주의가 선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사노 선생은 그 후 1927년 여름까지 5년간 계속해서, 여름마다 북선을 방문해서 짧을 때는 3,4일간 길 때는 1주일 혹은 10여 일도 묵으면서, 함흥을 중심으로 삼평면, 문천, 원산, 안변 등 벽지까지 두루 다니셨다. 그러는 동안, 불편한 온돌방 생활, 불안한 조선식사, 진흙 시골길, 홍수의 재난, 발열 입원하는 등 갖은 고난과 싸웠다.

그 결과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현상이 나타났다. 처음 무렵

에는 무교회의 탄압만을 일삼던 교회측 사람들도, 한번 두번 청강하는 동안에, 무교회 두려워할 것이 아닐뿐더러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라며, 개미가 단것에 꼬이듯이 평신도들이 모여들고 장로 목사까지 모여와서,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룰뿐더러 나 중에는 각 교회가 자진해서 이 집회 유치운동을 할 정도였다.

이들 집회에는 주로 내가 통역을 했는데, 아사노 선생의 말을 빌면 ‘천하 일품의 통역’이라고 하였는데, 우선 대과 없었다는 것보다 번사가 열을 올리는 강조점에는 통역자도 같이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동경에서 내 하숙에는 우시코 메에도 오쓰카(大塚)에도 소시가야(雜司ヶ谷)에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아사노 선생이 오셔서 성서강의를 하셨다. 많을 때는 7,8명 친구와 같이, 적을 때에는 나 혼자서 배웠다.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밤에도 빠짐없이 4, 5년간 이것이 계속되었다. 선생은 나 외에도 조선사람 한 사람씩 자택으로 불러서 매주 1회의 성서강의를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하셨는데, 이 같은 기초공사가 나로 하여금 ‘명 통역자’가 되게 했을 뿐더러,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잡지편집에 피로할 때, 복음전도에 실망했을 때 나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었다.

나는 우치무라 선생에 의해서 신앙의 뼈대를 세웠고, 쓰카모토 선생에 의해서 성서의 학문적 연구의 실마리를 풀게 된 것인데, 더구나 또 아사노 선생의 조선사람 한 사람 상대의 강의와, 하숙 집을 돌며 하신 전도에 실제로 접해서 전도자의 인내와 신종(信從)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실망 낙담해 버렸을 것이다. 결과를 계산하려는 나의 불신종과 초조에 대하여 하나님은 항상 아사노 선생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1930년 봄 우치무라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조선의 교회측에서 ‘우치무라 간조론’이라는 일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우치무라 간조론에 대하여’라는 글을 써서, 성서조선지 제19, 20호에 연재했다.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교회 대 무교회가 문서로써 행해진 최초의 논쟁이기도 하고, 또 조선에 있어서의 무교회의 유래를 아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이니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만을 일역할까 한다.

(1) 나는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다

조선기독교 장로회 평양신학교 기관지 ‘신학지남’ 제 12권 제4호(7월호)의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 씨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읽었다. 읽고 놀란 것은 첫째는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를 열거하는 중에 조선 사람으로서는 내 이름이 올라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날까지 자진해서 “나는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다.”라고 글자로건 말이건 발표한 기억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치무라 선생은 좌우간 위대한 선생이다. 평양신학교의 기관지인 ‘신학지남’까지도 한 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치 위대한 분이다. 위대한 선생에게는 사이비한 자까지 그 스승의 제자라고 자칭 광고해서, 선생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나는 감히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라고 공언하기를 주저했다.

둘째,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로서 일본에 아제가미(畔上賢三), 쓰카모토(塚本虎二), 후지이(藤井 武), 아사노(淺野猶三郎) 제씨를 열기한 다음에 조선의 김교신을 나란히 쓰는 것은 마치 코끼리떼 행렬에 당나귀를 딸리는 것과 같고, 혹은 필숙, 삼숙, 천랑(天狼)에 양숙(昂宿)이 참렬하는 것과 같다. 그 아비에 그 자식,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이라면 우치무라 선생의 경우도 마

22 무교회란 무엇이나?

치 그와 같다.

김인서(金麟瑞, 문제의 논문 필자) 씨가 열기한 외에도, 가네자와(金澤常雄), 야나이하라(矢内原忠雄), 미타니(三谷隆生), 구로사키(黒崎幸吉) 씨가 지난 5월 28,29일 우치무라 선생 기념강연회에 출강했는데, 이들 모두 일기당천(一騎當千)의 대가들이다. 또 이들은 최전선에 나타난 사람들일 뿐이다. 나는 10년간 가까이 우치무라 선생의 성서연구회에 출석하는 동안 어떤 의미에서 우치무라 선생 자신보다도 그 제자들의 위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이다. 특히 선생이 떠나가신 후에 그런 느낌이 더욱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장님과 같이 대답해줄 수가 없고,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로서 자타 공히 인정할 인물은, 조선에도 걸맞은 선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나는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라고 한다든지 그에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공포한 적이 없는데, 다른 조선사람 사이에서는 일찍이 이런 종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서지연구’(聖書之研究)지의 ‘하루하루의 생애’(日日の生涯)란에 기재된 중에서 한두 예를 들어본다.

연구지 351호(29년 10월호) 44쪽의 9월 9일 일기에는 조선 성진의 서창제(徐昌濟) 씨와 최태용(崔泰琿) 씨에 대한 것이 있다(기사는 생략). 위와 같은 관계로 보아 나보다 훨씬 선배인 최태용 씨가 만일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임을 자인한다면 아마도 감히 논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김인서 씨가 ‘신학지남’ 지상에서 거듭 거듭 변호한 바와 같이, 최씨 자신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다음에 연구지 제318호 이하에 연재된 ‘성서지연구’ 조선 독자회 기록에 의하면 출석자 25명 중에 김창제(金昶濟), 박승봉(朴勝鳳), 안학수(安鶴洙), 백남주(白南柱) 제씨 등 4명의 심원한 감상문이 실

려있다. 특히 김창제 씨는 1916년 이래 ‘성서지연구’지의 독자가 되어 그 이듬해 8월에는 우치무라 선생을 친히 동경으로 방문했다고 되어 있으니, 나보다 우치무라 선생 및 그 저서에 접하기를 4, 5년 앞서고 있다. 그 밖의 3인도 상당히 오랜 기간 ‘성서지연구’를 읽음으로 해서 깊은 감화를 받았다는 것을 각자 고백하고 있다. 위 제씨가 친구 관계였는지 제자였는지 그 구별은 내가 논의할 일이 아니지만, 좌우간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조선에서 논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범위만으로도 위 제씨를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배 제씨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나야말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다.”라고 자임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인서 씨는 위에 열기한 제씨도 일괄해서 “이들은 논할 바가 못 된다.”라고 일고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미약한 후진인 나를 끌어다 “조선사람으로서는 양정고보의 김교신 씨를 들 수 있다.”라고, 피할 수도 없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과연 이것이 김인서 씨의 의식적인 것인지 혹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된 이상 나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거니와,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그 명예를 한없이 감사하는 바이다.

일이 여기에 이르니, 조선기독교계의 최대 세력을 가지는 장로교회 평양신학교 기관지에까지 기재되어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임이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대 선생의 명성을 이용하는 자라는 양심의 가책 없이, 일본에 있는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인 여러 대가들과 나란히 하는 당당한 자라는 비난도 받을 염려 없이, 또 조선에 있는 여러 선배에게 예양의 덕이 없다는 염려도 없이, 부득이 우치무라 선생의 제자임을 자인하고 공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4 무교회란 무엇이나?

이상은 반박문의 제1항의 초역이다. 제2항에서 사사하게 된 전 말을 말하고, 제3항에서 논자의 사실의 오전 독단을 변박하고, 제4항에서 나는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논하고 매듭지은 것인데,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인다.

위의 논쟁 이후는 잠시 무풍상태가 계속되고, 그는 그 나는 나로서의 궤도를 걸어왔다. 다만 최근에 와서 최태용 씨가 무교회의 토대부터 폭격하려는 기세로 “무교회는 주관적이다.” 또는 “무교회주의란 교회와의 대립항쟁에만 그 존재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서 우리들의 시취(詩趣)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논쟁보다도 적극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전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지(小誌) ‘성서조선’은 그 도구로서 이번 4월에는 제99호에 이르렀다. 학생시절부터의 습관으로, 때를 정해서 동지들이 모여 윤강회(輪講會)를 매년 개최한다. 서울과 평북 오산에는 항상 성서연구회가 개최되고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각자의 근무처나 학교에서는 야곱이 양을 치는 것 같은 흉내도 내고 있다.

(3. 생략)

4. 무교회 신도에 대한 희망

예정된 순서로 하면, ‘3. 조선에 있어서의 섭리의 거룩한 손과 우리들의 장래의 포부’를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이고, 또 아마모토 주필께서도 이 점을 ‘특히’ 부탁하신 것이지만 실제 펜을 잡고 보니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고, 내 필력으로는 예정지수(豫定紙數) 내에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필요하면 따로 쓰기로 한다.

또 함석헌 군이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는 전후 23회에 걸쳐서 ‘성서조선’에 연재된 ‘현대의 예언서’이다. 조선에 신교가 전래된 이래 50년간의 최대 수확 아니, 조선역사가 있는 이래 최대의 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조선에 있어서의 섭리의 거룩한 손’의 해석이다. 지금 군 자신의 손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중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단행본으로 나올 예정이니 그것을 보시기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무교회론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본 고장의 무교회 신도에 대한 희망을 빨리 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단, 전번 호의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상황’에서 장황하게 나 개인에 대하여 말한 바를 기억하고서 이하를 읽어주시기 바란다. 과거 10년간 무교회주의자로서 비방을 받으며, ‘무교회지=성서조선’으로 통용되는 잡지를 많은 손실을 보면서 제100호까지 발행한 역사를 가졌다는 것과, 또 차후에도 생명이 계속되는 한은, 은혜가 멈추지 않는 한은 무교회 혼에 살기를 바라는 자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하의 글과 행간을 읽어주시기 바란다.

무교회 신도에 대한 희망은 적지 않다. 마쓰마에 씨에 의해 시사된 바와 같이, 조선의 여자교육사업도 그 외 산업에도 공무원도 무교회적 신앙으로써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동경 같은 데는 과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무교회 선생의 한두 분쯤은 조선에 오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실 일이고 이 편에서 희망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교회 간판을 내립시다.”라는 희망이다. 본 고장의 무교회 신도 여러분, 흥분하기

26 무교회란 무엇이나?

전에 나의 어리석은 말을 들어주는 친절과 여유를 가져주기 바란다.

우리들은 무교회 신도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성장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고, 눈에 보이는 것, 조선과 같이 상당히 먼 곳에서도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 두셋에 대하여, 나는 평소의 미심스러웠던 생각을 그대로 말하려 한다.

그 첫째는, 신앙만의 과와 행위과, 바울과와 야고보과의 대립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신앙만의 신앙을 말할 때에 나는 “아멘!”으로 대답했다. 행위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칠 때에도 대단히 유익한 가르침이라고 수긍했다. 그런데 처음의 조그만 균열이 점점 큰 도랑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는 분명히 천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신앙만’과 ‘행위 겸수’와의 구별을 그토록 분명하게 구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과연 특별히 발달한 종교가의 섬세하고 예민한 신경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탄했다. 언제까지나 크게 보아 신앙만을 주장하는 선생의 행함도 참으로 훌륭하다, 행위를 역설하시는 선생님 신앙도 참으로 부러운 믿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과 같은 우둔한 자는, 신앙이니 종교니 하고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비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스승보다 앞서려는 듯 너무 급하게 앞질러가자고 하고 아직 ‘신앙만’이나 ‘행위도’라고 분리하지 않았던 우치무라 선생에게까지 되돌아갈 수는 없을는지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둘째,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절대적 비전론과 상대적

비전론이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신앙상 중요한 점이 분명해진 바를 인식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론은 이론을 낳아서 드디어 견잡을 수 없는 데까지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를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무교회가 둘로 갈라질뿐더러, 실은 관동 관서가 영구히 반목하게 되지나 않을까 성미가 급한 자는 걱정이다. 물론 단순한 기우에 틀림없을 것이고 또 기우이기를 바란다.

다만 “그럴 때에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것 같은 논법에는 우리는 대단히 불쾌함을 느낀다. 오늘날의 비상시 일본제국 신민인 자에게 그런 것을 말하게 해서 어찌자는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이사에게 납세하는 것의 가부를 질문하는 도배와, 그 결과에 있어서 얼마나 거리가 있을 것이냐고 우리는 분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신앙으로서 이론으로서는 물론 절대 비전론 편에 서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 자체로서 전인(全人)으로서의 상대적 비전론자를 알 때에, 우리들은 “세이브 상대 비전론자!”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자이다. 상대 비전론자도 매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자이다.

이론으로서는 배격해야 할 상대적 비전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는 그 관서인(關西人)만큼 비전론을 위하여 동포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9천만 일본사람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인가? 60만 인구의 서울 시내에 살면서, 적막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교외 먼 곳에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1억에 가까운 일본사람 중에 저 관서사람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는 하늘에 별 따기 같

은 심정이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왜 그를 끌리
앗 취급을 하는가?

신앙에서 이론에서 볼 때에는 절대 비전론과 상대 비전론과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탄 없이 말한다. 절대도 상대도 털 하나 더 있고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작금의 세상형편으로 보면 절대도 상대도
따질게 못 된다. 우선 비전론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리스도
를 위해서 미움을 받는 자는 모두 선택받은 귀한 존재가 아니
나? 친구보다도 진리를 보다 사랑한다 함은 누구의 말인지 모르
겠으나,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특히 무교회자의 호
전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진리와 같이 보이면서
실은 이 한마디만큼 이교적이고 사탄적인 말은 많지 않다. 무엇
이라 해도 우리들 크리스천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사도 요한의 평생 두고 하신 설교를 들어야 하고, 주 예수의 새
계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회에 대한 공격이다. 나는 수 년 전에 오랜만에 동경
어느 무교회 집회에 출석한 일이 있다. 우연히 그날만 그랬는지
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무교회 또 무교회 또 무교회였다. 모 요양
소의 소녀의 긴 편지를 낭독하는 중에 짜증이 날 정도로 많은
무교회 무교회가 되풀이되었다. 또 설교자도 무교회의 효험을 열
심히 강조 연창 했다. 마치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와 헌금 두 가
지 말을 가지고 설교의 새끼 꼬기 하는 것과 같이, 또 불교도가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외우듯이 오로지 무교회 무교회였다. 나는
드디어 나를 굶히고 감탄했다. 무교회는 과연 종교적 천재들만이
할 일이로구나. 만주나 에티오피아가 어찌되거나, 동경 한가운데

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국민전체를 향하여 분노를 발하는 것 같은 손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고, 다만 소수의 무교회 팬을 향해서 “무교회, 무교회”라고 연창(連唱)하고 있으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가 이루어지는가 보다라고 억지로 납득 당했다.

신문지상에서 대대적으로 교회와 싸우고, 또 “나는 싸운다”라는 ‘모토’를 내걸고 용감하게 일어서는 것을 보고, 나는 대단히 실례이지만 사실 우습기 짝이 없었다. 대체로 현대 일본사람은 약한 것과 싸우는 데 상당히 맛들인 듯 싶다. 그것은 장학량 군에 이겼을 때 이래 아주 심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교도 중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본제국 판도내에서 두 사람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 사람은 히다카(日高善一) 씨고, 다른 한 사람은 최태용 씨. 이들 두 사람 다 교회관계 일로 의식(衣食)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 외에 존경할 만한 교회 신자는 예를 들면 요시키(由木康) 목사가 신흥기독교 지상에 고백하고 있는 것같이 “가톨릭교회라면 혹시 모르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있어서 지금도 교회가입을 구원의 필요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교파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과문하여 아직 모르는 바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은총으로 신앙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에 통하는 근본적인 관념이다. ‘다만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교회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또한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 무교회 논전의 결론이다. 교회측의 인식이 이와 같을 진대 구원은 이 편에 있다든가 저 편에 있다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추태가 아니겠는가? 가령 늦었다 하더라도 우치무라 선생을 내세우게 되었다면 새삼스럽게 의인의 묘를 장식한다느니 하며 심하게 추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지. 우치무라 선생은 교회사람의 선생이기도 하고 전 일본사람의 영구한 선생이기도 하다.

지금의 무교회에서는 “우리들은 모든 진리의 적에 대해서 새로운 선전포고를 한다.”라고 말한 그들 속의 예언자의 말씀은 이미 잊어버린 것같이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허덕허덕하는 일본기독교회에 대해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는가, 교회는 우리에게 무슨 실질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가? 어떤 분이 말한 것같이 “일본적 기독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적 기독교에 특수한 고난이 없으면 아니 된다. 일본에 있어서는 기독교도의 십자가의 현실성은 교회 공격에서는 오지 않는다. 외래의 가톨릭을 프로테스탄트가 공격하고, 또 외래 개신교회를 무교회가 공격해도 그로 인해서 받을 십자가는 심각한 현실일 수가 없다……”라고.

싸우겠으면 좀더 강한 놈을 상대로 해서 싸워주기 바라는 바이다. 그것을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차선’이 아니겠는가? 옛날의 무교회는 거포를 쏘서 적진을 침묵시키고, 또는 맹호노후(猛虎怒吼)하여 모든 짐승을 꼼짝못하게 하는 것 같은 품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근래의 무교회의 집안싸움은 또는 대교회싸움은 적의 머리를 몇을 해냈다고 자기 무훈을 자랑한다든지, 혹은 어린이의 손을 비틀고 큰소리를 치는 것같이만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교회에 대한 나의 견해, 따라서 우치무라 선생에 대한 나의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덧붙여서, 여러분의 비판을 바라고자 한다. 그것은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만일 무교회주의를 빼버리면 그것은 거세(去勢)된 우치무라가 된다.”라는

어떤 분의 논란에 대한 반박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우치무라 선생은 무교회주의의 창도자이기 때문에 “우치무라 씨로부터 만일 무교회주의를 빼버리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거세된 우치무라가 된다.”라며 무교회주의의 화신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며, 우치무라 선생은 무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성도로 보기보다는 영계의 군국주의자였고 호시탐탐 조선반도의 영계에 침입하려는 자였다고 만평한 사람도 있고, 그 외에 귀족적 인물이란느니 난신국적(亂臣國賊)이란느니 위선자란느니 하여 보는 눈이 다르면 인식도 다르기 마련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의 관찰은 모두 장님의 코끼리 더듬기에 지나지 않는다. 관찰이 잘못됐다고보다는 다만 그 일부분만을 보았을 뿐이다.

우리가 본 대로의 우치무라 선생의 전모를 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우치무라 선생은 융감한 애국자였다. 기독교적 성도라기보다는 첫째 황실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국민을 열애하는 표식적(標式的) 무사이고 대표적 일본제국 신민이었다. 그야말로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애국자의 요소를 빼버리면 거세된 우치무라가 될 것이다. 우치무라 선생은 머리 끝에서 발톱 끝까지 전부가 진실한 애국자의 화신(化身)이었다고 우리는 본다.

우치무라 선생은 기독교를 본래의 복음대로 전했다. 무교회주의란 하나의 주의를 수립 창조한 것으로 관찰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물론 우치무라 선생은 무교회주의를 제창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근간은 항구불변의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선양함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무교회주의를 빼버려도 넉넉히 성서의 중심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단언한다.(중략)

우치무라 선생의 강의에는 매 일요일 600내지 800명의 청강자가

32 무교회란 무엇이나?

참석하고, 그가 주관하는 잡지 ‘성서지연구’가 3천 내지 5천의 독자를 가졌지만, 그 청강자와 구독자가 모두 무교회자였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달 서울에 와서 객사한 나가오(長尾半平) 장로 같은 이는 열심 있는 교회신자이면서 오데마치(大手町) 집회의 중견이 되어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배우고 불교도까지도 ‘연구지’를 통해서 배운 일이 있다. 각인각양으로 배울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다.(중략)

우치무라 전집 기타의 선생 저서가 조선기독교계의 교역자와 교회원들에게까지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성서의 진리가 주제로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소위 무교회주의자로서 열광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그들을 의심할 자가 있으리요.

이것이 나의 근래의 무교회론이고 우치무라 선생관이다. ‘무교회주의’와 ‘우치무라 간조’와는 동의이어(同意異語)라는 야마모토(山本泰次郎) 주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란 교회와의 대립항쟁만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조선뿐 아니라 얼마든지 있는 이때에 나는 굳이 말한다. 교회와의 항쟁은 우치무라 선생의 전업이 아니다. “무교회주의란 그러한 소극적인 천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무교회주의란 “모든 진리의 적을 향해서 새로 선전포고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시대와 그 나라의 특색에 따라 현대 일본국민으로서 진리의 최대의 적을 기독교의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이나! 이제야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을 공공연히 거부당하고 있지 않는가?(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서말씀(聖書

の言) 4월호 이시하라(石原兵永) 주필의 논지 이상 이외로 말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교회의 내외를 불문하고 같이 화합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무교회의 탈곡의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무교회의 혼으로써 하는 다른 전장에 새로운 싸움을 하지 않으려는가?

이제는 참으로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구하고 찾는 양떼는 일본 전 영토의 구석구석에서 미쳐 외치고 있다. “기독교도는 과연 일본사람이냐?”라고 하는 괴로운 외침은, 참으로 충량한 일본국민 가슴 깊이 퍼지고 있다. 규슈지방에서도 평양지방에서도 신교(信敎)의 자유가 공공연히 유린당한다는 보도가 벌써 몇 번이나 거둬 들려온다. 우리들은 순교까지 각오하지 않아도 아직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밖에 있느니 안에 있느니 하면서 싸우고 있을 여유가 있다는 말인가?

일본의 무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일본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진리의 최대의 적을 향하여 남자답게 싸우면서 무교회의 적극적인 진리를 나타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조선을 위하는 것이 되고, 세계 구제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일본의 기독교도에게 기대해 마지않는 바 큰 싸움을 싸워주기 바란다. 그리고 일본 혼을 가진 바 일본의 기독교도는 교회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파를 불문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싸움을 싸워내서 전 인류의 진리에의 약진에 일대 원동력을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기원해 마지않는 바이다.

(’37. 4. 5. 야마모토 주필 성서강의)

무 교회

함 석 현

(1)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종교다. 하나님의 계시라 함은 반드시 어떤 천래(天來)의 음성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들리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에든지 있다. 그보다도 인간의 사유범역(思惟範域)을 뛰어넘는, 거기서는 지어낼 수 없는 생명적인 진리가 사상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말함이다.

사람의 사유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부분적으로 분석적으로 모사적으로 될 뿐이요,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하지 못한다. 기독교는 그러한 사람의 사유적 산물이 아니요, 생명적으로 인격적으로 나타난 진리에 근거한 종교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상적으로 취급을 당할 때는 항상 모순이 있다. 교회문제 같은 것도 그 중의 하나다. 한편으로 보면 기독교는 확실히 교회적이다. 그리스도도 사도도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였고, 그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렸다. 이 점은 불교 같은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 불교도 인간제도를 말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요 ‘부처님 나라’라는 것이 없다. 즉 개인이 자기의 신앙 혹은 공덕으로 자신을 주체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또 종국이다.

기독교도는 그렇지 않다. 저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그렇듯 기독교는 교회종교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보면 기독교는 개인적이다. 그 진리의 말씀적인 까닭으로, 그 신앙의 생명적인 까닭으로 개인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각개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그 손에 바치기를 요구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리스도는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의 개인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만일 변론으로써 한다면 교회 절대 필요론자와 교회 무용론자는 다 같이 한 성경과 한 역사에서 자기네의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성경을 근거로 하더라도 일방이 타방을 논증으로써 설복하려는 일은 헛일이다. 쌍방이 다 각각 자기의 신학체계를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론과 역사 양방면의 지식의 군세를 총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세계대전과 같이 혼란과 비참 이외에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기독교는 변론할 것이 아니요, 생활할 것이다. 교회문제도 학문적인 태도로가 아니요, 실천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실천적 태도로써 임할 때 교회문제는 지극히 중대하여 신앙의 근본에 관계되는 것이 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좌 혹은 우의 태도를 취함에 따라,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 신앙이 옳을 수 있고 그를 수 있다. 교회문제의 중심은 교회명부에 이름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신앙의 성질이 갈린다는 데 있다. 기독교는 지금 무교회 문제를 과제로 한 성장의 과정에 달한 것이다. 무교회주의는 지금 그 주장하는 자의 수가 어떻게 적고 통일이 어떻게 없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한 외침이다. 교회주의자가 아무리 변론적으로 이것을 극복하려 하여

도 또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자본주의자가 사회주의자에게 대하는 것같이 자신 안에는 보수적인 것을 상대자 안에는 진보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교회주의는 이론적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2)

문제의 맺히는 곳은 교회가 절대 필요하나 아니냐 즉, 교회 없이는 신앙이 불가능하나 없이도 가능하나 하는 데 있으나, 쓸데없는 말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의 말뜻을 밝히 할 필요가 있다.

‘교회’라는 말이 표시하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주간에 오직 하나만 있는 신령한 인격적인 단체니,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라 한 것으로서 이를 불러 신령한 교회 혹은 천상(天上)교회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현실의 인간이 일정한 조직 하에 모여 있는 단체니, 현실 교회 혹은 지상교회라는 것이요, 그 셋째는 장소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그 중 제3의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교회문제를 논하는 데서 문제되는 것은 제1, 제2의 양자인데, 제1의 신성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 절대통치를 하는 나라 곧 하늘나라임에 그것을 부인할 자는 없다. 거기에는 의심이 있을 여지가 없다. 이 교회는 개개의 신자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적인 단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나라에 부르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은 이 나라에 들어감이다. 마치 자연인이 모태에서 떨어질 때 이미, 아니다 그보다도 그의 성생 그 자체부터 자기 의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민족의 한 사

람인 것같이,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날 때 이미 교회의 일원이다. 부모가 조선사람이면 영국에 가서 낳거나 아프리카에 가서 낳거나 조선사람임에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같이, 영으로 난 이상은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속에서 낳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교회의 백성이요, 유랑의 애국자의 가슴 안에도 조국이 있고 저 자신이 그 조국의 품에 안겨있는 것같이, 아무리 무교회주의자라도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그 적(籍) 외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것은 제2의 현실교회다. 현실의 인간이 교황, 감독, 혹은 목사로서 있어서 고정된 교회헌법(그 헌법은 근거는 어디 두었든지 인간의 회의에 의하여 고정된 것이다)에 의하여 통치되는 지상교회다. 로마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등 하는 것이다. “교회 없이 신앙은 불가능하다.” 할 때의 교회가 천상의 유일 공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문제없으나, 이 지상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없다. 그는 분명히 진리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3)

현실교회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교회는 신령한 교회의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물론 사람이 육체적 존재를 이 물질계에 가지는 한, 천상의 교회는 지상에 투영될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무교회주의자도 교회의 지상 투영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투영은 순수한 것이어야만 한다. 현실교회를 신령한 교회의 투영이라 할 때 교회주의자가 범하는 근본적인 과오는 인간주의를 긍정하는 일이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기구를 인간적인 것으로 모사하는 것으로 써 지상천국인 줄 안다. 말하자면 그들의 이 때의 천국이란 도리어 근본적으로 지상적인 것이 허공에 투사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립 요건은 인간이 자기를 죽은 것으로 선언하는 일이다. 사람이 자기를 죽을 자로 인식하고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을 발견할 때 신앙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상의 교회가 지상에 투영이 된다는 것은, 제도의 모방으로 되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극복에 의한 생장적 의미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산 것이 죽을 것을,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삼키는 일이어야 한다. 인간적인 것에 의하여 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전적으로 부정함에 의하여 천상의 영광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지상의 현실교회가 진정한 의미로 천상의 영자(影子)이고자 하면, 일체의 인간주의를 포기한 사람의 단체가 아니면 안 된다. 인간적 기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적 열심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여금 흐림 없이 인간 속에 들어오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역사상의 현 교회는 분명히 이와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인간주의를 가지고 거룩한 빛을 흐리었다. 교회사는 거룩한 단체 안에 인간주의 침입의 역사다. 생명 대신에 조직을, 자유 대신에 권위를, 체험 대신에 의식을 대입(代入)한 역사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치 못하고, 물질적 폭력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현실의 교회다.

교회를 옹호하려는 자는 말한다. 시대가 지남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점점 더 나타났으니, 이 교회는 신의 가납하는 바 아니냐고. 과연 그럴 듯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이 드러남은 반드시 아들이 효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탕자 위에 아버지의 사랑은 더 잘 나타난다.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 이유로 탕자의 행위를 긍정할 수는 없다. 교회주의자가 아무런 변명을 하더라도 자기 생활이 나갔던 악귀가 다시 돌아온 생활임을 감출 수 없다.

교회 내에 있는 인간주의, 이것을 교회주의라고 한다. 인간적 의사를 가지고 양심은 생명적인 신앙을 경시하고, 외적 기구를 유지함에 의하여 세속적 요구에 응합하려는 사업심을 가지게 되어 그리스도 본위에서 교회본위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교회의 특색을 표시하는 말로서 이에서 더 적당한 것이 없다. 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관심이 아니다. 교회라는 한 단체의 도덕적 세력에 의하여 사회구제를 하자는 피상적인 생각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빈다. 여기에 현대교회의 바리새적 위선이 들어있다. 교회주의는 바리새주의다.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것같이, 현대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고르반’ 식으로인 고로, 근본태도에 있어서 인간적이다.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교회 절대본위주의를 부르짖을 때, 외관상 매우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나, 근본에 있어서 한 개의 인간적 결사의 초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교회의 성단 위에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가 앉아있는 일이 많다. 그리하여 그 초개인적 사회력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의 행사를 하려 한다. 더구나 한때 군중 심리적 흥분에 의하여, 감격이 있을 때, 그는 ‘은혜’로 ‘성신의 능력’으로 가장되어 개인의 양심 위에 절대적인 세

력으로 임한다.

이 경우에 여기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곧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로 몰기 때문이다. 스테판이 죽은 것은 이러한 정세에서였다. 인간주의는 하나님께 충실하려는 개인을 유대인의 교회당에서 몰아내어 그리스도에게로 보냈던 것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 둘 곳이 없이” 하였던 것같이, 현대의 교회에서도 가련한 소수자를 저들이 그리스도에게 직속하려는 죄로 축출하여 세리와 죄인의 사회로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는 그들과 같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는 이 가증한 개인주의자들 간에 투영되어 있다고.

(4)

하나님의 교회는 송이버섯같이 외대 기둥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만으로 서는 것이 참 교회다. 복잡한 조직이 필요치 않다. 조직은 인간주의의 표현이다. 사과(絲瓜)가 썩어서 수세미가 되는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죽은 때에 조직이 드러난다. 생명의 도가니 안에는 결정(結晶)이 없다. 결정은 냉각한 후가 아니고는 없다. 현 교회에 긴밀한 조직이 있다면 그는 생명이 식은 증거다. 이것은 역사상에 뚜렷한 일이다. 생명이 횡일(橫溢)하는 사도시대에 신도 사이에는 하등의 조직이 없었다. 현 교회의 의미로 하면 원시 기독교는 교회를 가지지 않았다. 교회헌법도, 규모도 성속(聖俗)의 구별도 아무것도 없는, 거룩한 교회를 그대로 표현하는 단순한 신앙단체였다.

그러나 단체가 점점 커져 현림(現臨)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우고, 단체로서의 의식이 차차 인격적 생명의 약동을 능가하

여 감에 따라 고정된 조직의 필요를 느끼게 되어, 드디어 로마교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지적할 때는 어떤 교회주의 자라도 반대하지 못한다. “과연 그렇소.” 하고 항복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곧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한 것이니까…….” 하고 변명이 나온다. 이는 거의 공식적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교회주의다. 그 말하는 의미는 이것이다.

즉, 이상으로 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에 직접 연결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만, 현실의 인간이란 불완전한 것이므로, 일단 단체를 이룬 다음에는 그것을 유지해 가는 규칙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현실론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 과연 그렇다. 교회주의는 현실주의다. 십전(十全)을 기하는 매우 친절한 주의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그리스도는 현실주의는 아니었다. 잔혹한 이상주의자였다. 조직을 시인하려는 사람은 그 역사적 필연성을 말한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직접 그의 인격적 감화에 의하여 되지만 한번 단체가 성립되면 개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체 자신이 가지는 사회적 법칙성에 의하여 일정한 조직에 들어갈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역사적 사회적 관찰로 보면 옳은 말이라 하겠으나 대체 그 필연성을 지어놓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주의밖에 다른 것 없다. 교회가 만일 인간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의 모임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조직의 필요를 말함은 죽었을 인간이 아직 채 죽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에 있어 조직적 교회의 필요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해부하면 무엇이 있나? 조직이 없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의 혼란에 빠질 것이요, 혼란하면 무력하고, 교회가 무력하면 기독교는 쇠멸하고 말 것이다.

조직이야말로 힘이다. 기독교로 하여금 유력한 종교가 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체로 이러한 생각이 들어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배척한 물질적인 생각이다.

그러한 필연이라면 그리스도의 당시에든 충분히 있었다. 4천명 5천명이 목자 없는 양같이 따라다닐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 바리새 교인들이 죽일 생각은 많으나, “호산나”라고 앞뒤로 웅위하는 군중을 두려워하여 감히 손을 대지 못한 것을 볼 때, 인간으로 한다면 저는 어떤 암시를 못 얻었을까? 더구나 각각으로 위급해 오는 형세를 보면서 어떤 처치의 필요를 안 느꼈을까? 그만한 파문을 일으킨 그가 다소라도 조직적인 방법을 강구했다면, 그렇게 적막한 최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업으로 본다면 저는 완전한 실패다.

겻세마네 동산의 장면 같은 것은 정치적 안목으로 보면 거의 추태요, 생전에 같이하던 핵심단체인 사도단조차 사회적 세력으로 하면 그가 죽은 후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사도행전에 새 교회의 일어난 것을 곧 보기는 하나, 그는 따로 새 생명에 의한 것이요 생전의 계속이 아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사업도 죽어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일체의 인간적인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생전에는 교회 아직 없었다고 하지만, 그는 그가 교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교조의 생애를 보아 증명할 수 있다. 사회적 필연성의 소이로 조직적 교회를 시인하려 함은 분명히 비 그리스도적 생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현실의 교회는 교권의 주장을 가진다. 개개의 신자를 초월한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명령적인 권위를 가지고 개인 위에 임한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신자는 교회의 제정하는 데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론은 어찌 되었든지 사실에 있어서 신자와 교회원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신앙에 들어간다 함은 일정한 조건을 수락하고 교회의 통치권 하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처음부터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이 아니다. 전도자로 순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원을 만들기 위하여 한다.

구도자가 단순한 진리를 위하여 찾아갔다 할지라도 교회당 문안에 들어서면, 밖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한 사회가 위압하는 공기으로써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후 여러 가지 환영과 권면 교훈의 말을 들으나 요약하면 “그대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이 교회에 들어움이 절대 필요한 일이요,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이 교직자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교직자로 대표되는 교회라는 한 권위와 복종관계를 맺고 서게 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일일까? 교회의 주장으로 하면 신앙이란 복종이다. 교회의 명령에 복종치 않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도 없다. 교회의 의견으로 하면 신앙은 공포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종교학자들은 그런 말을 한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신앙은 공포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써 생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신공봉(人身供奉)을 하던 이

방종교와 같이 전율에 의하여 서는 것이 아니요 사랑의 연결로써 된다. 교권에 복종함에 의하여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친다 — 신앙에 의하여 지상의 교회가 성립된다. 교회주의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전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전도된 생각이 사랑이어야 할 신앙을 복종으로 오해하는 이 거꾸로 된 생각이 교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전도된 논을 하게 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교권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요 그를 대표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속이는 시대착오의 말이다. 그리스도에게는 대표자가 있을 수 없고 그가 세상에 오신 후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체의 대표자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오기 전에 있어서 인류는 인간적 대표자, 중개자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그가 온 후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

기독교의 진리가 도덕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복음인 이유는 과거시대 승려의 손에 전유되어 있었던 천국문을 빼앗아 자유 개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이대로, 이 죄인의 몸 그대로, 승려도 교회도 그 외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제 또 그리스도의 대표 운운하는 것은 유대주의로 역행하는 일이다. 대체 교회의 신자는 예수가 무엇을 위하여 뉘 손에 죽었는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방 불신자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요 교직자의 손에 죽었다. 오늘로 하면 교황, 신부, 감독, 목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 무엇을 위하여 죽었나? 그 교권을 깨치기 위하여. 신자는 습관처럼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위하여 죽었다 한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추상적인 일개명사 하에 죽은 것

이 아니다. 그를 죽인 죄는 구체적으로 제사장, 바리새교인 하는 교권자에 대표되었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폭격하기 위하여 자기가 육탄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가 주의하지 못하는 이 사실, 즉 그리스도에 항전한 죄의 세력은 불신자가 아니고 교권자로 표시되었다는 이 사실은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적대관계에 두는 것이 곧 죄요 죄는 곧 인간 주의인데, 이 인간주의의 최고부는 궁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군영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은행이나 연구소 같은 데 있었던 것도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밑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전도를 하되 이방에는 별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 애국심에서가 아니요 세계구제의 싸움에서 적의 본영을 우선 폭격하는 작전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자기가 죽기까지 하여 목적대로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승려근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가는 길을 막고 대신 해주마, 중개해 주마 하는 것은 원치 않는 친절이라기보다 역사의 역전이요 우리 생명의 약탈이다.

교회는 또 말한다. 진리는 개인이 자유로 해석할 것이 아니요, 성령은 교회에 임하는 것인 고로 교회에 복종함이 안전하다고. 과연 사람을 유인하는 말이다. 그러나 만일 성경의 자유해석이 틀렸다면 예수도 틀렸다. 복음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자유롭게 (교회의 전통에 구속되지 않고) 성경을 해석했는지 알 수 있다. 또 안전이라 하지만 안전을 기하는 데, 신앙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신앙이란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모험을 하는 일이다. 교회를

만드는 심리는 안전을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것이다.”라고 누가 말한 것같이 천국에는 각자가 제 발로 들어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고 제 발로 걷는 한 모험이지 않을 수 없다. 천국에는 계단을 짚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단체로 할인하여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안내자의 말을 듣고 단 걸음에 도약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쉬운 계단이 있는 것같이, 단체로 가면 값싼 것같이 말하는 것은, 성전을 변하여 상점을 만드는 교권자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여력이 있어서 남의 십자가까지 저줄 자가 있느냐고.

권위는 몽학선생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때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는 이 때에 있어서는 권위는 필요치 않다.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요 담대한 것이다. 과거시대는, 대표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복종하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마다 제사장이다. 다 하나님과 면접할 수 있다. 품행방정한 맏아들과 방탕한 둘째아들이 다 같이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는 때다. 맏아들도 그 장자인 이유로 품행방정한 이유로 특권을 주장할 수 없고, 둘째아들도 그 방탕했던 이유로 종이라 하며 멀리 서기를 허락지 않는다. 이 편에서 못 가더라도 아버지 편에서 나와 맞는 때다. 이 때에 있어서 선생인 척하고 부자의 틈에 개입하여 예의, 도리 운운하는 자는 썩어진 바리새주의자다. 자유의 생명은 그런 것을 배척한다.

(6)

권위의 주장이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인 증거는,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제정한 성속구별제도(聖俗區別制度)에 잘 나타나 있다. 어떤 권위든지 그것이 자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방법의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격주의(遠隔主義)요 둘째는 신비화주의(神秘化主義)다. 즉 자기와 통치 받는 자의 사이를 되도록 떨어지게 하는 것과, 피차간에 있는 지배관계를 되도록 신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의 성속구별이라는 것은 이 작용을 하는 시설이다. 평신도는 교직자를 몇 층 대의 계단 밑에서 우러러볼 뿐이요 면대하지 못하며, 교단에는 운무가 서린 중에서 거룩한 태도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양심들은 거기 위복(威服)되어버린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 내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 의식이라는 것이다. 거룩한 의식처럼 신자를 뜰 밖으로 내몰고, 아무것도 아닌 상징 안에 사실로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승려의 종교는 의식의 종교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의식은 과거시대 하나님이 그 대표자를 통하여 말하던 때에 있던 것이다. 당시에는 의식이 정당한 의미대로 행사될 때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교권의 횡령을 행한 승려들은, 자기네의 참칭(僭稱)하는 신성을 보장하는 기구로 이 의식을 악용하였다. 그래서 인간을 가르치기보다도 그 양심을 점점 더 어둡게 하였다. 바울이 유대주의를 박멸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 것을 보면 그 폐해가 얼마나 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적인 진리에 직접 접하는 사도시대에 있어서 의식이라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세례와 주의 만찬이 있었으나 모두 상징적 의미로 할 뿐이요 의식 그 자체 안에 무슨 효과가 있다는 사상은 없었다. 그런 것이 조직이 점점 복잡해 감에 따라 단순했던

의식에 가지가지 마법적 의미가 붙게 되었다. 세례의 물 그것 안에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고, 축복 후의 떡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고 하는 등이다. 지금 보면 분명히 미신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교회가 행하는 것이므로 솔직히 받았고, 그것을 받는 한 교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표자인 것같이 알았다.

그러나 인간의 혼이 자각하고 지식이 진보된 오늘날에 그런 마법적 능력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다른 설명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심리적 설명이다. 사람이란 선천적으로 그 신앙의 객관화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의식이란 곧 객관화된 신앙이다”라고. 그러나 무슨 설명을 붙이든지, 이것이 인심을 교권에 붙들어 매는 힘있는 끈인 것은 사실이다. 교회적 경건은 이러한 숭엄한 의식의 주사로 계속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얼마나 가련한 신앙인가? 만일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풍부한 자일수록 진보된 자라면 교회주의는 일개 교육사상으로라도 확실히 퇴보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들은 “볼지어다, 때가 오리니 산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말에 공연히 반대하는 자들이다.

성속의 구별도 의식도 다 진리에 반하는 일이다. 예수의 종교는 원격의 종교가 아니요 면접의 종교며, 신비의 종교가 아니요 평이의 종교다. 사람을 하나님께 접근시키는 것일수록, 진리를 수식 없이 간명하게 드러내는 일일수록 진리다. 그리스도는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승려들은 그 위에 찬란한 법의를 덮으며, 그 앞에 분향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줄로 아

나 그는 인간주의밖에 안 된다. 그에 의하여 그는 하나의 예술적 도취욕의 만족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료적 자만감을 느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황홀한 선남선녀의 주머니를 엿보는 것밖에 없다.

(7)

무교회 신앙이 교권, 의식에 반대할 때, 교회주의자는 그를 비난하여 개인주의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까? 무교회주의를 형식적으로 취급할 때 그는 확실히 개인주의다. 저는 교회를 떠나 고립한 존재를 가진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를 일편의 형식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볼 때 그 평은 결코 맞는 것이 아니다. 외면상으로 하면 무교회주의자는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결코 불교도는 아니다. 저의 제일 염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 우주의 탄식이 끝나는 날이 오는 것이다. 저가 독립하는 것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하여 봉건 군주를 버리는 일이다. 군명을 거짓 칭하던 제후의 눈으로 하면 개인주의자 같을 것이다. 절대 통치의 군주의 눈으로 하면 군국에 충성하는 자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적으로 죽자는 자인데 그에게 개인주의가 있을 여지가 없다.

다음은 그 개성을 존중하는 이유로 개인주의라고도 한다. 이것도 무교회 신앙을 한낱 사상으로 본다면 그럴 만한 비난이다. 무교회주의자가 개성의 절대가치를 부르짖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다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본다면 개인주의도 아니요 사회주의도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듯한 두 주의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기

독교의 특색이다. 사실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강한 개성존중의 사상도 나왔고 또 사회사상도 나왔다. 이것은 기독교가 생명적 진리인 증거다. 이상적인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당하는 점이 없는 곳이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서 본다. 무교회주의자로 하여금 개성의 존엄을 새로이 부르짖게 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요 교회라는 물질적 권위 하에 인간을 굴복시키려는 교회주의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성을 몰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높이는 일이다. 교권에 반대하는 이유로 무교회주의를 개인주의라 하는 것은, 교회를 가지고 생명인 사랑에 의한 단체로 알지 않고 권력에 의한 지배관계의 단체인 것처럼 오해하는 인간주의에서 나온 말이다.

교회는 개성 위에 군림할 것이 아니요 개성 안에 있을 것이요 개성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지상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아닌 일개의 ‘것’인 다음에는, 개인의 영을 종속시킨다는 것은 구원의 진리에 위반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다. 그러나 금후의 세계에는 개성의 주장이 감소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갈 것이다. 권력적 통치를 하려는 교권은 이미 과거시대에 속하려 하고 있다.

무교회주의를 개인주의라 비난하는 데는 이상과 같은 기계적 권력관계의 입장에서 하는 외에 또 근래의 사회과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오는 것도 있는 듯하다. 근세에 와서 사회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생관이 매우 변했다. 종래에 사람을 개인적으로만 즉 개인을 자족적인 것으로만 보던 것이 지금은 인간이란 근본에 있어서 사회적인 존재요 개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추

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성해졌다. 이 사상은 인간의 자기발견사상에서 확실히 일대 시기를 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일단 깊어졌다. 그런데 이 사상이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어 종래의 개인적 복음에 대하여 사회적 복음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무교회주의가 교회주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는 개인주의여서 안 되었다, 개인으로는 신앙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하는 말은 직접 간접으로 그러한 사상의 영향이 있는 듯하다.

개인 대 사회관계를 개인 대 교회관계에 적용할 때에 사회를 떠나 생활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은 교회를 떠나 신앙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적용은 과연 옳은가? 사회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중점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되는 개체 개성간의 상호관계다.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문제의 중점은 상호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대 인간성에 있다.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부분 대 전체의 평면적 관계이나,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 대 인간의 상하의 관계이다. 교회에 있어서는 개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한 인간사회로서의 현 교회는 사회관계에서와 같이 개인에 대하여 우월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궁극에 있어서 사회나 개인이나 동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권위를 가지는 것은 천상의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는 조직적 관계의 교회가 아니요 전체가 개체 안에 있고 개체가 전체 안에 있는 인격적인 교회다. 그러므로 개인이기 때문에 신앙불가능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

개인주의라는 말과 동시에 무교회주의자가 받는 비난은 주관

적이라는 것이다. 즉 무교회 신자는 교회를 모르는 고로 그 신앙은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 저 한사람의 소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다. 객관성의 근거를 다도성(多度性)에 두는 과학적 진리에서 하는 말이라면 그는 옳은 말이다. 과학적 관찰에서는 누가 보든지 언제 보든지 항상 동일한 현상을 얻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보아도 일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진리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소위 정중와(井中蛙)의 소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그런 수적(數的) 성질의 것일 수가 없다. 과학적 객관은 법칙적인 것인데 법칙이란 결국 다도성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거기서는 일반의 의견이 최후적 권위를 가진다 하겠지만 신앙의 객관성은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요 생명적인 진리에 있다. 만일 수적으로 한다면 불교도의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주관이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지 않다. 신앙에서 주관이란 개인적 의사라는 의미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면 안 된다. 수천명 교회의 가결이라도 인간적이면 이는 인간주관이요 단 한사람의 고백이라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신적인 것이면 이는 억만대에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는 객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인 고로 신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그는 제사종교시대의 옛 사상이요 그리스도 이후에는 무의미한 말이다. 예수는 골방에서 기도 하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그러나 일체의 변론을 그만두고 사실로써 판단하게 하라. 무교회주의자의 좁은 주관이 어디 있는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은 자라 한다. 그것이 주관인가? 그러면 그리스도도 주관주

의자다. 저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 그것이 주관인가? 그렇다면 베드로도 주관주의자다. 저는 일체의 의식은 얹매는 것뿐이요 아무 의미 없다고 한다. 그것이 주관인가? 그러면 바울도 주관주의자다. 기독교의 근본진리에 대해서 어느 것을 무교회주의자는 왜곡하던가?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교회의 신자는 그것은 좋다, 그것도 동감이다 하고 찬성하면서, 교회의 폐해를 말할 때까지 과연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그러나 교회에 오지 않는 것만은…….” 한다. 그렇다,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주관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 과실은 다 좋으나 그 나무만은 좋지 않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한 비평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주관이다.”라는 형식적 논법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무교회 신자가 목사의 손을 뿌리치고 교회당에서 탈출한 것은 독단에서 연석(演釋)한 것이 아니요 양심에 향하여 도전하는 사실에 못 견뎌 결론한 일이다. 누가 알리요, 교회만능을 주장하는 그 사상이야말로 인간적 주관이 아닌가 함을.

(8)

그러나 그렇게 말함은 무교회주의자가 자기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저는 깨진 토기다. 결점투성이의 인간이다. 자기 주장을 할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안에 담기는 무교회적인 진리가 역사적 중대성을 띠기 때문이다. 한 말로써 하면 무교회주의는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주의를 배척한다. 거룩한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그 지상의 투영까지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현 교회 안에 들어있는 교회주의를 미워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요, 만들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 교회 안에는 교회본위로 인간적 노력으로 교회를 만들자는 주의가 들어있는 고로 그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교회주의를 미워함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교회주의에 고정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교회주의는 인간부정주의다. 단체이거나 개인이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단체인 까닭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인고로 옳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함은 무교회의 진의를 알지 못한 것이다.

교회를 판단하려는 오만에서가 아니라 인간주의를 물리치고 겸손하기 위해서다. 비사교적인 개인적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다. 인간본위를 싫어하는 진리로 인해서다. 고독을 좋아하는 자같이 생각하나 어찌 고독을 자취하리요. 누구보다 더 교회를 원한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연결되는 형제자매의 교회, 그는 얼마나 부러운 것인가. 그러나 허위를 범해서까지 향락을 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 어찌 고독이 좋아서 최후에 갯세마네에서까지 홀로 기도했으리요. 인간이 들어와서 아니 되겠는 고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철학자는 말한다. 그렇다. 그는 진리다. 인간은 사회적이다. 그러므로 참 인간적인 것은 즉 인간의 장점은 개인적인 데보다 사회적인 데 더 들어있다. 자유신자보다 교회신자에 인간적인 것이 더 들어있다. 그러므로 인간주의를 미워하는 무교회주의는 교회주의를 미워한다.

무교회주의는 부정주의다. “언제든지 부정적이지.”라는 주의다.

청년성을 영원히 가지자는 것이다. 전통에 대하여 반항적,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던 청년 사상가도 노숙하면 보수적이 되는 것같이 어떤 신앙도 그 나타날 때는 프로테스트적이나 마침내는 한 체계를 이루어 고정하고 마는 것이다. 무교회 신앙은 영원히 체계를 이루지 말자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으며 인간수업이 부족한 편협한, 조야한(粗野漢)이라는 욕을 들으면서라도 고정화하려는 시류에 반항하자는 것이다.

그런 고로 저는 극단으로 나간다는 말도 듣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평도 듣고, 심하면 유희기분으로 시기심으로 남의 일에 반대하는 자라는 말도 들을 수 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인기 없는 일을 한다. 그는 수천 명의 회원은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다. 다른 무엇이 다 되더라도 무교회파가 사회적 대 세력으로는 되지 못할 것이다. 될 만하게 되면 저는 재반항을 하고 탈출하기 때문이다. 그의 소원은 광야의 예언자와 같이 침체하는 교계에 향하여 한 개 외침을 보내면 족하다.

그러나 저를 소극론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진리가 있어서 반항을 하는 자다. 저는 하나님 절대 중심주의자다. 인간주의를 배척함도 하나님 절대중심이기 위해서요, 교권을 반대함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귀족주의이기 때문이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통치 하에 성립되는 신앙의 데모크라시를 주장한다. 사상적으로 볼 때 데모크라시는 시대에 뒤졌는지 앞섰는지 그는 모른다. 그러나 영혼의 요구로 볼 때,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녀요 다 같이 제사장인 한 마리의 가치가 아흔 아홉 마리의 가치에서 가볍지 않다는 성서의 데모크라시는 천래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저는 자기 신앙에 오는 일

체의 간섭이나 구속을 배척한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데모크라시가 아니요 사랑의 데모크라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복종에 의하여 되는 절대평등, 절대자유의 나라다. 나라라기보다 집이다. 교회는 국가적이기보다 가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법권이 지배하는 데가 아니라 사랑이 화합하게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복종이라 함은 곧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일이다. 무교회주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는 노력이다. 그를 위하여 교회를 버린다. 그러나 진리는 역리적이다. 생명을 아끼는 자가 잃고 버리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같이, 교회에 고착하는 자는 도리어 잃을 것이다. 이 지상에서 교회를 버리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진다.

(’36. 3. 4. 성서조선 86, 87호)

무교회 신앙의 성격

송 두 용

“하나님은 사랑”(요일 4:8,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인자(예수)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너희도) 거저 주라.”(마 10:8)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얼마든지 있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사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한 구약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뿐이라? 이 밖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교훈의 말씀은 얼마든지 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예수의 가르치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것이다. 과연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의 창시자이며 나의 은사인 일본사람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는 아무리 보아도 성경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는 거리가 있으며 매우 다른 것이 있는 것같이 보이며 생각된다. 그는 우선 자기의 성서연구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서 회비를 받았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체체 놓고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학문이나

과학지식인 것처럼 연구하는 데만 힘썼다는 그 일 자체부터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보다 도무지 재미없는 일인지도 알 수 없다. 모임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엄금하며 늦게 될 때는 차라리 나오지 말라는 정도이며, 모임에 참석하려면 선생의 허가를 받을뿐더러 마치 입학시험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니, 과연 이것도 기독교이며 성경에 합치되는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는 아니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만 정도만은 아니다. 우에키(植木)라고 하는 진실한 청년이 우치무라 선생의 모임에 다니는 선배의 소개장을 받아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여 선생의 허락을 받으려고 선생을 찾아가니 마침 문간에 “성서지연구(우치무라 선생께서 주필 하신 성서잡지)를 1년 이상 읽지 않은 자는 모임에 나오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써 붙인 것이 있었는데, 선생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지금 나는 내가 만든 규칙을 내가 곧 깨뜨릴 수 없으니 만일 군이 내 모임에 꼭 오고 싶으면 1년 후라도 반드시 올 것이요 만일 그래서 오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 1년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거절을 당한 일이 있다고, 우치무라 선생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에키 씨가 발간하는 ‘만세반석’이라는 잡지에 실린 것을 추억문집에 옮겨 쓴 것을 읽고서 감개무량한 바가 있다. 나는 이와 비슷한 일화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모조리 말할 필요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 한 예를 말한 것뿐이다. 나는 행인지 불행인지 거절은 당하지 않았으나 역시 선생께서 친히 몇 가지 질문을 하신 후에 입회허가를 받았으며, 또 선생을 만나는 일을 위하여서는 오래된 회원의

소개는 물론이고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에키 씨는 실망하지 않고 영원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1년쯤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1년을 참고 기다려서 선생의 문하에서 배워 훌륭한 전도인이 되어 먼저 말한 잡지를 발행하였으나, 전도하는 일에 무리한 탓인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아까운 일이다.

그뿐인가? 우치무라 선생은 누구나 다 무섭다고 말한다. 선생은 가끔 무슨 중대한 신앙문제 즉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에만 의한 것이다.”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나는 이렇게 믿는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이가 있거든 할 수 없이 작별하자. 지금 이 자리를 떠나주기 바란다. 설령 이 모임에 나 혼자만 남아도 할 수 없다.”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신자들이 조심하여 모험을 피하는 것은 이상하다. 신앙은 모험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은 아무도 증명 못 한다. 계시다고 믿고 모험하는 것이다. 해볼 만한 모험이다……”라고. 혹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늙지 않으려거든 자기보다도 강한 적을 가져야 한다”고. 과연 사자나 독수리같이 무서운 사람인지도 알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선생의 성격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선생이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설령 강하고 무섭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를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우치무라의 믿음은 신본주의이며, 십자가 중심이었다. 선생은 “기독교는 십자가교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좁은 문이요 험악한 길이다(마 7:13~14).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또는 병든 딸을 고쳐주심 바라고 발 앞에

옆드려 간구하는 이방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고 하는 폭언 비슷한 말씀을 하신 일도 있다(마 7:6, 15:24~25). 얼마나 몰인정한, 아니 무자비한 태도이며 말씀인가? 그렇다, 참은 마치 얼음과 같이 차디찬 것이며 사랑은 마치 불꽃처럼 뜨거운 것이다. 누가 쉽사리 감당할 자이나?

나는 이제 우치무라 선생의 언행이나 생활에 대하여 구구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내가 우치무라의 선전자가 아니며 그의 숭배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참으로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닌게 아니라 선생이 떠나신 지 30년도 되지 않아서(금년이 29주년이다) 그의 비석을 세우는 자가 많은 모양인데, 대개 그런 사람은 선생의 생전에 반대하거나 배척하던 사람이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 선생에게서 배웠으나 선생보다 훌륭한 이도 있는 듯하니 매우 고마운 일이나, 그렇다고 선생을 무시하거나 이반하는 것은 찬동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은 선생보다 앞서기는커녕 아직까지 선생을 이해조차 못하는 형편이니 한심하며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내가 어떻게 선생의 비석인들 세울 수 있으랴? 그러므로 나는 심히 부족하면서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배운 덕택으로(2년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입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34년 동안 아무 것도 보람있는 생활은 못하였으나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신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나라에는 모든 것이 그런 것같이 이제는 무교회주의까지 가짜가 백주에 횡행하여 마

치 교회측에 무슨 교회니 무슨 장로니 무슨 증인이니 하고 어수선한 것같이 우리들을 괴롭히며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한없이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랴! 원래부터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자라온 것이니만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오해와 미움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차라리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결코 불행도 슬픔도 아닌 것이다. 주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울도 루터도 그 밖의 참 신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오해받고 미움받고 결국 쫓겨나고야 마는 것이다.

우치무라 선생의 생애도 또한 그것밖에 무엇이 있으랴? 국가와 동포에게는 역적, 반역자, 교회와 신자에게는 이단자, 반동분자, 가정과 친척에게는 거리끼는 자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연보와 자금문제로 추태를 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비제로 하였고, 시간 엄수로 진실을 길렀으며, 입회 허가하는 일로 마귀의 꾀방을 막았고, 성경연구로 우상숭배와 광신자를 물리친 것이다. 그는 철학, 과학, 역사 등의 지식과 상식을 토대로 하여 보다 건전한 신앙을 오직 예수의 십자가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그의 무교회주의는 성경본위의 복음주의인 신앙만의 기독교일 뿐이다.

(59. 3. 성서인생 43호, 문집 3)

‘무교회’ 간판을 내린다

송 두 용

지금부터 33년 전의 일이다. '37년 5월호 '성서조선'에 '무교회 간판 철거의 제의'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김교신 형의 글이었다. 김형이 "무교회 간판을 내리자."고 제의한 것은 누가 무교회주의를 평하여 "교회와의 대립 항쟁에만 존립의 이유가 있다."고 한 지나친 오해 또는 악의에 대하여 만일 무교회주의가 그런 것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단연코 '무교회의 간판을 내리겠다'는 뜻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왜인지 나는 얼마 전부터 김형의 이 말이 생각나면서 나아말로 '무교회 간판을 내리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는데 이것은 결코 어제나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실은 내가 잡지 이름을 '성서신애'라고 하였을 때에 '무교회 기독교'라는 부제를 붙이면서부터 시작된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그 때는 그 때대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무엇인가 어색하였지만 그런 대로 3년 동안(30호까지) 끌고 왔으니 모를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암만 하여도 '기어코!'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졌다.

그러자 마침 "한국 무교회 신앙은 참으로 위기라고 통감합니다."라고 한 매우 심각한 글월을 받게 되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던 생각에 심한 자극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그렇다면 새해부터는 꼭 '무교회의 간판'을 떼기로 했다. 그리고 위의 글월에는 나에게 "영양이나 원기는 주어 일으키지 못하고 수술부터 하려는 태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그것은 나 개인의 성격의 결함이지 결코 무교회 신앙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 큰 착각이

며 오해지만 나에게는 심한 자극이었다. 게다가 나는 요즘에 또 하나의 이상한 뜻밖의 글을 읽게 됐다. 그것은 어떤 시골 고등학교의 JRC 단원이 적십자사 본사에 보낸 “저는 JRC의 정신을 나 혼자 지녀서 실천하면 될 것이고 굳이 단원으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종교에서 무교회주의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다. 이 글을 보고 내가 놀란 것은 한국에서도 무교회주의가 시골의 고등학생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널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보다 큰 책임을 저야만 할 것은 물론인데 이런 처지에 있는 무교회주의가 위기에 서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슬픈 일이나 말이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지금까지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무교회 간판’을 내린 것은 결코 그런 일 때문이 아닐뿐더러 또한 그래서도 아니 될 일이다. 이미 말한 대로 위의 두 가지 사실이 때마침 나에게 매우 큰 자극을 준 것만은 사실이기에 그것을 말한 것뿐이다. 나는 입신한 지 이미 46년째 된다. 그러나 나는 신앙생활을 더구나 무교회 신앙을 전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기독교자로서나 또한 무교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오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결코 내가 무교회 신앙을 버린다는 말은 아니다. 김교신 형도 말한 것같이 “우리는 과거에 무교회인으로 행세하였던 것처럼 장래에도 무교회인이라는 별명으로써 신앙의 길을 시종할 것을 예상하며 또한 기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일에……. 무교회의 간판을 내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김교신의 생존시만 하여도 ‘무교회’라는 말은 ‘별명’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무교회는 결코 별

명이 아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도 무교회라는 어감은 분명히 좋게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어감 따위가 문제될 수는 없다.

그뿐더러 기독교에 있어서 그 무서운 교회주의 또는 교회정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무교회’라는 지독한 극약(폭탄?)이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무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시대와 방법의 차이가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뿐이며 또한 그만큼 현대인들이야말로 옛 사람들보다 훨씬 영이 약하고 어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그래서가 아니지만 나야말로 소위 무교회 신자라면서 이제까지 무교회가 그렇게 귀중하며 책임이 중한 것을 너무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실은 큰 잘못이었다. 그것은 그렇거니와 나는 왜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무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커졌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이모저모로 말한 바가 있거니와 나는 이제 새삼스럽게 무교회에 대하여 관심할 이유도 없고 문제삼으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제까지 내가 무교회 신자이면서 너무도 비무교회적인 생각과 행동과 생활을 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후회하며 또한 표면으로 자백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물론 내가 아무리 후회하거나 자백한다고 해서 별안간에 훌륭하고 철저한 무교회 신자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나 자신이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나이를 먹도록 이렇게 불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살아 온 것을 깊이 통회

하는 바이다. 이렇게까지 내가 나의 불신 특히 무교회 신앙의 불투명한 것을 느끼며 깨닫게 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여러 번 말했거니와 내가 일생에 처음으로 거의 반년간이나 앓고 난 후에, 섬 생활을 이제 2월까지면 만 1년을 해온 것이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나는 섬 생활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것이나 깨닫지 못한 것을 여러 가지 느끼고 깨달았으며, 알지 못한 것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을 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 모든 나의 경험과 체험들을 통하여 배운 것을 통틀어 한 마디로 하면 결국 “내가 잘못을 많이 하였는데 그 원인은 나의 무교회 신앙이 불철저, 불투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교회 신앙이 무엇이나고? 간단히 말해 “무교회 신앙은 영과 육을 분명하게 판단하며 공과 사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뚜렷한 무교회 신자라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를 읽은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이면 누구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니 그것은 이것이 바로 성서가 가르치는 진리요, 복음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교훈이며 생활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반대하고 배척하고 모독하였는가?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보다도 유대의 종교인들이니 곧 바리새 사람들이었다. 현대 특히 한국에는 무교회의 간판 밑에 이리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무교회의 간판을 떼면서 올바른

무교회 신앙에 살고 싶은 심정에서 이렇게 모순이며 역설적인 일을 감행하는 바이다.

(’70. 1. 성서신애 141호, 문집 4)

무교회 신자는 누구냐?

송 두 용

무교회 신자는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회를 반대하거나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다. 더구나 예배나 기도나 그 밖의 믿음을 위하여 하는 일까지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닌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무교회 신자는 무교회 신앙을 가진 자이다. 무교회 신앙은 성서 외의 아무 장정(章程)도 헌법도 규칙도 없다. 하나님 외 예수 밖에 아무도 믿지도 존경도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 외에는 아무 의식(儀式)도 형식도 없다. 뜻(실은 신앙)을 같이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임(집회) 이외에는 아무 조직도 제도도 없다. 먼저 믿은 자가, 혹은 성서를 공부한 자가 성서의 말씀(진리)을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師弟)관계, 실은 형제 이외에는 아무 구별(더구나 계급)도 전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靈)으로 사귀는 사랑 이외에는 아무 사교(社交)도 없다. 따라서 친불친(親不親)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무교회 신자는 아무도 될 수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물론 교회 안에 무교회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 중에 무교회 신자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어서 결코 이상한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가 누구이며 몇 사람이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실은 소위 무교회 신자라고 자칭하며 입으로 ‘무교회 신자’ 운운하는 자들이 많지만(특히 한국에), 그들이 참된 무교회 신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가 무교회 신자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큰 착각이며 잘못이다.

그렇다면 결국 무교회 신앙은 사는 일이다. 참과 선과 사랑에 사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과 선과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무교회 신자라는 것은 진리에 사는 자다. 그 까닭은 예수님은 진리(자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결국 교회 신자들은 무교회라면, 혹은 무교회 신자라면 백안시하거나 독사처럼 여기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나는 무교회 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항상 모임에서 역설하는 바이지만) “결코 교회를 배척하거나 교회 신자를 멀리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70. 7. 성서신애 146호, 문집 1)

무교회란 무엇인가?

송 두 용

사람은 양면적인 존재다.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다. 고집하는가 하면 어느 틈에 탈피하고 있다. 그뿐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두 면이 있다. 선한가 하면 악하고, 자비한가 하면 잔인하다. 사랑하는가 하면 미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따르게 마련이다. 나는 지금 전등불을 켜다(지금은 새벽 4시다). 그랬더니 그림자가 보인다. 빛이 없으면(밝지 않으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이면서도 항상 같이 있다(같이 산다). 이러한 현상을 모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말한 대로 모순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라만상, 일체가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순이 크면 클수록 모든 것이 확실하고 뚜렷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모순을 기피한다. 거부하고 배척한다. 실은 자기에게도 분명히 모순이 있으면서 말이다. 이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 가장 큰 모순이다.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실은 자기 갈등이 가장 크고 무섭다) 배척하게 된다.

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가? 아니다. 전혀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만일 알고도 모르는 체하거나 등한함과 무관심이 거듭하면(계속되면) 결국은 일방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바리새 사람들이 가장 뚜렷한 예라고 할까? 그러나 바리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되지 못하면) 자기 모순에 견디지 못하여 자기를 포기하게도 된다. 결국은 자살로 막을 내린다. 여

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다. 그렇다, 더할 수 없는 비참하고도 참혹한 비극이 아닌가?

실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사로잡혀 우왕좌왕 헤매기만 하니 얼마나 슬픈 일이나?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까? 때는 이미 늦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아직도 이 모순에서 비극에서 벗어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모순의 근원이요 모체이시고 영원히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뿐이다. 그것도 적극적이며 극단적이어야만 한다. 아예 자기에 죽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믿는다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아끼고 감싸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보다 큰 마지막 비극이다. 비극 이상의 절망이다. 아니 멸망이다. 그렇다, 죽음이다. 이것은 세상 만사의(인생의) 끝장이다.

나는 “무교회란 무엇이나?”라고 했다. 이것은 근본과 본질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지금까지의 뜨뜻미지근한 상태(혹은 태도)로서는 아니 된다. 이미 말한 대로 인생의 종말은 죽음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차든지 덥든지 어느 편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올라선 격이니 어찌 내(인간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랴? 눈을 감고 뛰는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이다. 죽든지 살든지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때서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피주신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무교회라고 표현한다. 아니 그렇게 믿는다. 살까 죽을까 하고 주저하며 망설거리는 사람은 무교회를 모른다. 무교회와 관계가 없다. 아니 무교회(신자)가 될 수 없다.

그러기에 소위 무교회를 자칭하거나 또는 무교회를 자랑하는 자는 결코 무교회 신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무교회 신자는 교회나 무교회나를 말할 흥미도 이유도 없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삼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 일체를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참고 기다리는 생활만이 무교회(신자)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무교회(신자)가 있고, 무교회 안에 교회(신자)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무교회(신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른 반역자 바울과 가톨릭교회에서 뛰쳐나온 루터도 무교회(신자)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비 애국자로 지탄받은 우치무라는 그야말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무교회주의자로 자칭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죽음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일생을 바쳤다. 결국 무교회는 죽음 이외의 길이 없으니 말이다. 기독교는 무교회다.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앞장서서 실천하셨으니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78. 7. 성서신애 238호, 문집 4)

무교회 신앙

노 평 구

무교회 신앙이란 한 마디로 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일개 한국사람으로서 거짓없이 마음과 힘과 진실, 열심을 다하여 직접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자는 신앙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사이에 아무런 인간도, 교직도, 제도·의식도, 무슨 방법이나 비결도 개재시키지 않고 오로지 영과 더불어, 양심과 더불어 건전하게, 진실되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요, 인류와 역사의 지배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 통촉하시고 은혜로써 사랑을 부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속죄와 부활과 구원의 주(主)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려는 신앙인 것이다.

따라서 무교회 신앙은 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와 그리고 아래로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생활, 진실만을 고수하려고 한다. 이 이하로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무교회 신앙은 오직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의적(第一義的)인, 근본적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만 전력하려고 한다.

이 점 교회 신자 가운데는 오직 유일의 공교회를 주장하는 가톨릭이 아닌 이상 오늘날 교회와 의식을 본질적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겠느냐, 이 역시 다만 믿음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곧잘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토론보다 증거가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날 이 변질된 교회주의 때문에 사실상 신앙이 무시 압살을 당하고, 진리가 구박을 받고, 양심이 마비되

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천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아니, 이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처음부터 신앙체험과 진리의 소화가 아니고 외적 피상적인 천박한 교회 기명(記名)이나 출입으로, 의식·형식으로, 교리와 신학, 기독교 사상·사업 등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산 믿음·진리·사랑·양심·도덕·인격·민족성격·사회생활 등과는 아무 관계 없는 한낱 형식이 되고 만 것이다. 이리하여 끝내 사람의 양심과 민족을 죽이는 고질이 된 것이 아니냐?

도대체 복음서에는 교회란 말이 한두 마디밖에 없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조차 저주했던 것이다. 바울의 교회는 단순한 신앙자들의 가정모임이었다. 구약시대에 벌써 아모스나 이사야에 의하여 의식은 부정되었었다. 기독교는 루터의 '신앙만'으로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서양 기독교는 교회주의로써 이상 더 운신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유명한 신학자 브룬너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전수(傳受) 백 년에 이제껏 교회주의와 제도를 신앙생활이라 하고, 이로써 신앙이 다된 줄 알고 있으니 과연 딱한 노릇이다. 근래 더욱 심해지는 우리 교회의 추태야말로 우리의 거짓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심판이 아니냐? 무교회는 여기서 일단 제도교회와 의식을 떠나, 오직 성서 한 권으로 오로지 신앙진리에 의해 믿음의 재출발을 하려는 바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루터의 '신앙만'의 신앙의 민족적인 체험을 피하려는 바이다.

(62. 3. 성서연구 96호, 전집 2)

무교회 신앙의 앞날

노 평 구

우선 종교란 무엇이나? 유럽 말에서는 영·독·불 다 이를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神)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와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거짓 우상 신앙이면 몰라도,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는 사람의 양심의 깊은 곳, 영혼의 심처(深處)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는 무슨 인간적인 불순이나 방법, 계책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타락과 무력은, 결국 이런 인심(人心)의 심처에 관계되는 종교를 하나의 외적인 형식과 제도와 조직 등, 즉 교회주의와 의식과 교리, 신학 등으로, 그것도 외국의 기성품으로 안이하게 받아들인 그 천박과, 특히 오늘에 와서는 종교가 하나의 수지맞는 직업으로 떨어진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교(入敎) 백 년에 이르러서야 신앙의 토착화가 교계에서 성히 논의되는 것도 역시 우리의 이런 신앙 소화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점 나의 무교회 신앙이란, 기독교를 외부로부터 기성품으로 받지 않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를 우리 한국인의 심정과 노력으로 깊이 연구, 체험함으로써 신앙의 발현 역시 내적인 데, 즉 영혼문제에만 철저히 국한시켜, 하나님과의 진정한 결합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양심을 맑게 하여 믿음에서 발로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민족의 도덕생활에 일대 비약과 전환을 가져오려는 것이다. 결국 신앙을 영혼의 일로 받아, 이의 외적 발현은 오직 도덕에 국한하려고 하는 바이다.

그런데 근일 본지 독자 가운데서 종종 무교회 신앙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표시하고, 최소한도의 무슨 조직이라도 있어야 운동이 활발할 수 있고 또 장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일러주는 이가 있다. 또 좀더 신앙 태도가 뜨거워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가, 회개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나는 무교회 신앙의 앞날 역시 철저히 무교회주의 정신에 맡기려는 바이다.

무교회 신앙에 대해 외적으로는 도덕생활 이외의 무엇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슨 형식이나 교리 같은 것으로는 믿음을 천만 년 계속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거기 아무런 생명이 없음은 물론, 이는 사람의 도덕생활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우상교가 되어 결국 타락할 것이다.

그렇다, 인간적인 욕심에서 발하는 열심도, 실없는 거짓 회개도 필요 없다. 영(靈)도 기도도 치병도, 다 무당 판수나 우상 종교에도 있는 것이다. 성찬이나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함은 어린애 장난에 불과한 일이다. 무교회 신자는 우리의 종교와 도덕의 이 황무지에서 앞으로 3백 년, 5백 년을 기약하고, 오로지 진리에 의한 이의 진정한 민족적인 체험, 소화, 확립을 위해 오직 성서 한 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 아니, 들에서도 좋다, 소수로도 족하다 — 거짓없이 성서를 깊이 읽으며 그 진리로 사는 참생활을 예배로 삼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민족사예의 토착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것이 무교회의 야심이며 목표이다.

(‘65. 8. 성서연구 135호, 전집 2)

무교회의 사실

노 평 구

요새 무교회가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는지 세상 아니, 교회의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별별 허무맹랑한 소리가 많이 들리기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무교회주의가 과연 저들이 받는 비평이나 욕설대로 귀족주의냐, 변태의 고독이냐, 아니면 광신이냐, 독단이냐, 파벌주의냐, 파괴주의냐? 예배도 없고 회당도 없고, 그리고 또 비현실적이며 주관적이냐? 여기에 대한 개조적(簡條的)인 나의 대답을 간단히 적는다.

평자의 귀족주의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에는 저들은 너무도 자신의 죄에 대해 우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고독이 아니다. 저들에게 소위 문화주의가 필요 없고 교회인의 사교주의가 필요 없는 것이 그 역설적 증거다. 교회로써 신앙을 꾸려 나가는 교회인이야말로 고독의 갈증에 빠진 자들이다. 광신은 물론 아니다. 광신이기에는 저들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건전성을 운위한다. 냉수를 처가며 믿자는 것이 저들의 신앙태도이다. 독단이냐? 결코 아니다. 저들이 교권과 목사의 말에 순종치 못함은 오직 하나님과 진리의 판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뿐이다. 저들을 파벌주의라 함은 저들의 신앙의 자립주의, 독립주의를 오해하는 말이다. 파괴주의라 함은 영원성 없는, 소멸될, 쓰러질 것을 받치고 있는 자들의 공포감에서 나온 말이다. 물론 저들에게는 특정한 예배의식이란 없다. 저들은 주일집회로써 오직 성서진리의 탐구에 전력한다.

그래서 저들은 저들의 모든 시간과 생활 전체를 거룩하게 예

배로서 바치려는 것뿐이다. 저들의 회당은 전 세계 전 우주이며, 저들의 지성소는 저들 자신, 아니 저들의 마음이다. 부채와 가난한 신도의 눈물로 된 벽돌 뽀족집이 절대 아니다. 저들을 비현실적이라 함은 잘못 안 것이다. 그것이 저들이 도덕을 강조한 데서 기인한 것이면 몰라도, 저들에게는 예언자적인 싸움이 있을 뿐, 현실과의 타협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주관적임은 교규(敎規)와 신조, 신학 위에 서지 않고 각자의 속죄의 체험 위에 서기 때문이다. 독자들이여, 두려울 것 없다. 비평, 모욕, 박해, 그것은 예수 자신이 당하고 바울 자신이 받고 루터 자신이 먹은 것 아닌가! 연초 남쪽에서 온 싹트는 무교회 승리의 희보(喜報)한 장을 여기 올린다.

“..... 나는 이 위대한 사실 진리의 투쟁에 대하여 언제까지 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서 곳만 보던 태도를 버리고 뛰어 나왔사오니 용납하소서. 37년 전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보라(保羅)라는 이름까지 따 가진 자신은 신학도 목사도 정식 전도사도 다 거부하고 백운산사에 은거하여 주경야독하며 때로는 복음을 전하여 교회까지 설립되는 형편이었으나, 이 전통적인 제도에 매력을 잃고 소위 정통적인 교리에 염증이 난 나의 심령은 남모르게 고갈상태에서 신음하던 차, 반란사건에 포로 되어 최후로 생명을 걸고 싸운 결과 오히려 농임을 받아 기뻐하던 중 때때로 찾아오는 ‘성서연구’는 나에게 참 생명의 지침이 되었으며, 옥곡(玉谷)으로 소개하여 초등 학교에 취직하고 ‘성연’을 중심으로 뜻맞은 교사 세 명이 머리 숙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서가에 꽂힌 ‘성서연구’는 정통 목사의 눈에 가시가 되었고, 나 자신 벌써 그들과 정면 충돌하기 부지기수올시다.....”

형제여, 철은 봄이다. 생명의 봄, 자유의 봄 아닌가! 나오라, 달마중 아니라 진리의 마중에! 어둡침침한 회당에서 형식의 누더기를 벗고 전통의 먼지를 털고 신학의 거미줄과 제도의 사슬을 끊고 빨리 뛰어나오라! 진리 자체, 생명 자체인 그리스도가 이미 2천 년 전에 오시지 않았는가. 그가 인간적인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적인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50. 2. 성서연구 21호, 전집 1)

나의 무교회

노 평 구

본지와 더불어 부족한 대로 30년을 무교회로 살아왔다. 그런데 나는 요새 이에 대해 여기저기서 몇 가지 질문에 접했다. 그러나 전날의 조소나 모욕보다는 대체로 동정적인 것 같아서, 에큐메니칼운동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세태의 변화에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로 우선 “왜 무교회냐?” 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왜 수가 늘지 않느냐?” 하는 것, 또는 “전도열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등이었다.

우선 “왜 무교회냐?” 하지만, 나에게 말하라면 “왜 교회냐?” 하고 싶다. 오늘날 기독교 = 교회가 되었는데, “예수의 종교에서 이것이 사실 제대로 된 일인가?” 하고 반문하고 싶다. 유명한 교회사가 칼 호르의 말에 이런 것이 있다.

“초대교회에는 전문 전도자는 없었다. 처음에는 좀 있었던 듯하지만 2세기에는 그 명칭마저 없어졌다. 전도 기관도 없고 미션스쿨도 없었다. 전도나 설교도 없었다. 다만 일요일마다 예배를 가졌다. 그것도 자기들을 위한 예배였지 외부에 대한 전도는 아니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국가가 박해로써 전도를 도왔다. 다음에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생활, 거짓말을 안 하고, 흠치지 않고, 약속을 안 깨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막 퍼져나갔다. 그러나 중세기에 이르러 소위 가톨릭의 일망 타진적인 전도가 시작되었다.”

이 점 기변도 ‘로마사’ 중 기독교 항목 가운데서, “기독교는 우애와 깨끗한 생활로써 로마제국을 정복했다.”고 했다. 신학자 브룬너도 역사적인 소위 기독교는 마태복음 16장의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점 서양세계에서도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교’(churchianity)라는 말까지 있다.

나는 예수가 말씀한 대로 게리짐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수의 종교요 복음이니, 이런 교회 즉 에클레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야심이다. 즉, 수에 관계없이 — 아니, 나는 수와 진리란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디까지나 진리 자체에 의한 전도를 바란다. 교회주의의 무슨 방법적인 전도는 타기한다. 또 나아가 초대 신자의 생활자체에 의한, 그렇다, 도덕적인 생활 자체에 의한 전도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도의 결과는 오로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

무교회 신앙의 특질

노 평 구

우선 교회의 특질을 생각하면, 교회 제도로서의 예배와 의식과 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란 말은 희랍어로, 민의(民意)로써 뽑힌 민의원(民議員)의 모임, 즉 민회(民會)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에클레시아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뽑은 ‘신자의 집회’란 뜻입니다. 요새 새 영역(英譯)성서에서도 역사상 가톨릭적으로 제도화한 ‘교회’ church가 아니고, congregation ‘집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점 무교회는, 예수가 예루살렘도 게리집도 아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하고, 바울도 자신의 일을 ‘세례가 아닌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무교회는 2세기를 전후해서 기독교의 내용으로서 집결된 카논, 척도(尺度)로서의 경전, 즉 성서 자체의 연구를 주로 하는 ‘성서집회’로써 소위 제도교회의 예배에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 키에르케고르는, 초대 베드로가 하루 3천 명에게 세례를 주어 신자를 만든 데서 이미 기독교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영국 성공회 신자로서 기독교에서 고대의 미신 같은 속죄의 교리는 이성적인 현대인을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거될 것은 중심 진리 아닌 형식적인 의식 같은 것으로, 이는 기독교의 체험이 없는, 머리 큰 지적(知的) 거인의 무식한 소리일 뿐입니다.

교리사가(敎理史家) 하르나크도, 교회사상(敎會史上) 기독교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난 것은 언제나 성서가, 특히 로마서가 깊이

연구될 때라고 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역간(譯刊)된 루터전집과 칼빈전집을 보면 각각 50여권, 30여권으로, 그 중 성서연구가 5분의 4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의 모든 사상, 철학, 문학, 그리고 정치제도, 민중의 생활규범 등이 다 성서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루터의 성서번역과 영국의 흄정역(欽定譯)이 국민 문학으로서 또 성서의 시화(詩化)로서의 단테의 ‘신곡’(神曲) 등이 민중의 신앙생활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근대에 와서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2차대전 후에는 여기 사르트르 등 실존주의자들까지 가세해서 무신(無信)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심한 진리 논쟁을 벌였으나, 요새 그들 정치까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기독교에 기초를 둔 서양 세계뿐만 아니고, 동양 우리 한국의 불교와 유교사에서도 역시 경전 연구를 통해 이가 민족 신앙으로 착근(着根)되고 또 민족사의 추진력이 된 점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라 불교에서 가히 동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의 수많은 불전 연구와 — 그것은 특히 라이샤워의 말대로, 중국의 유파불교(流派佛教)와 일본의 학구불교(學究佛教)에 대해 불교의 본질 구명이었는데 — 조선조 퇴계의 유학 연구 또한, 결국에는 바리새화함으로써 국가 정치에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도리어 화를 자초하고 말았지만, 서당 교육의 성공과 함께 국민 종교로 발전한 것은 하여간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가 또한 각각 민중 불교로서 일본 민족의 불교화와, 내려와 유교 혁명으로서의 일본의 메이지 정부(明治政府)의 발족과, 또한 현재 이가 일본의 경제발전에까지 정신적인 원인(遠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과, 또 이가 서양 세계의 칸

트의 도덕철학과 비견되는 동양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간 종교의 경전 연구는 경서백독 문리자통(經書百讀 文理自通) 식으로, 동양종교에서도 이가 종교 이해와 입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기독교의 경우도 이미 위에서 본 대로 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 연구에 의한 우리의 성서 이해가 성서의 필자들과 같게 될 때, 죄의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으로서의 입신이 이루어져 신자로서 회심과 신생에 들어가 성서 기사 전체를 그 대로 진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곧 2천년 기독교의 정통 신앙의 이해이고 신수(信受)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서가 성령에 의한 기록이라고 할 때 우리의 입신 역시 성령의 역사에 의하는 것으로, 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이해와 입신의 유일한 길로서, 이 외의 딴 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그것은 외도요 물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 성히 교계에서 행해지는 인간 이성적인 신학 연구나 학구에 의한 신앙 이해 역시 그 결과가 보여주는 대로 성서 내용의 취사 선택적인 이해로서, 성령 아닌 인간 머리에 의한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가 또 역사신학, 자유신학, 위기신학, 반체제신학, 사신신학(死神神學) 등 속속 그 성서 이해와 내용이 변하고 있으며, 또 여기 이어 성서 이해의 입장을 따지는 성서의 비신화화(非神話化) 편집사적 이해, 문예 비평적 이해 등도 다 성서를 통째로 믿지 못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 쳇바퀴같이 돌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무교회 신앙의 특질인 성서 연구에 의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 추구와, 또 이가 소위 교회 없는 무교회 신앙의 '성서집회'의 내용이며, 이로써 무교회는 우리 민족에 진정한 신앙을 착근(着根)시켜 민족의 개종과 신생으로 종교에 의한 영광스러운 세계사적인 민족 사명을 이루려는 바입니다.

(95. 6. 성서연구 460호, 전집 5)

한국 무교회

유 회 세

처음에

나는 일본 기독교 쌍서(雙書) ‘무교회사Ⅱ’ ‘계승의 시대’ 중의 ‘한국 관계’를 쓰도록 부탁을 받았다. 그렇다. 한국에 한국 무교회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기독교 쌍서 항목에 편입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교회사Ⅰ’의 머리말에 “무교회란 우치무라에 의해 창시된 복음적 기독교의 일본적 전개이고”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만일 이것이 진리라면 이 일본적 전개라는 영역 속에 한국 관계가 포함될 여지는 없다.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 순식간에 전 유럽에 퍼지고 세계사의 방향을 바꿔 버렸는데, 그것은 복음적 기독교의 독일적 전개이었을까. 누구나 다 알거니와, 그의 복음은 그의 탑(塔)의 경험에 근원을 갖는다. 그것은 독일적인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의 바울의 신음을 추체험(追體驗)한 것이 아닐는지. 우리는 ‘구안록’의 마무리 말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밤어둠 속에서 우는 아기, 빛이 그리워 우는 아기, 우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니슨 “인메모리엄”) — 우치무라에 의한 바울에의, 루터에의 강렬한 추체험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우치무라의 창시도 아니고, 일본적 전개도 아니다. 훨씬 그것들 이상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김교신의 복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바람은 이 ‘무교회사’는 다만 ‘일본 무교회사’이었으면 한다. ‘일본적 전개’가 그대로 무교회라면 한국에는 그런

것은 없으며 또 일본을 빼고는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일본 무교회사의 제2기, 계승의 시대 — 우치무라 사후에서 ‘45년 패전까지’는 그대로 한국 무교회사에 있어서 제1기, 생성의 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대에 한국 무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며 그 이후 사실상 무교회를 떠난 함석헌은 전에 이렇게 말했다. “우치무라를 알게 된 것은 일본 침략 반세기를 보상할 수 있다.” 더욱 그는 어느 무교회 잡지에 대해서 “일본적이란 말이 귀에 거슬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교신은 이 일본적이란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결코 거기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국 무교회를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그의 ‘성서조선’ 창간사(‘27. 7.) 중에 다음 1절이 있다. “무어라 해도 나는 조선사람이다. ‘성서조선’아, 너는 조선 혼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로 가라”고.

그러면 ‘일본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치무라의 ‘첫 꿈’은 분명히 무교회의 세계성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은혜의 이슬’은 땅 끝까지 이르는 무교회와 동일하게 여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북으로 서로 동으로 뻗어 가는 은혜의 이슬은 과연 ‘일본적 전개’를 거친 것인가, 어떤가? 그것은 아무래도 좋겠지만 먼저 말한 함석헌에 있어서와 같이 거절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일본의 침략에서 해방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다. “테라우치(寺内) 총독은 죽었지만 우치무라(内村) 총독은 문서를 통해, 한국 우치무라당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군림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치무라의 문장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무사도는 일본 최선의 산물이다……. 무사도의 대목(台木)에 기독교를 접붙인 것, 그것은 세계 최선의 산물이고 이것에 일본만 아니라 전세계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세계는 필경 기독교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다. 게다가 무사도 위에 접목된 기독교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다.”(‘16. 1.)

이 문장에 의하면 1907년 1월의 ‘첫 꿈’에 있어서의 ‘은혜의 이슬’이란 무사도에 접목된 기독교라는 것이 된다. 이 접목의 비유는 로마서 11장에서의 비유와는 반대가 된다. 성서에서는 성스러운 대목에 야생의 올리브를 접목하게 되어 있는데, 우치무라는 야생의 올리브인 일본 무사도에 성스러운 대목을 접붙이는 것으로 들린다. ‘은혜의 이슬’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우치무라의 복음’의 우치무라에 의한 오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적어도 김교신이 우치무라에게서 배워서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치무라의 오해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이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우치무라의 오해는 그가 일본사람이라는 한계(예를 들면 ‘2개의 J’) 때문이고, 그 오해에 대해 일본의 무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여러분이 일본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5장이 전하는 예루살렘 회의는 복음적 기독교의 유대인에 의한 유대적 전개가 유대적 오해를 부르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닐는지, 만일 그렇다면 한국의 무교회는 무교회의 세계성을 파악하고 전개시키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한국 무교회의 생성의 시대사를 보려 한다.

1. 진리의 진전

한국 무교회는 1930년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1920년대에 동경 유학의 조선인 학생 중에 전후해서 우치무라의 주일 집회에 출석한 자 6인조가 1927년 7월 ‘성서조선’이란 전도잡지를 발행하고, 소위 무교회 전도를 시작했다. 그것은 월간이 아니었고 김교신의 주필도 아니었다. 1930년 3월에는 제15호까지 나오고 폐간의 위기에 처했었다. 소위 무교회 전도의 위명업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30년 5월 제16호부터 김교신 주필이 되고, 그 3월 하순에 우치무라가 소천하셨다. 그 7월에는 조선 장로회 평양신학교 기관지 ‘신학지남’에 우치무라의 무교회를 공격하는 논문이 실렸다. 당시 평양은 조선에서의 개신교의 ‘메카’였다. 그 공격의 요점은 둘로, 하나는 우에무라(植村正久)의 무교회 공격 ‘영계의 난신 적자’와 같은 취지로 ‘영계의 아나키즘’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일본적’이므로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김교신의 논박은 그 해 8월에 발표되었는데, 그는 우치무라의 제자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하고, 무교회와 일본적인 것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우치무라 간조가 무엇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진정한 애국자인 것만은 처음부터 나는 알았다. 일본의 애국자로서 일본을 열애하게 하라, 미움이 생길 리 없고 거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미(美)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애국자가 일본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집회장에 외방 사람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엄숙한 일이었다. 당시에 나의 감상은 ‘성서지연구’ 제268호(‘22. 2.) 48쪽에 24일 일기에 기재되어 있다. 나도 그 누구처럼 ‘불구대천’의 철심을 품고 동해를 건넌던

자다…….”

김교신은 우치무라의 복음이 일본적인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지 않을뿐더러 거기에 훌륭한 미(美)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기에 ‘성서조선’에의 엠비션에 가슴을 설레이었던 것이다. 김교신은 무교회의 일본적 측면을 무교회 자체와 혼동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용어에 신중을 기했던 것 같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10년에 걸쳐 우치무라 선생에게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었다. ‘성서’였다. ‘복음’이었다. 가령 우치무라 선생 심중에 무교회주의라는 것을 건설 고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하더라도 내가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다. 성서의 진리였다.”(36. 9.)

그는 자신의 신앙 형성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반성한다.

“나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에 의해 신앙의 골격이 세워졌고 쓰카모토 선생에 의해 성서의 학문적 연구의 실마리를 찾은 것인데, 거기에 아사노(淺野猶三郎) 선생의 조선사람 한사람 한사람 상대의 강의와 하숙집을 돌면서 하는 전도에 실제 접하며 전도자의 인내와 신중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전에 실망 낙담해 버렸을 것이다.”

1940년 5월 우치무라 선생 10주년 기념에 그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란 글을 썼는데 (1) ‘우인 관계’에서는 교회의 원로 고(故) 김정식의 말을 인용해서 “우치무라 선생은 많은 조선 기독교도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조선 기독교회의 은인이었다.”라

고 말하고 (2) ‘독자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무교회주의와는 많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조선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의 지도자 중에서도까지도 우치무라 선생의 잡지 및 전집 등이 깊이 음미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으며, (3) ‘제자 관계’를 말하고, 마감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요컨대 현대 일본에 있어서 가장 놀랄 만한 힘은 우치무라 선생을 통해서 전해진 신앙과 사상이다라고, 우리는 본다. 마치 지대(地帶) 구조상 남만(南灣), 북만(北灣)의 양 산계(山系) 위에 일본 열도가 성립되어 있는 것같이 일본 혼의 저변을 관통하는 척추가 되는 것은 이 신앙 사상이다. 우리도 이 신앙에 의해 태백, 소백산맥과 같이 만도가 의지해 서야 할 영적 척추로 삼고자 한다……”

김교신의 이 발언은 참으로 우치무라의 오해를 수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교신에게 그와 같은 자각은 없었을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가? 우치무라를 통해서 전해진 신앙과 사상은 일본 혼의 밑바탕을 관통하는 ‘척추’이고, 한국이 의지하여 서야 할 척추라고 하는 것은 우치무라의 접목법이 아니고 성서의 접목법이다. 이것은 한국 무교회의 생성기에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며, 진리의 진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교신은 한국 전도 중간에 이 진리를 발견하고, 1940년 5월의 상기 논문에서 이 진리에 서서, 일본의 무교회를 재해석한 것이다.

김교신이 “영원한 의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자.”고 말할 때(‘35. 4.) ‘성서 위에’ 중 ‘성서’란 ‘우치무라 선생을 통해서 전해진 신앙과 사상’과 동일, 그리스도와 동일하고 로마서 11장 16절

의 ‘거룩한 뿌리(대목)’와 동일하다. 접목될 야생 올리브는 일본이며, 조선이고, 땅 끝까지 이르는 세상의 나라들이다. 우치무라의 ‘첫 꿈’은 ‘이 세상의 왕국은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끝맺는다. 그러므로 ‘조선의 성서화’란 조선의 그리스도 왕국화의 이상이고, 조선과 성서의 동일시이고, 조선과 그리스도 왕국의 동일시이다.

한국 교회사 학자 민경배 교수는 ‘한국 민족교회 형성사론’(연세대학출판부 '74년) 중에서 ‘한국교회 종파의 계보’라는 장을 설정하고 그 중에 ‘무교회주의의 종파’라는 항에 ‘김교신의 성서연구회’라는 절이 있다.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김교신이 우치무라 간조 문하에 들어간 것은 1920년이였다. 당시 우치무라는 반군국적인 진실한 기독교자였으며 그의 참으로 열정적인 애국심의 충성은 김교신에게도 ‘성서’를 통해서 조선의 구원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기독교신앙을 일깨운 것이다.

2) 김교신은 애국을 천박한 정치적 차원에서 여과해서 순 영적인 민족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 간 것이다. 이 백성애의 최애의 표시의 양식으로서 가장 귀하고, 가장 절실한 선물 구신약성서 한 권을 주기 위하여 1927년 ‘성서조선’을 창간했다. 동지 6인이었다.

3) 여기에 그들의 순정과 백성애의 사랑을 읽을 수 있다. 1939년 말 한국 교회가 일제의 탄압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이질화의 길을 걸을 때 김교신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 그리하여 천 명은 왼쪽에 만 명은 오른쪽에 쓰러져 갈 때에 본지는 시종일관 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일본 경찰도 “성서조선의 일당이야말로 경솔하게 결

90 무교회란 무엇이나?

사를 하려는 정도의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이상으로 조선 민족 백 년, 아니 오백 년 후를 계획하는 최악질의 자들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김교신으로 살았으며, 1945년 4월 홍남에서 세상을 떠났다.

4) 그를 기구적(機構的)인 의미에서 교회에 반대하는 무교회주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1937년 이후이다.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의 근거가 세 가지 있다. ① 구원은 교회 소속여하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 문제라고 보고, 루터적 의미에서의 교회 혁명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 ② 선교의 요청으로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교회의 안팎을 불문하고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자각. ③ 한국의 기독교자로서 기성교회의 교우들과의 혈연 의식이다.

5) 그는 기독교로써 민족의 종교를 확립시키려 하였고, 교회 밖에 대한 선교와 구원 방편의 소재가 광활하게 편재함을 역설했지만, 독립교회나 종파의 의식적인 형성을 멀리 피해온 것은 사실이다.

6) 그는 1930년부터 서울에서 성서연구회를 개최하고, 매년 1주일간에 걸쳐 동계집회와 함께 이후 10년간 계속했다.

그러면, ‘성서조선’ 창간에서 종간에 이르는 158호에 담긴 신앙과 사상은 어떠한 것이었나? ‘무교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한 문장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그 문제는 본지 그 동안 매호에서 논한 바이고 앞으로 종간호까지 논할 제목이다. 그러나 실은 본지 전체가 차례에서 광고란에 이르기까지 무교회 신앙의 덩어리임을 알아차려야 한다.”(36. 3.)

동인 6인중 3인은 얼마 뒤에 탈락하고, 종간까지 이른 사람들은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3인이었다. 김교신은 동경고등사범 졸업 ; 지리박물 전공이고, 함석헌은 동경고등사범 졸업 ; 윤리 역사 전공, 송두용은 동경농대 중퇴이다.

김교신의 최대 업적은 당연히 성서연구 그것이다. 1931년 1월부터 1932년 2월까지 13회에 걸쳐 산상수훈 연구를 완성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사가 낳은 유일한 세계적 명저라고 어떤 이는 말한다. 1932년 3월에서 1937년 9월까지 29회에 걸친 구약성서 개요를 완성했다. 1938년 2월에서 1941년 6월까지 14회에 걸쳐 골로새서 강의 완결. 1941년 7월에서 1942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미완성인 채로 성서조선사건으로 폐간되어 붓을 꺾게 되었다.

함석헌의 최대 업적은 김교신의 조선지리교에 호응해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의 강이다.

송두용의 최대 업적은 완전히 목숨을 걸고 부딪친 ‘신앙만의 신앙’의 생활 자체였다. 사람들은 ‘멧돼지 신앙’, ‘베드로 신앙’이라고 말한다.

2. 전도와 집회의 형성

이 시대의 후반에 있어서 김교신은 선언했다. ‘우리들을 이용하라’(40년 1월)고. 이 ‘우리들’이란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3인이다. 이 시대의 한국 무교회는 그야말로 삼두마차의 질주를 보는 느낌이다. 김교신은 선언의 처음에 이렇게 쓰고 있다.

“세상에는 남을 이용하려고 밤낮으로 책략을 짜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에게 이용당하려고 주야로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다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용되려고 하는 것이니 잘 생각하고 이용하시라.”

전도의 어려움은 교회측의 방해보다도 총독부 당국의 탄압과 박해가 보다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패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고통은 심해졌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에 가서는 폐간, 체포, 투옥에 이른 것이다. 1942년 3월부터 1943년 3월까지 만 1년간 그들은 옥에 갇혀 있었다. ‘성서조선’을 빼앗긴 김교신은 순회 전도를 해보기도 하고, 만주의 일각에서 동지를 규합하여 보려고도 했었으나 1944년 7월부터 홍남 일본질소비료 회사에 입사하여 3천명 한국인 노무자의 복지업무를 책임지고, 겸해서 교우들을 거기에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5년 4월 발진티푸스에 걸려 급서했다. 집회 형성의 자취는 1930년 5월부터 1941년 1월까지 김교신의 일기로서 ‘성서조선’에 연재되어 전집에 2권, 연 950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이 있다. 공동체 형성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나, ‘성서조선’에 연결되는 에클레시아의 형성의 과정이다.

에클레시아 형성에 있어서 특필할 것은 남해의 낙도 소록도에 있는 나병 요양소에 환자들의 참가다. ‘성서조선’에 의한 소록도 전도의 기록은 익히 한 권의 책이 된다. 그 차례는 김교신 선생의 글(5편) 나(癩) 신우들의 문집(100여 쪽에 이르는 약 30편), 김교신 선생의 일기 중에 소록도에 관한 부분(약 90쪽)으로 되어 있다. ‘성서조선’ 제59호(‘33. 12.)의 통신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소록도의 지우로부터의 통신에 접하여, 이렇다면 잡지 구독의 관계가 아니고 연모하는 자들 사이의 친전 봉함 편지를 접수한 느낌이다. 친히 만나볼 기회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소록도는 나의 딸 분재보다도 가까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세상의 부자나 학자들은 돌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록도의 한 사람의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서조선’은 건전한 복음지라고 말할 수 있다.”

김교신의 이와 같은 나환우를 향한 전도에 대해서 교회측에서는 즉각 박해가, 그것도 김교신의 복음을 사모하는 불쌍한 나환우들에게 가해졌다. 김교신은 주님의 긍휼을 기구하고, 나환우에 대한 사랑은 더욱 불붙었다.(이하 생략)

(’93. 8. 무교회사 Ⅱ)

제 2 부



무 교회 론

内村鑑三(우치무라 간조)

무교회(無敎會)라 하면, 무정부 또는 허무당이니 말하는 것 같아서, 무엇인지 파괴주의의 책자같이 생각됩니다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교회’는 교회가 없는 자의 교회입니다. 즉 집 없는 자의 합숙소라고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심령상의 양육원이나 고아원 같은 것입니다. 무교회의 ‘무’자는 ‘없다’라는 뜻이고, 없앤다거나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자, 부모가 없는 자, 집이 없는 자 모두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교회가 없는, 목자 없는 양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조그만 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름만 훌륭하고 내실은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표지가 훌륭하고 내용은 형편없는 책이 있습니다. 얼굴은 어여쁘게 마음씨는 추한 여인이 있습니다. 외모가 지극히 상냥한데 마음씨는 귀신 같은 사내도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름은 평범해도 실상은 훌륭한 사람이 있고, 표지는 거친 종이지만 내용은 금옥 같은 글로 채워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간부(奸婦)는 미인이 많고, 영악한 사람은 대부분이 미남자라고 합니다. 사물은 무엇이건 이름이나 외모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학자 닥터 존슨을 평해서 “그는 피부만 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꿈 같은 얼굴에 꿈 같은 태도를 가진 닥터 존슨은 영국에서 가장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교회’도 마치 그런 것이 되고자 합니다. 부수는 것같이 보이나 실은 건설하는 자, 무서운 것같이 보이나 실은 사랑스러운 자,

곰의 가죽을 쓰고 있으면서 어린양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대 혁명을 일으키는 자같이 보이면서 실은 소녀와 노인의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에 반야(般若)의 가면을 쓴 사람은 다 반야인 줄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반야의 가면을 쓰고 사물의 외형에만 주의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마음속을 살피는 자를 이끌어서 여기에 무교회라는 대 교회를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 우리도 무슨 야심을 품은 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실은 무교회입니다. 천국에는 실은 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천국) 안에 성전(교회)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계 21 : 22)라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목사나 교사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일입니다. 그곳에는 세례도 없고 성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 : 1, 2)

‘무교회’는 이런 교회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역시 이 세상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돌로 만들어지고, 어떤 교회는 벽돌로 만들어지고, 또 어떤 교회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 누구나,

출석하는 교회를 갖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무교회 신자가 많은 것은 집 없는 아이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무교회 신자에게도 교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교회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입니다. 자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무교회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교회입니다. 그 천장은 푸른 하늘입니다. 그 판에 별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바닥은 푸른 들판입니다. 그 방석은 여러 가지 꽃들입니다. 그 악기는 소나무 가지입니다. 그 악사는 새들입니다. 그 높은 단은 산언덕입니다. 그 설교사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 무교회 신자의 교회입니다. 로마나 런던에 있다는 아무리 훌륭한 교회당이라도 이 우리들의 대교회당에는 못 미칠 것입니다. 무교회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갖지 않은 자만이 실은 가장 좋은 교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1901. 3. 무교회 I, 전집 9)

무교회주의에 대하여

内村鑑三(우치무라 간조)

무교회주의란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인 기독교가 제도이고 울거니제이션(조직체)일 수 없다. 생명은 때로는 형태를 취해 나타나고, 때로는 형태 없이 생명 자체로 존재한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루아크'이다. 바람이다. 숨이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모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요 3:8)고 한 그것이다. 이 바람이 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바람에 형태가 없는 것같이 ‘영으로 난 자’ 즉 그리스도 신자는 형태가 없다. 신자란 교회원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바람에 불려서 성령으로 난 자다. 그가 무형(無形)임은 말할 것도 없다.

생명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이 때로는 교회 상태를 취하고 나타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형태를 귀히 여기고 때로는 내 몸을 이에 의탁하여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神 - 정신)과 형(形)을 같은 것으로 볼 때엔 폐해가 속출한다. 그리고 형이 신을 압도할 때에 신은 살기 위하여 형을 거스르고 그를 떠난다. 그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무교회주의는 그런 경우에 생기는 주의다. 귀한 것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주의다. 그런 의미에서 길르앗의 야인, 디셉 사람 예언자 엘리야는 무교회주의이었다.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꺼져가던 여호와와 산 신앙이 부흥 지속된 것이다. 또 드고아의 목부 아모스는 예언자이고 무교회주의자이었다. 그는 그의 침묵을 명한 벤엘 제사장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예언자(직업적 예언자 즉 종교가)가 아니다. 또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다. 뿔나무를 가꾸는 자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양을 치는 데서 나를 불러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암 7:14)

그 밖에 루터도 새로운 신앙을 창도할 당시에는 순전한 무교

회주의자이었다. 그는 새로 교회를 일으킴에 이르러서 교황 이상의 교황이 되었다. 밀턴은 끝까지 고귀 장엄한 무교회주의자이었다. 카알라일도 그러했다. 톨스토이도 그러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합교회, 침례교회, 기타 모든 자유와 생명을 새롭게 세상에 쏟는 교회는 열렬한 무교회주의로서 시작한 것이다. 산 신앙이 굳어져 버릴 때에 교회로 변하는 것이다. 교회는 신앙의 화석이다. 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교회화하는 일이다.

(’27. 10. 성서지연구 327호, 전집 30)

나의 무교회주의

塚本虎二(쓰카모토 도라지)

최근 어느 기독교 잡지에 ‘요즘 유행하는 무교회주의’라고 쓴 것을 보았다. 과연 무교회주의가 요즘 기독교계에 유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라는 말이 어느 잡지에, 혹은 강단에서 논의, 비판, 찬성, 공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은 정부가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를 무서워 떨고 있는 것같이 이것을 무서워하고, 무작정 이것을 억압, 박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욕하고 때리기 전에 적의 정체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의무일뿐더러, 만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만든 지푸라기 인형과 씨름하는 꼴이 될 것이다.

나는 오늘날까지 종종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교회주의의 침단을 가는 것같이 말한다. 좌우간 나는 오늘날에 이르도록 여전히 무교회주의다. 어제든 오늘도 나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아마도 영원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교회주의자가 되게 하실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나는 내가 말하는 무교회주의가 세상의 소위 무교회주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은 나의 신앙에 ‘무교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치 않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름이야 아무래도 좋다. 이름이 타당치 않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이 이름을 버리겠다. 요는 내가 의미하는 무교회적 신앙의 내용, 소위 무교회주의와의 같고 다름(異同)을 명백히 하는 일이다.

나의 주장하는 무교회주의란 ‘순복음주의’라는 뜻이다. 철저한
신교주의, ‘신앙만’의 신앙을 뜻하는 것이지, 교회문제가 아니다.
교회 회원이 되느냐 아니냐, 세례를 받느냐, 성찬식에 참여하느냐
않느냐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물론 나 자신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슨 교회의 회원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연
한 일, 혹은 부득이해서 된 일이지 나의 무교회적 신앙의 당연한
귀결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일 어떤 교회에도 입회하지 않
는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내일 어느 교회에 들어갔
다고 해서 나의 무교회주의가 변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나는 무
교회주의를 말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교회주의라는 말이 전혀 생소
하지 않다. 혹은 ‘복음제일주의’, ‘신앙만의 주의’, ‘교회 또는 교회
제일주의에 대한 반대주의’라고나 말해야 할지, 요는 신앙만, 그
밖의 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주의이다. 순 신교주의, 반 가톨릭주
의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무교회주의’ 같은, 교회가 싫어하는 그리고 많
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할 말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단순하게 ‘순복음주의’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타당한 비난이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신
교 교회는 너도나도 순복음으로, 완전히 가톨릭적인 신앙 — 교
회중심, 형식본위의 신앙이 아름답게 순복음 간판을 달고 주장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만일 내가 나의 전하려는 복음을 단순히
‘순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교회의 소위 사이비 순복음으로

오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 개신교회의 신앙을 나는 대체로 퇴화한 가톨릭주의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있어서, 내가 믿는 '신앙만'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 그러한 교회 중심의 신교적 교회주의에 참 신교적 순신앙주의는 반항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무교회주의는 이것을 적극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순복음주의 '신앙만'의 신앙주의이고, 이것을 소극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가톨릭교회의 교회주의 및 현대 개신교회의 교회주의에의 반항이다. 따라서, 세상의 소위 많은 무교회주의와는 다르다.

1. 극단적인 무교회주의

기독교는 본래 교회 같은 제도가 없는 순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제도와 형식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는 보이는 교회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것과는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제도나 형식에 흥미를 갖지 않으시고, 그의 종교가 극단으로 순 영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형식을 배제해야 된다는 결론을 낳지 않는다.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육을 쓰고 사는 한, 그 사상 감정이 어떠한 물적인 발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도 결코 그런 뜻에서 순 영적이 아니고, 절대 형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셨다. 또 그럴 리가 없다.

2. 교회 개조주의

현대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무력에 분개해서 이것을 파괴하고,

달리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순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상적인 원시교회로 되돌리려는 운동이다. 나는 이에 찬동하지 않는다.

교회가 사람의 집단인 한, 영원히 이상적인 교회의 출현은 없을 것이다. 원시교회라 하더라도 많은 병폐가 있었다. 아마도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의 생각하는 이상적 교회도(‘교회’라는 이름을 안 붙인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같은 병폐에 빠질 것이다.

3. ‘교회에 가지 않는’주의

이것이 소위 무교회주의자 대다수가 신봉하는 바이다. 이유는 어쨌든 기성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고 이와는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주의이다. ‘교회없이’주의이다. 무교회주의라는 명칭은 가장 잘 그들에게 들어맞는다. 그들은 말한다. 그리스도는 과연 교회를 세우려 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모른다. 또 어떠한 형식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좌우간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교회 신자가 혹은 가톨릭교회에 혹은 성공회에 혹은 장로 교회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즉 유(有) 교회주의에 대해서 ‘교회없는 주의’이다. ‘현재의 소위 교회에 속하지 않는’주의이다. 따라서 이런 무교회주의 중에는 ①전혀 단체생활을 하지 않고, 개인적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자. ②또 ‘교회’라는 이름은 쓰지 않더라도 형식상 소위 교회와 별 차이 없는 단체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

나는 그들이 기성교회의 진영에서 나온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데 동정하는 자이다(나도 그런 사람의 하나이다). ‘신

양만'의 신앙으로 기성교회 내에 생활하는 것은 물고기가 육지에 사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 만일 개인적, 혹은 고립적 신앙생활을 이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찬동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협동적이지 않으면 아니 된다(반드시 단체원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무교회자 중에 종종 극단적인 고립적 독존적인 이를 볼 수 있는 것은 현대교회의 집단적인 너무나 집단적인 데 대한 반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큰 잘못이다.

2. 무교회의 사람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것은 좋다. 교회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해서 무교회라면서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이러한 무교회의 단체가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만 교회와 다를 뿐, 그 신앙생활의 내용에 있어서 소위 교회와 다를 것이 없는 아니 혹은 그 이상으로 가톨릭적인 '무교회 교회'가 적지 않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슨 좋은 일이나 되는 듯이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무교회주의자를 미워한다.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런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이상 모두가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부정하고 이를 개조 개혁하고 혹은 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주의 또는 주장, 또는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만일 '교회부정'(敎會否定) '교회불속'(敎會不屬)으로써 하나의 주의, 또는 신앙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미 '무교회적' 교회주의이니 우리들의 적이다. 요컨대 문제는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가지 싫은 사람은 갈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이것을 아무래도 좋지 않다라는 사람이(교회사람과 병적인 무교회자는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주의자라고 말하고, 가톨릭주의자라고 말한다. 나는 생명을 걸고 그들과 싸운다. 신교주의의 적이 곧 복음의 적이기 때문이다.

위에 적은 의미에 있어서 나는 무교회주의자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루터의 신교주의, 바울의 '신앙만'의 신앙주의, 그리스도의 생명인 복음의 정신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순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무교회주의가(명칭은 극히 타당치 못하지만) 해 돋는 제국에서 크게 발육 성장하여 순복음주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자이다. 또 그를 위해 많은 순교적 투사의 배출을 기원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젊은 벗들이여, 우리들의 애인 신교주의를 위하여 크게 싸우지 않으려는가? 보라, 그녀는 '밤새도록 슬피 울어'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애 1:2)

(30. 4. 성서지식 4호, 전집속 1)

무교회주의의 장래

(가루이자와 강연 요약)

塚本虎二(쓰카모토 도라지)

무교회주의의 장래를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또 예언자가 아닌 나로서는 이것을 예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무교회주의의 성격으로 미루어보아 약간 그 장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무교회주의의 장래를 아는 데는 그 현재를 알고 과거를 알고 '무교회주의란 무엇이나?'라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려나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는 오늘날까지 종종 이것을 정의하고 기초를 세우려 아마도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결코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또 교회측에서의 비난 공격이 한 번도 적중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것이 조직이 아니고 정신이고, 형식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정의한다면 무교회주의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신앙에 의한다.”라는 바울의 고백, 루터의 소위 “신앙만에 의하여”라는 신앙에 철저히 살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크리스천으로서의 필요한 유일하고 충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교회주의는 주의가 아니다. 또 무주의(無主義)를 주의로 삼는 것도 아니다. 교회원 되는 것을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삼지 않음과 동시에, 교회원 되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례, 성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교회원 중에 무교회 신자가 있고, 무교회주의자로 자칭하는 사람 중에 교회주의자가 있다. 무교회적 교회주의, 반교회적 교회주의라고나 이름 붙여야 하리라.

무교회주의는 기독교와 더불어 오래다. 그리스도가 최대의 무교회주의자이셨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는 무교회주의의 주동자이시다(요 6 : 63). 이 예수의 생명을 산 바울이 무교회주의이고,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루터가 무교회주의이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우치무라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901, 1902년경으로 생각된다. 신앙자체는 물론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다소에 꽃피고, 비텐베르크에 꽃핀, 갈릴리 호반의 꽃씨가 야마토의 섬에 뿌리를 내리고 꽃피었을 뿐이다. 다만 풍토와 기후가 다른 탓으로 다소, 비텐베르크와 그 색깔, 향기의 다른 데가 있을 뿐이다.

선생의 50년의 전도에 의해 무교회주의는 널리 일본에 씨뿌려졌다. 그리고 선생의 죽음으로써 그것이 강하게 뿌리를 뻗고 이미 싹트기 시작했다. 무교회주의는 은연(隱然)히 또, 현연(顯然)히 전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무교회주의는 이미 어제의 그것과는 다르다. 곳곳에서 교회와의 사이에 알력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교회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회원에게 금독령(禁讀令), 금족령(禁足令)을 펴 회원의 무교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베리아 벌판에 철조망을 치고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것만큼 무효한 짓이리라. 이제 무교회주의는 마른 벌판에 불을 지른 것같이 훨훨 타 번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어서 무교회주의의 장래는 어떠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본교회는 무교회주의에 점령되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화 있을진저”이다. 그것은 무교회주의가 마침내 교회주의로 타락했을 때이기 때문이다. 마치 반 유대교인 기독교가 가톨릭주의로 타락하고, 반 가톨릭주의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다시 가톨릭주의로 타락한 것같이.

무교회주의가 무교회주의인 한은 절대로 다수가 될 수는 없다. 무교회주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은 그것은 관념자체의 모순이고 무교회주의의 자살이다. 기독교는 항상 소수자의 종교이지 그것

이 다수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참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참 모습은 모든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다만 혼자서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의 예수에게 있다고 항상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이 호렘산에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 19)라고 말씀하신 것같이 7천 명이 무교회 신자의 수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참으로 미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전도의 열심이 식어버리지 않겠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자기 자신 속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순진한 ‘신앙만의 신앙’이 있는가를 보아라!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톨릭이다. 자기의 대부분은 가톨릭이고, 현재의 무교회는 다음 순간에 있어서 이미 가톨릭이 아닌가.

어떤 자매가 “무교회주의는 하나의 생명이어서 이것을 유지하는 자는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순간 순간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그대로이다. 우치무라 선생이 항상 무교회주의가 아니고, 선생의 고제(高弟)가 반드시 무교회주의는 아니다. 우리들은 가톨릭 신자 중에 교회원 중에 오히려 훌륭한 무교회주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진짜 무교회자인지 다만 하나님만이 아신다.

7천 명 혹은 7천만 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어느 때는 단지 한 사람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넣어주셨을 때 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2천 년

의 교회역사에 있어서 몇 번이나 숨은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기독교가 그 명맥을 이어왔으리라.

무교회의 장래 — 참 기독교의 장래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인간적 타산으로 하면 아주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숫자계산으로 신자가 늘어서 마지막에 전 세계가 전부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이나 방법은 인간적 얕은피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고 하신 예수님의 두려운 예언을 생각해 보라. 무교회주의는 영원한 소수당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 순진함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진지함이 있다.

(’32. 10. 성서지식 34호)

우치무라 선생 · 무교회주의 · 나

塚本虎二(쓰카모토 도라지)

교회주의자 쪽에서는 우치무라 선생이 “나는 오늘날 유행하는 무교회주의가 아니다.”(’30년 1월)라고 말씀하신 것을 찾아내고 귀신의 목이라도 발견한 듯이 기뻐했지만, 선생님과 같이 다각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어느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확인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인용하는 것은 난폭한 일이고, 우스운 일이다.

첫째, 그 말씀을 하실 무렵에는 아직 오늘날 같이 무교회주의가 유행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므로 싫증이 나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이’가 누구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유행하는 무교회주의가 선생의 그것과 틀린다는 것은 분명히 반면의 진리가 있다. 다른 무교회주의자의 일은 모르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 관한 한 교회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의 것과 같다고 하거나 틀리다고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선생님도 종종 말씀하셨고, 나 자신도 역시 그것을 인정한다.

“자네는 교회 안에 들어간 일이 없으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교회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네같이 철저할 수가 없다.”라는 등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또 어떤 점에서 하면, 선생은 교회의 내정에 정통하셨기 때문에 — 선생께 교회의 안 좋은 면의 뉴스를 알려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 전도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 교회 공격에 있어서 그 준엄함은 도저히 나 같은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언제였던가 자신이 전에 썼던 것을 보시고 “이런 것을 썼으니 아무리 교회로부터 막아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적이 있다.

좌우간 만년에는 교회 공격을 좀 늦추신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나의 무교회론이 너무 극렬하다고 “지금은 3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이끌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나의 논문에 부전을 부치신 것처럼(성서지식 5호 p25). 그리고, 그 무렵 언제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교회가 너무나 무력해서 “약한 오늘날의 교회를 공격할 용기가 없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기독교계의 원로인 선생의 입장에서라면 당연하지만, 나와 같은 젊은 층은 아무래도 그런 기분이 되지 않아 더더욱 부르짖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참

을 수 없어 부전을 부치신 것 같다.

어느 날 밤, 선생님 서재를 방문하니 “자네 한번 ‘무교회’라는 잡지를 발행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 때 “호넝(法然)에게는 호넝의 일이 있고, 신랑(親鸞)의 일은 할 수 없다. 나는 호넝으로 만족할 것이니, 자네는 신랑을 하게.”라고도 말씀하셨다.

‘무교회’ 발행은 나의 숙원이기도 해서 바로 준비를 해서 출간하려 했으나, 막상 때가 되자 선생이 반대하셔서 중지하고 말았다. 그 때 “자네가 독립적으로 잡지를 내더라도 그 뒤끝은 내게 온다. 그러면 내가 나서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독자들은 오히려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나이이니 흥분해서 혈압을 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무렵 에하라(江原萬里) 군이 “선생의 만년은 교회에서도 무교회에서도 좋아하는 분이 되도록 하고 싶으니 선생을 싸움에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 미움받는 역할은 자네가 하거나.”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선생께 전했다니 대단히 기뻐하시며 “자네가 아사셀의 양이 되어주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선생은 투지만만하셔서 선생의 ‘성서지연구’에 실는 내 논문이 과격하다고 하시면서 때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내 원고에 교회의 욕을 써넣기도 하시고, 요소 요소에 ○표나 △표를 붙이기도 하셨다. 무엇인가 무교회론을 썼을 때에도 그것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큰 듯 빈정 섞인 말로 “자네의 의견이 정말일지도 몰라. 나도 자네와 같이 교회공격을 해볼까?”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성서지연구’에 기고한 나의 최후의 논문 ‘굳은 음식’을 보고

“이것은 자네가 나의 잡지에 해준 ‘grandest contribution’(지대한 공헌)이다. 제목은 온건하나 이 이상 격렬한 무교회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연구지에 실어주셨다.

좌우간 내 기운에 넘쳐 심하게 쓰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고 구독을 중지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선생도 대단히 괴로움을 받았다고 한다(이것은 나중에 안 일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선생께서는 잘도 참고 묵묵히 그런 것을 자신의 잡지에 실으셨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선생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은 시인적인데, 나는 법률가여서 이치에 철저하여 상대방에게 심하게 느껴진 듯하다. 그리고 선생은 극단을 피하고 모든 것에 절도를 갖게 함을 잊지 않는 상식가임에 반해, 나는 무슨 일이든 이치를 따지고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어서 나의 무교회론은 선생의 그것보다 철저하다. 아니, 선생에게는 아직 무교회론이라는 형식적 이론은 없었다.

선생은 그 유고 중에 자기의 무교회주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 행위에 의하지 않고 신앙에 의한다는 신앙의 귀결”이라고 쓰셨는데, 그것은 선생으로서는 오히려 예외적이고, 선생은 신앙과 무교회주의를 이론으로 결부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나의 논문을 읽고 “자네처럼 말하면 과연 무교회주의도 신앙의 ‘one piece’(한 부류)로군.” 하셨다. 나로서는 뜻밖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선생에게서 “신앙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신교 신앙을 배웠다. 또 한편 무교회주의(나는 그것을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를 선생에게서 배웠다. 그

런데 무슨 일이고 이론을 붙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나의 머리는 어느 틈에 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신앙만으로’ 좋다고 여겼다. 따라서 가령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신앙만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들은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이 내 나름의 무교회론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 논리는 선생에게서 배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에 생각하니 선생은 이런 논리로 나에게 신앙이나 무교회주의를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제 멋대로 결부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거의 10년간 미친 듯이 무교회론을 주장해 온 것은 요컨대 무교회주의를 이론적으로 신앙적 기초를 세우려고 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머리가 좀 냉정해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앙만’의 신교주의의 이론적 결론이 무교회라는 나의 주장을 바꿀 필요성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주장하는 무교회주의란 이것이다. 그리고 이 무교회주의는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우치무라 선생에게서 배운 것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나의 이론적 해설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 그 자체(그것을 무교회적 신앙이라고 나는 이름 붙인다)는 거의 선생의 것과 같고, 루터의 것과 같고, 바울, 요한의 것과 동일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것만 동일하면 무교회주의의 이론을 세우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근래 무교회주의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교회주의와 무교회주의의 문제는 작은 문제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무교회주의가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만의 문제라면 — 선생이 이미 “나의 무교회주의는 어떤 사람은 성공회에 어떤 사람은 장로

교회에 가는 것같이 다만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 그런 의미로서의 무교회주의라면 아침밥을 두 공기 먹느냐 세 공기 먹느냐 쯤의 작은 문제이다.

그러나 만일 교회주의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무교회주의가 이에 대해 “교회에 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교회주의와 무교회주의 싸움은 우주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무교회 문제를 작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무교회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들이 믿는 바로는 신앙은 한 사람 한 신앙이다. 거기에 신교주의의 철저함이 있다. 그런 뜻에서 제자인 나의 무교회주의가 선생보다 극단적이고 철저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혹은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 나는 그것을 비교 연구하는 데 흥미가 없다. 다만 선생에게서 배운 대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러르며 나의 달릴 길을 달리려고 한다.

(‘36. 12. 성서지식 84호, 저작집 속 1)

무교회주의란 무엇이나?

矢内原忠雄(야나이하라 다다오)

제1절 종교개혁사적으로 본 무교회주의

(1) 예레미야

오늘은 우치무라 선생을 기념해서 ‘무교회주의란 무엇이나?’라는 말씀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몇 번이나 말쑤한 것이지만 우리들 신앙적 입장을 언제나 되새겨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이라고 말할까요, 종교개혁의 역사로써 무교회주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너무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약성서의 예레미야는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예배의 의식제도나 사회생활상의 율법 규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 율법의 해석 및 이행이 형식화했고 생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군데가 아니고 국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배와 지방의 우상신 예배가 뒤섞이면서 유대인의 종교는 생명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숙청해서 지방적인 우상예배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시키고 지방에 있는 제단을 없앨 것을 요시아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사업에 예레미야도 찬성하고 개혁의 취지를

국민 사이에 보급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를 돌며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활동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사업은 호지부지 끝나고 국민의 암적인 인습과 우상숭배적 요소를 뿌리뽑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실망 중에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 계시가 점점 강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와 함께 살 길을 택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목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렘 4:1~3)

율법과 전통의 형식적인 해석과 우상예배의 잡다한 가시덤불 속에 신앙의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니까 새 땅을 일구라는 것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렘 4:4)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는 데 필요한 의식인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그것보다도 자기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마음의 개혁을 주장한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써 여호와께 살아계시다고 맹세하라.”

(4:2)고 말했습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에서 나온 맹세가 아니고 다만 습관적으로 “여호와야 살아계시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이 역시 예레미야의 신앙태도 근본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새 발을 갈라”,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야 살아계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식과 습관에 대한 영과 진실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것도 유명한 곳입니다만

나 여호와야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야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야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야 말이니라. (렘 31:31~34)

이것은 실로 격렬한 혁명적인 말씀으로,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이란 말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오던 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이상의 국민적 대 사건은 없습니다. 그 날에 세운 계약이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건국의 근본이 된 대단히 중요하고 신성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계약은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 보수적인 사람이 들으면 “참으로 돼먹지 않은 말을 예레미야는 하고 있다. 모세의 율법보다 새로운 계약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대담한 말이다.”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를 박해해서 그의 생명을 몇 번이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의 교제에 있어서 예레미야를 상대하지 않아 외톨이가 되게 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국민은 구원받지 못하며, 그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지 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문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영이 아니면 사람을 살릴 생명은 없다. 의문이 아니고 영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신앙이고 동질의 선언입니다. “마음의 가축을 베라.” 또는 “새 밭을 갈아라.” 하는 말과 같으며, 혁명적인 종교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22장을 펼쳐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22:1~5)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 중 중요한 중심문제의 하나입니다. “정치나 사회생활이나 실제로 인간이 살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정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이방인과 고아 과부 기타 사회적으로 권리를 무시당하는 약자와 ‘죄없는 자’ 즉 무고한 죄에 우는 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그리하면 유다의 왕위는 보전되며, 그렇지 않으면 황폐하고 망해버린다.”는 멸망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특색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여호와 의 율법을 새기는 일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태도로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대하여 공도를 행하여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어느 것이나 당시의 지배계급, 권력계급과의 충돌을 면할 수 없으며, 그 충돌이 사상적 방면, 종교적인 예배방식, 그리고 정치와 사회 생활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습시다만, 그는 박해 중에서 신앙의 순수한 진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자가 되고, 새로운 진리를 후세에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것 즉, 예언자로서의 그의 진가는 오랫동안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예언의 진가가 인정된 것은 기독교시대가 되고서도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서의 일이고, 종교개혁 정신에 의하지 않고서는 예레미야는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잡념 없이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입니다. 그와 같이 순수한 사랑을,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주는 것 같은 사랑을 여호와께 바치고, 또 약자인 이웃사람에게 주는 것, 그로 인해서 율법은 완성됩니다.

율법을 전해 내려오는 문자로, 형식으로 지켜나가려는 사람은 율법의 정신을 죽여버립니다. 그와 같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파괴해버림으로써, 비로소 율법의 바른 가치가 인정되고 또 이것이 바르게 행해지게 됩니다. 형식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유전이 아니고 새 계약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마음의 진실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악에 대하여서는 이 세상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보수적·도리적·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회의 악과 불의를 지적하고 이것을 책망하고, 사회에 공도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따라서 세상과의 충돌을 자기 일신상에 자초하게 되는 성질의 사회비판, 이들이 예레미야의 종교개혁 정신이었습니다.

(2) 예 수

예레미야의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분이 예수입니다. 예레미야와 예수 사이에 600년쯤 시간적 공간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의 종교개혁정신이 지하수가 되어 예수에 와서 또 분출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로서의 예수를 보는 것은 4복음서를 배우는 데 대단히 필요합니다. 예수의 적이 되고 예수를 잡아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들, 즉 당시의 대표적 종교가였

습니다. 이들은 모세 이래의 전통을 지키고, 예배의식을 유지하고, 유대인의 종교생활을 지배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하여 정면에서 종교개혁자로서 맞서 나간 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의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위치는 예레미야에 대한 요시아 왕의 신명기 개혁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구자임을 자인하고, 예수도 요한을 그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유대인의 전통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의 회개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됨을 설파하였습니다.

죄의 회개를 상징하기 위하여 그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로 죄를 회개하고 신생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현실사회를 예리한 비판의 눈으로 보고, 국왕 헤롯 안티파스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행을 지적했기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의 상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에서 요한이 선구자이고 예수가 뒤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일까요? 이것은 요컨대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를 주장한 사람이고, 예수는 죄에 대한 용서를 실행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지적하고 목을 잘렸습니다만, 예수는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죄의 용서의 필요를 가르친 사람과 죄를 용서한 사람과의 차이가 양자간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 3:3~8)

또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5).

그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은, 새 계약이 여호와로부터 주어진다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과 같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으로 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마음에 율법을 새긴다’ 또는 ‘새 받을 간다’든지 ‘마음의 가죽을 자른다’든지 하는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말한 것은 성령의 활동은 자유롭다는 말씀이고, 제도나 규칙이나 그런 것은 고정적인데 성령은 형체를 가지고 고정되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 즉 율법의 형식적인 속박에 대하여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1~24)

예레미야의 신앙의 흐름이 여기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는 당연히 율법의 전통을 파괴하는 자로 바리새인과 학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등 고의로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 바리새인들의 증오를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또 다른 곳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일점일획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파괴함으로써 율법을 성취시킴이 예수의 개혁이었습니다. 파괴되는 율법은 형식적인 율법이고, 완성되는 율법은 율법의 영적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예수는 사랑의 율법을 성취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특히 예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은 죄인, 맹인, 절뚝발이, 병든 자, 고아, 과부 등이었고, 이들은 예수가 특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예수는 형식적인 율법의 파괴자가 되는 것도 사양치 않고, 그 때문에 이 세상 학자, 부자, 권력자들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율법을 파괴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서는 율법을 두 개의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했다는 것은 율법의 껍데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완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진짜 정신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속 생명을 질식시켜버리려는 때에 껍데기를 파괴함으로써 속 생명이 구출됩니다.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먼저 예언한 개혁의 전망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나타난 종교개혁 정신과 사업의 흐름은 예수에 있어서 최정상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 신약시대에 차례차례 나타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사업은 모두 거슬러 올라가 예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개혁은 예수를 지목한 것이고, 신약의 종교개혁은 예수에게서 나온 것으로 예수께서 종교개혁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는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죄의 용서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행복을 주장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부활하고 또 그로 인해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십니다. 따라서 또 모든 시대의 종교개혁의 중심점이고 근원입니다.

(3) 바울

예수 다음에 사도시대에 와서는,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 최대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입니다. 바울이 주창하고 있는 것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요, 또 예수가 가르치신 선에서 지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의 전통이 고정된 형식의 껍데기가 되어 그 껍데기 속에서 영적 생명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이 그러했고, 예수의 승천 후 초대교회 내부의 유대주의자가 그러했습니다.

종교개혁자로서의 예수의 싸움이 구체적으로는 주로 안식일의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과의 충돌에서 일어났던 것같이, 바울은 주로 할례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내부의 유대주의자와 충돌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는 말합니다. “이방인은 우선 율법상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원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러한 할례주의자가 초대교회 안에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모세가 정한 신성한 율법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은 여호와와 백성이 될 수 있으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여호와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공인받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다. 즉 에클레시아의 일원이 될 수 없다. 할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예비적 필요조건이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바 초대교회 내의 보수적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할례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율법에 관한 일로, 바울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

정받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좋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노한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바울은, 도덕도 필요 없고 유전도 지킬 필요 없다고 하는 등 무율법 무도덕을 주장한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또 바울주의의 아류(亞流) 중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함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며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와 비난과 박해 중에 있으면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의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만,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그에 대해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진실입니다. 영과 진실이 구원의 근본이고, 형식적인 제도나 습관에 집착하는 것은 모든 영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속박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로마서 3장 28절을 대단히 중요시하시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 원칙이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역설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원칙을 응용해서 특히 역설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방인의 구원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기독교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할례가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문제여서 주장이 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바울이고, 필요하다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상당히 애먹은 문제입니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바울의 주장에 의하여 복음의 전파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할례를 받고 제도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교회에서 받아들인다면,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이 이방세계에 퍼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종이나 민족의 구별은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바울이 유지했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범위가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파괴자로 몰렸습시다만, 그는 결코 무도덕주의나 무율법주의를 제창한 것이 아니고, 일단 율법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을 '사랑'이라는 한 점에 요약해서 환원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문제이므로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식이나 타성으로는 참사랑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영적인 자유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는 줄 수 없습니다.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면 줄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영의 구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규칙이나 제도나 의논에 의해서는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의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기초 위에 그는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자.”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느 편지에도 처음 부분은 율법을

부정하는 부분이 있고 신앙에 의한 자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후반에는 그 자유에 의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앞서 파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파괴는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위대한 개혁자의 일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에 의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깊이 뿌리박게 되었습니다.

(4) 루 터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는 근세에 와서 루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15,16세기에 걸쳐서 루터, 칼뱅, 쾰빙글리 3인의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동시에 나왔는데 말하자면 루터가 대표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바울의 종교개혁과 같은 정신이, 시대를 달리해서 분출한 것이지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3장 28절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앙'만'으로 주어지는 의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영과 진실에 의한 것이며, 제도적 예배나 율법적 행위를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진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짓이라고 로마 교황과 격돌했으며, 이로 인해 가톨릭교회와 분리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색은 만인사제론(萬人司祭論)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특별한 승직(僧職)이 필요치 않은, 모든 사람이 사제(司祭)라는 사상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 향해 크게 열어놓았는데, 루터는 사제라는 역할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습니다.

가톨릭교회에는 가장 위에 교황이 있고,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그 밑에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그리고 일반 신도가 있고, 그 밑에 구도자가 있어서, 이러한 계급제도에 의해서 예배가 행해집니다.

루터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떠한 시골 농부라도, 병자라도,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중개의 필요는 없다. 신앙에 의한다면 아무라도 무조건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위해 교황의 허가도 인가도 찬성도 동의도 필요치 않다. 비록 교황이 파문장을 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더라도, 영과 진실로써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신앙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교황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나 복음을 전파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럴 책임도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직업종교가만의 일이 아니다. 승직을 맡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인이 사제가 될 자격이 있다. 또 책임도 있다.

그러한 만인사제 사상을 루터가 주장한 것은 대단히 큰 개혁적 사업이었습니다. 신앙만으로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주장은, 루터에 있어서는 상대가 가톨릭교회라는 계급제도가 엄중한 종교였기에 만인사제라는 혁명적 사상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업의 특색인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즉 내셔널리즘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당시의 국제정세에서 온 것

으로, 독일을 통치하는 최고의 군주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였는데, 당시 스페인 국왕이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민족은 외국인 원수(元首)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신성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이 제휴하여 정치 및 종교적 권력으로 독일 국민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었으며, 거기에서 생긴 현실적인 정치적·사회적 부패에 대해서 루터는 신앙적 견지에서 예리한 비판의 소리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당시 발흥의 기운에 있었던 독일민족의 내셔널리즘 즉, 국민주의에 유력한 자극이 되어 정신적 추진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장 현저한 것으로 교육상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대단히 많은 수도원이 있어서, 국민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전상의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교육은 오로지 수도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디만, 그 내용은 독일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는 부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많은 수도원을 폐쇄하고 오히려 읍이나 면 같은 데에 공공 비용으로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도원 학교에서는 라틴어만 사용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독일어를 쓰고 교과목도 독일국민의 실제생활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가르치도록 주장함으로써 교육의 국민화와 보급을 기했습니다. 이것이 독일에서의 초등학교의 기원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 종교개혁의 특색의 하나는 민족주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특히 이방인의 구원을 역설한 주장의 응용으로써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인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의 생활을 유대인화할 필요가 없는 것같이, 가톨릭 교회화할 필요도 없고, 외국풍을 강요당함 없이 각 민족의 자유

와 자주를 존중한다는 원칙이 성립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루터의 내셔널리즘이 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신앙에 의한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둘째, 그것을 바탕으로 성직(聖職)에 있든지 평신도이든지 불문하고 모든 신자에게 전도의 자격과 책임이 있다는 만인사제론.

셋째, 독일민족은 독일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며, 자유롭고 또한 자주적인 민족생활과 정치적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이 셋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된 점이었습니다.

루터의 사업은 종교개혁상의 대 사업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철저한 점이 남았습니다. 그는 가톨릭교회와 분리하고 또 만인사제의 원칙을 주창했습니다만, 교회라는 제도를 부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독일민족의 교회로서 ‘탄테스 키루에’ 즉 국립교회제도를 만들고, 성직제도를 남기고, 성직자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예전(禮典) 즉 새크라멘트도 유지시켰습니다.

다만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직단계제도의 최고 지위에 로마교황이 앉고 교황은 교권의 수장(首長), 국왕은 세속적 권력의 수장이라는 원칙이었던 데에 대하여, 루터가 세운 교회에서는 국왕이 교권의 수장을 임명한다는 제도로 바꾼 것뿐이고, 감독, 목사 등의 성직의 단계제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통인 새크라멘트(성례전)도 그 어떤 것은 폐지했으나 어떤 것은 이어갔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새크라멘트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만, 루터는 그 중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새크라멘트라는 것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직과 새크라멘트 제도가 있는 교회라는 단체조직을 남긴 점에 있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예수와 바울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가톨릭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한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종교개혁으로서는 불철저하게 끝난 것이었습니다.

(5) 우치무라 간조

루터로부터 약 400년 후 우치무라 간조가 나타났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는 종교개혁사업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본다면, 예레미야-예수-바울-루터-우치무라 이렇게 계속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가 깨끗한 지하수의 수맥과 같이 흘러서, 시대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 용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개혁사업이 이룩된 것은 그 시대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사업이 형식화해서 생명을 잃게 되면, 하나님은 또 시기와 국민을 택해서 영원한 진리의 새로운 분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20세기 초에 일본을 선택하여, 그 중에서 우치무라 간조라는 인물을 붙잡아 새로운 종교개혁사업을 하게 하시요, 구원의 진리를 세계를 향해 새로운 힘과 생명을 가지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치무라의 종교개혁의 특색은

첫째로, “사람이 의로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함이 아

니요 신앙에 의한다.”라는 로마서 3장 28절의 원리를 강하고 분명하게 밝힌 점에 있습니다. 우치무라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통해서 이 죄 용서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성서연구를 하였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치무라 선생 자신의 죄의식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왜 선생은 그다지도 강하게 죄의식을 가지고 그로부터의 구원을 열망했는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좌우간 깊은 죄의 자각을 가지고, 죄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에 고통을 받으며,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아마스트 대학 씨리 학장이 말해 주신 간단한 말씀 즉, “우치무라 군, 군의 속에서는 구원이 나오지 않아요.”라는 말씀에 의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신앙에 의하는 것이다. 자선사업도 학문도 사회적 사업도 모두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다,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다만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치무라의 종교개혁사업의 근본이 된 신앙이며, 선생의 명저 ‘구안록’(求安錄)에 쓰여있는 바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후지이 다케시(藤井武)가 우치무라 선생 밑에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에 로마서 연속연구를 ‘성서지연구’(聖書之研究)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대신 죽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구식 사고방식”이라는 취지의 문장을 후지이가 썼습니다. 그런데 우치무라 선생은 약속대로 그 문장은 그대로 잡지에 실었습니다만, 그것에 선생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후지이 군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찬성 하지만, 죄의 대속이라는 대벌의 사상을 구식 사고방식이라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 자기가 자신의 죄에 대해 벌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자기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신앙은 복음의 근본이므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

후에 후지이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분이 이해를 하시는지 어떤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자신이 희생이 되어 죽기까지 고통하며 사랑한다는 것과, 받아야만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자기가 그 대신 벌받아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죽음의 희생까지 치르며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치무라 선생도 인정하였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고는 안 되는 정의의 요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정의의 요구에 비추어, 자신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 벌하셨다. 그 십자가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에 의해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믿는 이외에 나의 양심은 평안을 얻을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신앙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에게 의로 인정받는 것이어서, 달리 아무런 조건도 필요치 않다.”

이것이 우치무라 선생의 입장이며, 그 순복음의 근본에서 출발

해서 무교회주의가 제창된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를 제창하게 된 데에는 이 외에 부차적으로 두셋의 실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문제에 관해서 선교사와 의견충돌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치무라 선생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처음 취직한 것은 니가타(新潟)의 호쿠에츠(北越)학관이라는 선교사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선생이 취한 교육방침에 특색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실에서 성서, 특히 예레미야를 강의했습니다. 이것을 선교사가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사도(武士道)라든가 유교라든가, 일본 재래의 도덕이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선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니다.

“우치무라는 크리스천이지만 목사자격이 없다. 목사자격도 없는 사람이 성서를 강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기독교정신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일본 재래의 사상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이교도적이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우치무라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재임 겨우 4개월에 호쿠에츠 학관을 사직하고 동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적 기독교’라든가 ‘일본인의 기독교’라는 것이 선생이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민족주의 사상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민족은 일본민족의 역사와 문학과 도덕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 민족적 기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점목함으로써 기독교는 정말 일본국민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본의 민족성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기타 외국화된 기독교가 아니고, 성서

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일본사람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치무라 간조의 일본적 기독교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셔널리즘에 의한 우치무라 간조의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인정한 목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성서를 가르칠 수 없다든지 세례를 줄 수 없다든지, 또 그 유자격자인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교회원이 될 수 없으며, 교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는 기독신자로서 공인되지 않는다는가 하는, 모든 교회의 제도와 전통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이 무교회주의의 주장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본래 미국 선교사 하리스에게서 세례를 받고 감리교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후에 샤프로 독립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교회 관계자였습니다. 그러한 선생이 무교회주의를 주창한 것은 결코 교회를 부정하는 파괴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앙만에 의한다.”라는 순복음의 입장에 철저히 못한 선교사나 교회 쪽의 하는 일에 대해 비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교회원이 되지 않더라도 신앙만 있으면 크리스천일 수 있다. 일본에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 또 교회에 가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다. 집 없는 아이는 불쌍하지 않은가? 나는 교회라는 집 없는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선언 하에 우치무라 선생은 무교회주의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쪽은 그에 대해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는 고아의 기독교, 룸펜의 기독교”라고 냉소했습니다. 그러한 냉소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 신앙은 강하고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선생의 입장은 루터의 만인사제설과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의해 직접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하나님께 연결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자격이 무엇인가? 우치무라는 교회가 인정한 전도자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교사나 교회측으로부터 지적 받았습니 다만, 그에 대하여 선생은 역으로 “나는 Rev.(Reverend, 성직자에 대한 경칭)가 아니다.”라며 뽐냈습니다. 목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통사람과 구별해서 ‘미스터’로 부르지 않고 ‘레브런드’라는 특별한 칭호로 부릅니다. 그것으로 성직자임을 표시하는 관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나 교회 쪽은 우치무라는 레브런드가 아니라고 트집을 잡았지만 선생은 오히려 평신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의 요점을 열거해 본다면, 첫째로 이방인 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라도 크리스천이 되기 위하여 미국인이나 영국인 그 외 외국인의 생활이나 사상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일본사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것이다.”

둘째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나 제도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에 있으며, 제도나 전통에 의하지 않고 영과 진실로써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교회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또 성찬식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며, 세례를 주고 혹은 성찬을 실행하더라도 교회에서 안수 받은 유자격자에 의할 필요가 없고 누구나 이것을 수여해

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치무라 선생의 무교회주의는 제도와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주의와는 심하게 대립하여, 예수가 바리새인을 공격하고 바울이 유대주의자를 공격하고 루터가 가톨릭을 공격한 것과 같은 격렬함으로 우치무라는 교회의 부패를 공격했습니다.

셋째로, 우치무라 선생은 정치와 사회의 부패 타락을, 신앙적 입장에서 논란 공격했습니다. 즉 예레미야나 예수나 바울이나 루터 등과 같은 형태의 신앙으로, 현실사회를 비판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서 조소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교회 안에서나 즐기는 그러한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한다는 산 정신에 넘쳐흐르면 아무래도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게 되고, 정의 공도를 행하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우국개세의 예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생애와 사업에는, 그러한 모습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성격과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종교개혁자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개혁사의 계열에서 중요한 역사적 지위를 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생각해야 우치무라의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절 무교회주의와 교회와의 논쟁점

(1) 교회와 구원

더 나아가 무교회주의와 교회측과의 상이점 혹은 논쟁점은 어

다에 있는가?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는 구원의 원리는 교회 쪽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자간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평이 많습시다만, 실제로 논쟁이 된 점을 든다면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입장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가톨릭교회가 엄중히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교회도 다 그 입장에 서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교회주의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말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약성서에 ‘교회’라고 번역된 원어는 희랍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종교용어가 아니고 희랍 도시의 민회(民會)로, 그 도시의 자유민이 전부 모여서 정치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시민집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시나고그’라는 제도가 있어서, 성서에 ‘회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모여서 율법을 읽는 종교집회이고, 또 종교문제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크리스천이 집회를 하게 되면서 유대인의 시나고그와 구별하기 위하여 희랍인의 민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빌려서 자기들의 모임을 부르는 말로 썼습니다. 이것이 신약성서에서 쓰고 있는 ‘교회’라는 말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쓰인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크리스천의 모임이라는 뜻일 뿐 각별한 제도나 조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라고 번역된 말도 있지만, 이들은 어느 것

이나 후세의 교회에서 정한 직책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담당이라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에클레시아를 하고 있는 중에, 제도를 세우고 조직화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제도, 혹은 제도로서의 교회라고 해도 좋으나, 이것은 성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제도로서의 교회가 성립된 것은 기원 3세기에서 4세기에 걸친 일이라고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신자의 자유로운 집회인데,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와의 사이의 깊고 영원히 신성한 사랑의 관계를 말한 것으로, 제도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에 속하는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이고, 그리스도 이외의 무엇에도 마음을 붙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도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며,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라고 말한 바 있고, 유기체의 비유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 신자 각자간의 관계, 그리고 전체로서의 신자의 생명을 말한 것도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자의 생명 공동체로 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연결되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서 떠난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이 말라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뜻에서는 “에클레시아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실로 예배해야 할 것이며, 사람이 만든 제도나 조직 그것에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만일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생각하고 제도적인 교회원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교회주의는 그에 대하여 큰소리로 “노!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우치무라 간조뿐만 아니라 루터도 바울도 그리스도 자신도 예레미야도 그에 대하여 “노!”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라는 제도, 조직 속에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무교회주의의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영적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전통에 의해 생긴 제도적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교회라는 제도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사랑하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제도 속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상은 자유를 질식시키는 것이며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회주의자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주의라고 해도 ‘무교회’라는 것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자도 집회를 합니다. 만일 자기들의 집회에 모이는 사람(그것을 회원제도로 하건 아니건), 자기 집회의 회원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같은 소속임을 중요시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주의입니다.

이에 반해, 제도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도 교회원이라는 것이 구원에는 별 의미가 없고 다만 편의상의 문제이며, 구원은 오로지 믿음에 의한 것임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구원은 교회원이라거나 무교회원이라거나 제도 또는 전통에 의해 구별되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앙에 의함을 주장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2) 새크라멘트

제2의 논쟁점은 새크라멘트 즉 예전(禮典)의 문제입니다.

가톨릭교회에는 결혼도 포함된 7개의 비적(秘蹟)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교회에는 그 중에서 세례와 성찬식 2개의 예전을 남겨 놓았습니다. 무교회에는 예전이 없습니다. 예전행위를 중요시하고, 신자로서의 필요조건이라고 보느냐, 아니냐가 교회와 무교회와의 논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 : 19)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또는 최후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술잔을 받아라. 이것은 내 계약의 피니라.”

하신 것이,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예전을 행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이나 아니냐는, 그 자체가 성서학자 사이에서도 의문시되고 있는 일입니다만, 그 해석론은 별개로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 전체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명령 중의 명령입니다. 그 외에 예컨대 세례를 준다든지 혹은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보면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일은 없습니다. 또 제자들과 같이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신 일도 생애에 단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셨을 것이며, 또 소위 성찬을 하신 기사도 많을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 식전을 예수의 제자 된 자의 생활에 있어서 최대 행사로 중요시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표준인 것같이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노하실 것인가?

형식에 매여 영혼의 자유를 질식시키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의로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예전을 중요시하실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도 좋지만,

그 경우 교회가 정한 안수 받은 자격 있는 목사가 베푸는 것이 아니면 세례의 효과가 없으며 성찬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의 주장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장례식, 결혼식도 예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자격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무교회주의에서는 세례나 성찬을 하고 싶으면 해도 좋으나, 거기에 무슨 자격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한다면 누가 베푸든지 좋으며, 결혼식도 장례식도 친구가 신앙과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수례를 받고 목사의 자격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정한 전통적인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교회의 주장입니다.

제3절 무교회주의의 원리와 실제

(1)

그러니까 무교회의 원리라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제도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믿음에 의하는 것이다. 참 예배는 영과 진실로 할 것이지 예배의 장소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원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무교회주의의 본질은 순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로 인정받는 것은 믿음에 의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속해야 한다든지 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일체 그러한 제도가 구원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 순복음입니다. 무교회의 원리는 순복음입니다.

그 원리에서 생긴 무교회의 실제방법이 있습니다. 무교회의 아

주 큰 역사적인 공적은 복음을 교회라는 틀 밖으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주의의 제한에서 해방시켜 널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것 같이, 무교회주의는 복음을 교회라는 제도에서 해방시켜서 교회원이 되지 않아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커다란 해방입니다.

그 전에는 구원은 교회 안에 갇혀있었고, 세례를 받고 교회원이 되지 않으면 에클레시아의 일원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참여하기 위해 제도적인 교회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울이 유대주의자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좋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대 개혁이며, 복음이 미치는 범위를 실로 넓은 세계를 향해 해방시킨 것입니다.

(2)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의 범위가 교회 밖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일도 교회가 정한 자격제한을 벗어나 모든 신자에 대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만인사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만인이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즉, 철저한 평신도 전도입니다.

무교회도 실제로는 일요일마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웁니다만, 그 집회에는 정해진 제도나 영속적인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회로서는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는 태세에 있습니다. 전도 장소나 시간에도 제한이 없고, 각

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 사람의 주위에서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말합니다. 가정전도, 직장전도는 무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전도입니다. 무교회는 소위 대중전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인 혹은 5인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같이 성서를 배우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세포와 같이 사회에 퍼지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사회 속에 침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회에 의한 복음전파 방법입니다.

무교회에는 감독이나 목사는 없습니다만, ‘선생’이 있습니다. “무교회는 선생중심”이라는 비평도 있습니다. 즉 선생의 위치가 너무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평은 분명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좌우간 ‘선생’이 집회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무교회의 한 특징입니다.

무교회의 실천에서는 선생에 대한 인격적 진실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목사의 지위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월급으로 고용합니다. 교회의 형편으로 목사를 면직할 수도 있고 전근도 있으며, 목사의 능력이나 근태에 대한 비평과 감독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목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교회원이 기뻐하도록 마음을 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에 대한 인격적인 존경과 진실이 결핍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적 진실 즉, 인간 대 인간의 진실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로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태도입니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영’만이 아니고 ‘진정’을 특히 더한 것은, 인격적인 진실한 태도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

카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진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진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진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인격적인 진실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을 속으로는 멸시하고 혹은 비판하면서 집회에 나오는 것이라면, 무교회 집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선생은 하나님이 아니니 선생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고, 또 선생의 인물이 완전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이 자기에게 적합치 않으면 다른 선생에게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을 중요시합니다. 무교회에서 선생에 대한 진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것과는 인격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선생이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한, 그 선생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진정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교회주의의 방법이 선생중심인 것은 교회가 제도중심인 것과는 현저한 대조를 보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당대뿐이고 후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무교회 모임은 단체가 아니므로 선생의 뒤를 이어 단체를 유지할 문제도 없습니다. 선생이 돌아가시면 그와 함께 선생의 집회도 해산되고 잡지도 폐간됩니다. 선생의 가

르침을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또 자기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살아계실 때부터, 선교사나 교회 쪽 사람들은 후계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몇 번이고 선생께 질문했습니다. 선생은 “무교회가 진리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후계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나는 후계자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눈에 보이는 선생의 사업인 성서연구회도 ‘성서지연구’ 잡지도 모두 선생 당대로 끝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치무라 선생의 참으로 훌륭한 점입니다.

선생의 제자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회의 뒤를 특정 제자에게 맡긴다든가, 자기 잡지를 누군가에게 뒤를 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단체가 생기고, 단체가 생기면 벌써 무교회주의는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의 타락이 거기에서 생길 것입니다.

(3)

무교회주의는 종교적 세력이 아닙니다. 단체도 아니며, 세력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 수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곧잘 질문합니다만, 무교회 인원이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알 방법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소속회원이란 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기금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다만 신앙에 의한 우인(友人) 관계뿐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교회 신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끼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그것이 재산이 있고 세력 있는 단체이

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 재산을 유지하는가, 세력을 확대하는가, 회원수를 늘리는가, 그러한 세상적이고 사업가적인 고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예언자적인 정신을 잃고, 이 세상의 세력자인 지배계급에 영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단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무교회주의의 실제방법, 즉 프랙티스(practice, 실행방법)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교회 전도자는 대체로 자신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쓴다든지, 잡지를 발행하고 가격을 매겨 팝니다. 즉, 저술업에 의해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회원의 기부금이나 회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선생의 생활유지를 회원의 부담에 의존한다면, 거기에 경제적인 관계가 생겨서 무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4)

그리고 무교회주의에는 사회의 실제문제에 대한 민감한 비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예수께서 한 것 같은 예언자적인 사회비판 정신이 무교회에서는 항상 신선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무교회는 순수입장을 취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교회의 순복음은 이 세상적인 종교가 아니고, 사회적 종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종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회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정신, 즉 신앙에 의한 사회비판의 눈이 없으면 신앙의 생명 자체가 희박해져서, 개혁자

가 되지 못하고 보수적인 현상시인론자가 되고 맙니다. 무교회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대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혁신적, 개혁적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박해가 없는 곳에 진정한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역으로 말해 진정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사회의 현실상태에 대하여 초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모르는 사이에 보수적인 사상경향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서 박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무교회주의가 생명을 가지는 것은 전시 중에 전쟁정책과 천황 숭배의 국가주의에 대한 최대의 저항을 나타냈고, 그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무교회 안에서 여럿이 나온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무교회의 신앙태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무교회도 짚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말씀해 두고 싶은 것은 에밀 브룬너 박사가 일본에 와서 무교회를 자세히 관찰하고, “세계 기독교의 장래는 무교회 하기에 달렸다.”고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미국에 강연을 갔을 때에 일본의 무교회주의를 소개하고 유럽에 돌아간 후에도 전문잡지에 일본의 무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브룬너 박사의 소개에 의해 무교회가 세계적인 흥미와 주의를 끌게 되었으니, 무교회의 세계적 사명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룬너 박사의 주의를 끌게 된 점 하나는 무교회의 전도방법에 있습니다. 즉 교회적 방법이 아니고, 평신도가 삼삼오오 작은 클럽을 만들어 직장전도를 한다는 방법입니다.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미 기독교의 전도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평신도에 의해서 실제 사회의 생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고는 그 막다른 것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브룬너 박사의 견해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전도방법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의 특색으로 이제까지 말한 것을 결론적으로 열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신앙에 의한 것이니 율법의 행위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순복음의 입장입니다. 사람은 무교회주의라는 주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교회주의라는 주의로 구원받는다면 교회주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과 오십보 백보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영과 진정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원리가, 복음 전도를 위한 특별한 성직자가 필요치 않고 평신도의 활동으로 충분하다는 실천적 행동에 나타납니다.

둘째는, 좋은 뜻의 민족주의가 무교회주의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의 독립정신으로 나타나 민족부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렇지만 무교회주의는 어느 국민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치무라 선생은 '일본적 기독교'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일본에만 통용되는 기독교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자주 독립성을 부여하는 복음입니다. 어느 민족인지

상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힘이므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편적, 인류적, 세계적인 가르침입니다.

넷째는, 무교회주의에는 예언자적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본 세계 인류의 운명과 국민의 장래에 대한 예언과 경고가 영적 신앙의 불가분의 것으로서 무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회의 실제문제에 대해서 허공에 떠 있지 않고 땅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빛난다면, 무교회의 종교개혁적 의의는 참으로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지 일본의 무교회로 그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와 정도가 행해지기 위해, 또 세계의 모든 국민, 민족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으로서 세계적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에 의해 한정되는 좁은 생각이 되지 말고, 정신 활발한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발로되는 복음이 무교회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무교회의 역사적인 의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교회의 장래가 일종의 교회주의로서 형식적으로 고정되어 버리는가, 혹은 무교회는 영원히 젊은 생명을 갖는 신앙의 힘인가? 현재 우리는 그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무교회가 보수적으로 조그맣게 굳어 버리지 말고, 크게, 넉넉하고 자유롭게 세계적으로, 세계의 구원을 위해 활동하는 영적인 힘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중 특히 젊은 분들이 잘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56. 6, 7, 8. 嘉信)

무교회주의의 전선통일

政池 仁(마사이케 정)

무교회주의도 제각기 흩어져서 싸우지 말고 모두 협동 일치해서 불신자 또는 교회와 싸운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무교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라는 말은 ‘옛 우치무라 문하생 또는 그 흐름에 속하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들이 있다. 단순히 각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뿐이 아니고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을 단순히 우치무라 문하생이었다는 것만으로 통일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교파를 만드는 것이 된다. 무교회주의가 무교회주의가 아닌 것이 되고, 그 공격하던 교회주의가 되는 것이다.

무교회주의자는 완전히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기 옛 친구라고 해서 그 잘못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파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이나 공격하고 또 항상 제휴함을 거부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진리의 적을 적으로 하고, 모든 진리의 편을 자기 편으로 하는 것이다. 진리의 적으로 인정되면 무교회나 교회의 구별 없이 적으로 하고, 진리의 편이라고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무교회나 교회의 구별 없이 제휴한다.

우리에게는 파벌이라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어야 한다. 단지 옛 우치무라 문하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동전선을 편다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발표하지 않을 수 없고, 진정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진리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보존되어

야 한다. 종교는 정치와는 달라서 소수당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상관없다. 정치에 있어서는 어느 파가 정권을 잡아 내각을 구성해야만 하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아무도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 1당이어도 상관이 없다.

협동전선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효과적이란 무엇인가? 그저 크리스천이란 이름만 가진 자의 사람 수만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 중에는 가톨릭도 있고 프로테스탄트도 있다. 같은 프로테스탄트 중에도 유니테리언이 있고, 쓰리니테리언도 있고, 전쟁을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가톨릭이나 유니테리언이나, 호전적 신자를 백명 천명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단지 신자의 머릿수만 늘리려 했기 때문에 전시(戰時) 중의 많은 교회들이 전쟁에 찬성했던 것이다. 진실한 크리스천 한 사람을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정치를 본받아 당파를 만드는 것으로는 결코 안 된다.

물론 우리들도 어느 특정한 공동문제에 대하여 협동전선을 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라면 물론 언제까지나 제휴해도 상관없다. 아니,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옛 우치무라 문하였다는 것만으로 양도 염소도 말도 사슴도 구별 없이 협동전선을 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46. 3. 성서일본 123호, 전집 7)

무교회주의의 사명

政池 仁(마사이케 정)

애초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우치무라 선생 등이 삿포로 농학교(農學校)의 학생시절에 외국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고, 감리교파와 성공회가 구미에서 하던 싸움을 삿포로에까지 아니, 농학교 안에까지 끌어들여, 서로가 상대를 비난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선생들은 “우리들은 종교상의 의견이 거의 같은데도, 세례를 받은 교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없다.” “인구 겨우 3천도 못 되는 삿포로 같은 작은 도시에 두 파의 집회소를 만들어 경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되어 삿포로 독립교회를 만든 것이 근본이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우치무라 선생의 긴 일생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교파의 싸움을 근절시킬뿐더러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된 것이고, 또 마지막까지 이 정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924년에 우치무라 선생은 ‘교파 근절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격렬한 경쟁, 배척, 분쟁, 투쟁을 거쳐온 서양 사람들의 선교를 받아 신앙에 들어간 우리 나라 기독교신자는 그들의 감화를 받아 그들 모양으로 분쟁, 시기,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교파 폐해를 근절시키는 길은 교파를 전하고 지

금도 교파를 유지하는 서양 교회와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만, 이 의견은 교회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일본 기독교신자로서 서양 신자를 따르지 말고, 진정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본사람 특유의 신의 공명을 중시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私)를 떠나 공(公)에 서서, 모든 음험함을 피하고 사람의 악함을 생각지 말고 좋은 점만을 생각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정실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정신을 기르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일본에서 서양에서 시작된 기독교 교파를 근절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계는 서양의 그것과는 전혀 달라 지상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전집 13권 797쪽)

이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앞길이 막힌 기독교를 재출발시키는 길은 이 무교회주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저 내부에서 갈라져 분쟁하는 나라는 자멸하고, 갈라져 싸우는 동리나 집은 서지 못하리라.”(마 12:25)고 말씀했고, 바울도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너희는 서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갈 5:15)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서로 싸우면 기독교 그 자체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인류전체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회적 관대라는 것은 오늘날 세계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교회 신앙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 중대한 책임을 양어깨에 진 것입니다.

더욱 여기에서 ‘교파’라는 것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치무라 선생이 말씀하신 ‘교파’라는 것은 미움을 가진 교파를 말하는 것이고, 교파를 없앤다고 하지만 성서의 해

석, 교리를 통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성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경향이나 사물을 생각하는 방법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의 교파라면 교파는 있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파와 교파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친구들은 이렇게 믿는데 당신들은 다르게 믿는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길을 가자. 그러나 서로 일치되는 점에서는 협력하자. 또 서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고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존경하자.” 이런 태도라면 좋을 것입니다.

영국의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할머니 둘이 밤늦도록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몇 시지?” 하고 물으니, “지금 교회종이 울렸으니 12시가 지났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것은 가톨릭의 종이니, 거짓말이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틀렸다는 것은 아니 됩니다. 가톨릭 사람이 만들었건 프로테스탄트 사람이 만들었건 정확히 만든 시계는 신용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하는 것은 교리 교파를 떠나서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톨릭도 프로테스탄트도 다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황 무류설’이라든지, ‘교황 절대권’이라든지, 성서해석의 통일이라든지, 어떠한 의식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절대로 반대하지 않으면 아니 되지만, 가톨릭은 가톨릭으로서 존경해

야 할 점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동양에 전도한 사비엘, 하와이의 나환자를 구해준 다미엔, 고아의 친구 후라나간 등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가톨릭의 교리가 우리들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가톨릭을 조롱하여 “저것은 모기잡이”(蚊とりっく)라는 등 말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톨릭이라고 완전히 발음할 필요가 없다. ‘가토’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교회 중에 있다면, 그것은 무교회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회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폐하고 사랑만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케야마(竹山) 씨가 스위스의 가톨릭 어린아이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가리켜 “저것은 악마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만, 무교회 속에서도 주일학교에서 교회를 ‘악마의 집’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듣고 나는 슬펐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교파’가 스스로 된 것이니 무교회의 자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산당의 노사카(野坂參三) 씨가 전후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에 “공산당도 국민에게 미움만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의 공산당은 사랑받는 공산당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했더니, 도쿠다(徳田球一) 파로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공산당은 좀더 전투적이어야 한다.”고 반박을 해서 노사카 씨는 ‘사랑받는 공산당’이란 소리를 낮추어 버리고 그 때부터 일본 공산당은 화염병을 경찰에 던지는 등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교회라 해도 ‘사랑받는 무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았다.”(눅 2:52)는 것입니다.

물론 도둑이나 살인자나 군국주의자에게 사랑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으면 악인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전쟁 때는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 해도 전쟁에 반대하면 국민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그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전쟁에 찬성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No!”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나 그 방식에 관하여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지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일에 있어서 특히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장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또 한번 예수의 시대, 바울의 시대로 되돌아가서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미움을 버리고 사랑만 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같이 긴 세월 전통에 의해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또 프로테스탄트의 교파와 교파 사이의 미움과 시기가 신자 사이에 몸에 밴 곳보다도 교파의 폐해를 아직 그다지 받지 않은 일본이 개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에 무교회를 일으켜 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62. 2. 성서일본 313호)

무교회에서의 공동체 형성

岩隈 直(이와쿠마 나오히시)

표제와 같은 테마로 지난 2월('75년) 무교회 전도자 2명과 교회 목사 1명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우리 모임에서 3명이 출석하여, 그 한 명에게서 당일 3인의 발언 요지를 듣고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을 말하려 한다.

바르트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지만, 기성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교회에서 공동체의 형성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교회를 교회화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현재와 같이 무교회의 작은 모임이나 그룹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신앙이 독선적, 폐쇄적으로 될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서 무교회 집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이 무교회에 있어서 실현되기 위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라는 문제 의식에서, 무교회에 있어서의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모양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한 나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미 본 지의 '성서적인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는 글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 후 10수년을 지내는 동안에 나의 생각에도 다소 중점의 변화도 생겨서, 지금의 나의 생각을 간단히 말하려고 한다.

우선 제 1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클레시아)관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연결된 자 총체로, 그 주(主)는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

라고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고,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다만 그 말씀에 의한 증거나 인쇄물 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일 뿐이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 신자의 무리가 지상에서 어떠한 조직을 갖는가, 또는 아무 조직도 없는가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에 많은 신조와 조직을 가진 소위 교회가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고, 그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예를 들면 무교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조직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지상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나 전도를 위한 편의상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는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거기에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이르나치오스).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적 규정이다.

이상의 규정을 종래 무교회는 교회측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한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교회측도 대체로 무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규정의 적극적인 면을 강하게 제시하여 그 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우리들 무교회도, 무교회 전체뿐 아니라, 그 하나 하나의 모임이나 그룹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며, 신자 각자는 그 일원이라고 하는 자각, 또 하나는 전 세계의 교회에 속하는 신자들도 같은 주님께 연결된 형제 자매이고, 서로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는 자각, 이러한 자각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바이고, 무교회 전도자는 처음에

말한 에클레시아의 본질적 규정을 언제까지나 변호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그 적극적인 면을 주장함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에 든 자각에서 아무리 작은 무교회 모임이나 그룹이라도 세계 대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고독감이나 고고함(혼자만 좋아함)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 또 제2의 자각에서 무교회의 각 집회에 대한 연대감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의 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하여 폐쇄적이고 독선적이 됨을 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적어도 다른 무교회 전도자나 모임을 위해서, 나아가서 온 땅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게 된다. 무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의 범위는 참으로 좁고,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도 소수이다. 우리는 교회의 전도, 특히 무교회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빈민가의 전도, 또 차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와 상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다음은 무교회에 있어서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나의 생각이다. 그것에는 먼저 말한 신앙적 자각이 선결요건으로 그것 없이는 이 문제를 논할 수 없다. 그러한 자각이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에 그것만으로 좋은가 아니면 그 이상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이 없는가가 문제가 된다. 신앙적 자각만으로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로서는 그 이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교회 전체에 통하는 신조를 정한다든지, 아무리 느슨한 조직이라도 무교회 전

체를 하나로 묶는 조직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런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벌써 무교회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무교회의 일체성의 자각을 굳게 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선 매년 행해지고 있는 우치무라 간조 기념 강연회는 무교회가 어떤 공통된 신앙에서 있는 자의 동아리라는 자각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 아쉽게도 금년('75년) 폐지된 '기독교 야간강좌'도 무교회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데 공헌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마이칸 전도 성서집회'도 마찬가지다.

또 수년 전, 무교회 사람도 동참하여 만든 '제암교회사건 사죄위원회'나 주로 후지사와(藤澤武義) 씨에 의해 제창된 '폴무학원 전등가설 모금운동'의 권유가 있었다. 이들 운동이 무교회 집회나 그룹에서 얼마나 이루어졌고 얼마나 호응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운동이 있음으로 해서 전국의 무교회 집회간에 연대 의식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집회에서도 참가했는데 이것은 집회 사람들의 안목을 넓히고, 전 일본의 무교회 중 일부로서의 자각을 깊게 한 듯 하다. 또 후지사와 씨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네팔의료전도를 하고 있는 이와무라(岩村) 부부를 지원하는 모임, 마사이케 씨 등이 중심이 된 이토(伊藤)회 등의 운동이 널리 무교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좋은 일이었다. 우리도 이에 참가함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함이 컸다.

또 최근 무교회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결성된 '야스꾸니 문제 기독교자의 모임'에 의한 운동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교회측에 비해서 너무나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 좋아서 참가하고 또

그 성명서 발표도 했다. 그에 대하여 주최측 한 분에게서 온 인사장 중에 “예상외로 무관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무교회의 문제가 생각지 않게 이런 데서 노출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순복음에서는 기독교자로서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는 것같이 생각되었습니다.”라고 썼다.

분명히 여기에 참가한 무교회 집회 수는 그 전부에 비해서 너무나 적었다. 그러나 이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전부가 무관심해서 그랬다고 보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중에는 이미 독자적으로 혹은 교회측의 모임과 협력해서(우리 모임에서도 그랬음) 운동하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이제서야’라는 기분으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단호한 반체제적 자세를 취할 것이지 이런 정도의 운동으로 무엇이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고, 혹은 다른 운동에 참가하고 있어서 이 운동에는 참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분이 지적한 대로 무관심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참가하지 않은 집회나 그룹을 결코 잘라버릴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같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거나 어떠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서로 보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 때마다 전부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그러는 중에 그 사람들의 관심의 눈이 뜨여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중에 있는 무교회 집회나 그룹을 전부 알아야 할 것이나, 그 때문에 그런 표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거의 모든 집회가 누군가의 잡지를 보고 있을

것이니까 잡지를 내고 있는 사람이나 알고 있는 범위내의 집회 책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요는 무교회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모든 무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교제에 구체적인 호소를 계속하는 것이 무교회에 있어서의 공동체 형성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75. 2. 전집 8)

무교회란 무엇인가?

高橋三郎(다카하시 사부로)

'89년 10월 29일 오후 무교회 전국집회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무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세키네 마사오(關根正雄) 선생과 내가 발제(發題)를 하였습니다. 그 때에 말씀드린 것을 여기 실습니다.

지금 세키네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실로 위기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면, 실은 무교회 자체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21세기가 되면 무교회는 소멸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우리는 공식석상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때 이는 중대한 발언이 아닐 수 없으며, 일본의 기독교 전도(傳道)가 아무리 핏색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21세기가 되면 교회가 소멸될 것이란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교회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 어떤 근거 있는 경고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배후에 깔고 있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나는 '무교회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역사적 운동의 면에서 이 문제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나의 탐구의 한 작은 보고로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어디서부터’라는 출발점은 역시 종교개혁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예수도 바울도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지금 세키네 선생의 말씀에도 있었듯이 “하나님 이외의 무엇도 신(神)으로 받들지 않는다는 정신의 관철”이라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제도 교회 안에 이를 가두어 놓고, 거기에다 이 조직체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부패한 참상은 새삼 말할 것이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세워졌을 때, 그는 ‘믿음만’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구원은 로마 교황청에 의하지 않는 오직 믿음만에 의하여 각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중대한 진리의 선언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교황무류설이 주창되고 여러 종교회 의에서의 결의사항이 성서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던 그 시대에 ‘성서만’을 신앙의 전거(典據)로서 저 개혁운동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회 속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불철저하게 끝났다는 비판이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문제점으로 가톨릭 교회에 일곱 가지가 있던 새크라멘트 중에서 세례와 성찬 둘을 남겨둔 것이 불철저하다고 하여서, 무교회는 새크라멘트가 없는

집단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 보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신앙만으로 구원받는다든 교의(敎義)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당연한 일로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고, 의견이 다 극화되는 것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앙만’이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이었으므로 각각의 신도집단이 자기 교파의 신앙고백을 제정하고 이에 합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신앙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은혜의 논리였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사이에 격렬한 차별의 논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교파주의의 폐해를 심하게 비판했을 때, 그는 이 사태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보였던 이러한 상황이 우치무라의 시대에도 아직 잔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크라멘트는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니, 신앙이 구원의 조건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크라멘트의 참여도 구원의 조건으로서 도그마화하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재세례파로 불리는 사람들은 주체적 신앙 없이 받는 세례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유아세례에 반대하여 어른이 된 후에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것을 자신들의 기본방침으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당연한 주장으로 생각되지만, 이

재세례와 사람들은 이단으로 낙인찍히어 잇달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구원의 틀을 새크라멘트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고수하려고 하는 교회의 집념은 격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무교회는 신앙만의 신앙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어받아 견지하면서 이를 그 본래의 바른 모습으로 철저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인가 하면, 우치무라 간조에 있어서는 “사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루터적 복음 이해와 아울러 “믿음은 구원의 결과다.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다. 사람은 구원을 믿음으로 하여 믿는 자가 된다.”는 아주 주목해야 할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치무라 자신이 그 중요성을 어디까지 자각하고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시점에 서서 보면, 실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중대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세속 세계에 대한 따뜻한 동정과 관심이 흘러나왔으며, 신앙의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려는 기독교 세계의 옹졸함을 결연히 넘어서 나아간 우치무라 간조의 신앙의 특질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또 세례와 성찬을 베풀기 위해 특히 목사라는 성직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부한 것이니, 만인사제주의는 그 필연적 귀결로서, 무교회 전도의 정신을 표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치무라의 이 신앙 이해를 새로운 하나님 발견이라는 말로 고쳐 서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내 나름으로 정리하여서 참조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만, 복음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의 공생애는 병자의 치유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나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혈루병 여자를 고치고, 세리의 소명, 죽은 자의 소생, 또 집단으로는 5천명의 큰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일,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도래를 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인간 존재를 사랑하는 긍휼이며, 신앙의 유무라든가 온갖 이 세상적 차별을 넘어선 범인류적 은혜의 도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의 염두에 떠오르는 것은, 니도베 이나조(新渡戸稻造)는 깊은 슬픔의 문을 통하여 신앙에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바로 정면으로 마주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만년, 동경여대의 학장이었을 당시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학생들을 타일렀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니도베 이나조의 입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권면의 말을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우치무라 간조의 만인 구제론을 주창한 일입니다. 이것은 '85년에 있었던 나고야에서의 우치무라 간조 기념강연회에서 다나카 오사무(田中收) 씨가 지적한 것입니다. 만인구제설을 하나의 교리로 내세운다면 신학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해 인류를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에 대한 반대로써 이를 본다면, 만인구제설은 실로 깊은 복음 이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스도를 경유하여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의 제2의 나타남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의의 생명이며, 산상수훈이 그 내용을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거나,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

거든 왼쪽 뺨도 내밀라는 전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는 이 교훈은 현실로 실행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사람들은 먼저 문제 삼지만, 나는 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나타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이, 산상수훈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견, 실행 불가능한 윤리체계의 제시라는 느낌을 주는 산상수훈은 실은 긍휼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치무라 간조 이래 우리의 여러 선배는 이 계명을 바로 정면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쟁 때, 초미의 급(急)을 알리는 전쟁문제에 대해 절대 비전(非戰)을 주장하여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저 산상수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키네 선생께서 방금 힘주어 말씀해 주신 계명의 수령이라는 것, 이 계명을 매일 매일 살아가는 자로서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 속에 나는 같은 긍휼에 의하여 살아가는 이의 고백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제3의 발현형태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 대한 싸움의 선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위선적 종교성에 대한 싸움이요, 이것은 중국에 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해져, 이 속죄의 죽음에 힘입어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을 우러러 바라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이며, 지금 세키네 선생이 무신앙의 신앙이라는 말로 표명한 내용을 나는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치무라 간조의 제일 고등학교 불경(不敬) 사건은 하나님 아닌 것 앞에 엎드려 절함을 거부한 행위로서 역사가들 사

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또 내년에 거행되는 오나메사이(大嘗祭)에 대하여 세키네 선생으로부터 특히 발언이 있었음을 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며, 그에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나메사이란 천왕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신(神)이 되는 의식이므로, 전후(戰後)에 있었던 천왕의 인간 선언의 폐기며,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의 필연적 귀결로서 이를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긍휼의 도래로서 나는 복음의 내용을 총괄하였습니다. 앓는 사람들의 치유, 의의 생명의 도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전체상(全體像)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여 별로 새로운 것을 여기서 제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를 전체상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이론만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학적 활동은 결국에는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고, 철의 지배를 사람들 위에 미치게 하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그 깊은 속죄 신앙에 서 있으면서 복음의 전체를 전체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복음 신앙은 세속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키네 선생의 저작 중에도 ‘세속의 복음’이라고 묶어 정리한 책이 있으며 나 자신도 ‘복음 신앙의 세속성’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신앙의 간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나 자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

이상 나는 무교회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가운데 전반(前半)에 대한 말씀을 일단 마쳤습니다. 무교회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걸어왔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인가? 이 후반에 대한 해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재림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미 세키네 선생으로부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바로 같은 진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림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초대 신도들이 집회를 시작한 당초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일(聖日)마다 그들은 모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거기에 믿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서 지난날 생전에 들었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주의하신 일을 다시금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일마다 행하여 온 일의 기록이 모태가 되어 복음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즉 성일의 예배는 부활의 주를 맞이하는 일이었으므로, 그것은 당연히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일요일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주 예수께서 거기에 임재하심을 영적 현실로 체험하여 온 그들은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은 것은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부활 신앙의 리얼리티는 재림 신앙의 리얼리티와 일치한다고 하신 세키네 선생의 말씀에 나는 마음으로부터 동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들을 향한 물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나는 무교회의 전도를 생각할 때 최종적으로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성일마다의 예배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한 점에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의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무교회의 걸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학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요 예배는 동시에 성서 강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 이우고 독립 전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성장해 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이었으며, 그 성서 강의는 당연히 얼마간 평론을 지닌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적 연구의 성과를 논하고 사회의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작은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집회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보다도 하나의 평론의 장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려합니다. 이것은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평론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판의 주체로 형성되게 기능합니다. 평론의 결과 사람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의 주체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회개란 옛 자신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즉 회개란 자신에 있어서의 주권의 교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론은 이와 같은 주권의 교체를 낳지 않습니다. 평론은 인간을 이지의 사람이 되게 하지만, 신앙의 순종에

는 이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반성이 나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무교회의 전도는 만인사제주의의 구체화로서 행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크리스천 신문에 '제2의 종교개혁의 때'라는 제목의 논설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우리들은 '제2의 종교개혁'이란 무교회의 기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사람이 이를 창도하기 시작했고, 더구나 그것을 읽어보니 만인사제주의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무교회의 주장이 이제 이렇게 교회 전체의 공통 견해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3

무교회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대체적인 서술로써, 무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그 어떤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나의 보고는 이상으로 끝마쳤습니다. 다음 각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의 얘기는 여기서 끝내야 하겠으나,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교회사예의 접속이란 것을 일관되게 추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공통되는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교회사예의 접속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지금 세키네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교회는 단지 하나의 교파(sect)가 아니라 우주적, 세계적 기독교회 전체의 공유물이고, 모든 신도에게 타당한 진리의 제시이어야 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사회의 접속을 탐구하는 나의 눈으로 보면, 2천 년에 걸친 싸움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감사, 그에 힘입은 바 큰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치 인식, 이 감사와 유대의 자각을 잃는다면 무교회의 앞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교회가 전 세계의 공동적 교회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는 진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종교 개혁사에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결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탐구에 일단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두에서, 21세기가 되면 무교회는 소멸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는 이 경고에 대하여 응답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고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심판하는 자는 심판 받는다는 진리를 나는 거기에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의 철칙입니다.

우리들은 심판하는 자로서 걸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의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깊은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밑바탕을 받쳐주고 있다면 똑같이 주의 용서하심을 받고 있는 모든 신도들을 향해 열린 자세가 나오게 될 것이며, 우치무라 간조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또 부름 할트도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구원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보는 겸허한 사랑의 눈길이 새롭게 우리의 앞날을 열어줄 것이 아니겠는지요?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론적으로 아직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나의 발제를 마칩니다.

<끝맺는 말>

글자 그대로 세키네 선생의 뛰어나신 그 뒤를 따라 나도 감히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만, 우리들 사이에 주님 안에서의 일치가 선명하게 확인되었음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희세(劉熙世) 선생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치무라 간조의 신앙은 김교신에 의하여 한국이라는 장소에서 실험되었다는 발언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이 대만에서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김교신 선생 같은 강렬한 개성이 무교회 전도자로서 독립하여 전진한 것과 같은 형태는 취하지 않았습디만, 무교회적 신앙을 받아들여 분명하게 무교회를 표방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이에 공감하고 협력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은 격동의 이십 수년을 걸어왔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의 축복은 거기서 하나의 결실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기억에 남겨 두어야 할, 감사에 넘치는 은사였다고 압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로교회의 총 간사였던 고준명 선생은 우리들과 신앙의 근본을 하나로 하는 분이시며, 산지(山地) 전도에 종사하는 옥산 신학원 중에도 우리들은 신앙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체험된 진리는 일본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물론 한국·대만으로 이미 퍼져 넘쳐나간 것이지만), 역시 중국 전도를 우리의 과제로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어떠한 길이 다음의 한 걸음이 될 것인지, 지금의 나로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아시아는 하나라고 하는, 세계에 열려진 에클레시아의 초석으로서, 무교회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범인류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실천의 장에서도, 학문의 장에서도, 전도의 장에서도 짊어지도록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심포지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은 크나큰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신앙에 의해 구원받는다든 논리를 우치무라 간조는 구원받음으로서 믿는다는 것으로 바꾸어 놓은 거기에 하나의 교의적(敎義的) 발전이 있다고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만으로 무교회의 신앙이 다 서술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확인의 표시를 말씀드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교회와 무교회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되묻는다면 실은 대답에 궁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에 ‘무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85년, '87년, '89년 이렇게 되풀이하여 심포지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교회의 진리가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사도신경 속에 ‘거룩한 공회를 믿고’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신앙의 비의(秘義)에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풀이하여 묻는 일은 없는 듯한데, 무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되풀이되어 나오는 것에 나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저 같은 물음을 언제까지나 되뇌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논리의 장에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의 대의를 지니고 있음을 보

여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저 사도신경의 고백 자체가 언외(言外)에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논리로써 다 파악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여기 들고자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교회가 숫자를 따지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도의 핏색 상태를 보며, 아니 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신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나는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와 무교회의 삶의 자세가 다를, 거기에 나타나는 정신적 본질의 다름을 다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교회에 있어서의 복음 선교는 죄 사함의 복음에 의해 사람이 회심으로 인도되는 것을 중심과제로 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옛 자기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이에 반항하는 현실을 바로 보면서, 말씀에 의하여 이 옛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옛 아담이 그대로 눌러 앉아서, 형식상으로만 성서의 논리를 속에 지니고 있는 현상이 언제나 따라 다녔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충격적 발견으로서 자기 자신 속에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지켜보는 일을 다소나마 해 오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회심에 이르기까지에 얼마만큼 긴 과정이 필요한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간적 입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옛 아담과의 싸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임종의 자리에서도, 신앙적 개안,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한과 회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세키네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란 항상 새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를 따지는 전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장 단순한 방법은 우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이것으로서 신자가 한 사람 생긴 것이 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을 하는 교회는 별로 없으리라고 압니다만, 이런 정신이 있는 곳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리들은 일본 기독교단에서 교단 총회가 (비방과 고함으로) 개최불능이 된 사건이나, 신학대학에 기동대를 진입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사건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 아래서, 인간의 자기 주장이 맞서 부딪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전부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하나의 문제제기로 이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무교회는 재산을 갖지 않으므로,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경찰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싸움은 사실상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교회 안에서도 견해의 서로 다름은 있는 것이므로, 인간적 갈등이나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여,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에 두고, 다시 시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교회의 그러한 전도상의 자세는 하나의 정신적 에토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교의로는 다 서술할 수 없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나는 수를 문제 삼는 전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사미 센사쿠(淺見仙作) 옹이 참으로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대 집회보다는 작은 집회를, 소집회보다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무교회의 전도 정신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무교회의 문제, 또는 신앙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로 영적 현실이 되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것이며,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되풀이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의 교체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들은 나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은 전도와는 달라 어디까지나 개성을 존중하고, 그 주권을 존중하고, 독립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것이지만, 전도는 그 주권을 내어줄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과 전도와는 서로 깊이 관련을 가지면서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아이싱(愛眞) 고등학교는 성서에 의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을 만들기 위한 학교는 아닌 것을 명언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전도와 교육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본질이 같지 않은, 이 두 개의 과제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는가 하는 것이 실천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것을 여러분에게도 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앙자의 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이 반드시 잘 되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에도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을 내어준다는 것은 교육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에도 전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에도 눈을 떼어서는 아니 될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서 행해지는가, 그것은 깊은 뉘우침과 아울러 한없는 감사, 감사야말로 겸손의 구체적 표명일 것입니다. 무교회의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낮게 머리를 숙여 감사한다는 정신적 자세는 굳건히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또한 동시에 일본의 과거의 전통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더불어 나타났다고 봅니다. 무조건 과거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우치무라 간조로 하여금 ‘대표적 일본인’을 쓰게 하고, 니도베 이나조로 하여금 ‘무사도’를 쓰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느 신도(神道) 가정에서 태어났던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말하기를 “무조건 신도를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는 신도 가정에서 거룩한 것 앞에 두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을 부모에게서 배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의 길잡이로서 얼마나 귀한 유산이었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오늘 사회자의 한 사람으로 수고하신 사토 마사히로(佐藤全弘) 씨도 신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게이센 여학원(惠泉女學圓)의 창립자이신 가와이 미치코(河井道子) 선생은 이세신궁(伊勢神宮)의 간누시(神主)의 집에서 태어났던 분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어떠한 사랑이 흘러 넘쳤는가를 그의 자전적 저작 ‘나의 랜턴’속에 누누이 적고 있습니다.

무교회는 이와 같은 유산에 대한 겸허한 감사를 소중하게 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조가 미국의 선교사와 심하게 다툰 배후에는 교회주의의 폐해도 그렇지만, 일본의

전통을 때려부수지 않는다면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사고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착안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에토스를 우리의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실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세키네 선생과 함께 이 심포지엄에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한 원근에서 기도로써 모든 것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9. 11. 십자가 말씀, 전집)

새 무교회주의

武祐一郎(다케유키 이치로)

1. 머리말

먼저 몇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새 무교회주의’라는 연제를 내걸었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선배의 어느 분인가가 말씀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소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나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둘째는 개인의 이름을 들어 비판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의 52년간의 신앙생활의 반성을 겸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셋째는 ‘새 무교회주의’라는 연제를 내걸었지만, 잘 생각해보니 ‘주의’를 빼고 ‘새 무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생각하는 내용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어서, 예정시간 내에는 도저히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분으로 하고, 후일 어딘가에서 이 계속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여기에 ‘교회·무교회=교회의 본질’이라는 작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마치다(町田)시에서 하고 있는 제2 토요회에서 1년 반쯤 전에 말씀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에게 드렸더니 한 가지 요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기록 마지막

에 “요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교회나 집회의 형성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까요?”라는 말로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 과제를 달성하는 방법론을 5월 2일에는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계속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 말의 정의(定議) :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지나친 표현이 됩니다만, “무교회론은 자칭 무교회인의 수만큼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공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말의 정의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자주 쓰게 될 3개의 말의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무교회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무교회’라는 잡지 제2호에 ‘무교회 사상의 성립’이란 다카기(高木謙次) 씨의 문장이 있고, 그 안에 말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그것을 빌어 거기에 약간 저의 코멘트를 붙여서 말씀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다카기 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1) 무교회 : 집회, 집단, 신단(信團) ☞ 에클레시아 개념
- (2) 무교회주의 : 이론, 주장, 이념 ☞ 이데올로기 개념
- (3) 무교회정신 : 에토스와 파토스의 복합개념

이 정의에 더 덧붙일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무교회’에 대하여 저는 ‘모임’이라는 말을 썼으면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에 에밀 브룬너가 일본에 계실 때 무교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

후 무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무교회 모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그것을 빌리려 합니다.

다음에, ‘무교회주의’라는 말입니다만, 다카기 씨의 정의에 ‘이상’이란 개념도 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무교회정신’을 다카기 씨는 “에토스와 파토스의 복합 개념”이라는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토스’는 분위기 또는 정신, ‘파토스’는 ‘정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에토스’는 ‘향기’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교회 정신’이란 것은 말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기는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맡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무교회’ 즉 ‘무교회 모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중에는 그 모임을 지도하는 사람의 이념으로서의 ‘무교회주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지도자가 표현하고 있는 ‘주의’는 훌륭하더라도 현실의 ‘모임’에 문제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독립학원 고등학교를 창립 초기부터 알고 있으며, 창립자 스즈키(鈴木彌美) 선생의 교육이념에 공명했기 때문에 자식들 넷을 전부 거기에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재학 중에 아내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독립학원은 그 이상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즈키 선생의 이념은 훌륭해서 이상적이지만, 현실의 학원은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념을 향해 노력해 온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교회의 경우도 이상이 훌륭하더라도 현실의 '모임'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다카기 씨는 '무교회 사상'과 '무교회 기독교'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오늘은 몇 분인가가 말씀하신 '무교회주의'와 많은 무교회 모임에 공통된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교회(모임) 문제를 중심으로 들기 때문에, 앞서 연제에서 주의를 빼고 '새 무교회'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3. 무교회주의 · 무교회정신

다음에 저는 무교회주의나 무교회정신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레주메에는 우치무라(內村鑑三), 아제가미(畔上賢造), 후지이(藤井 武), 구로사키(黑崎幸吉), 가네자와(金澤常雄), 야나이하라(矢内原忠雄), 이시하라(石原兵永), 쓰카모토(塚本虎二), 마사이케(政池 仁), 이와쿠마(岩隈 直), 세키네(關根正雄), 쓰즈미(堤道 雄), 다카하시(高橋三郎), 하카리(量義治) 등 열네 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외의 분이 쓰신 것도 좀 읽었기에, 20명쯤 되는 분의 무교회주의에 대하여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대강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통된다고 생각되는 주장

① 신앙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② 그러므로 새크라멘트나 기존교회 소속 여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③ 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즉 가톨릭과 같은 계층은 합당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④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클레시아)는 본래는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는 주장, 다시 말해서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회주의(교회근성이라고 해야 할 것)의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⑤ 종교개혁에 철저하고, 그래서 성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항목은 20여 명 되는 분들의 공통된 이념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거의 공통된다고 생각되는 주장

① 그것은 정신의 강조입니다. “무교회 또는 무교회주의는 조문화된 이론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 주체적인 자기의 생명을 건 신앙고백으로서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 “산 신앙이기 때문에 접촉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꽃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같은 무교회 정신을 특히 강조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 “교파가 아니고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② 일본적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③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2와 3은 비교적 옛날 분들이 강조하셨습니다. 2와 3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3) 개인에 따라 틀리는 주장

① 무교회주의는 제1의적인 것이냐, 제2의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만년의 우치무라 간조는 쓰카모토 선생이 선예적(先銳的)인 무교회론을 전개했기 때문에인지 “십자가가 제1의이고, 무교회주의는 제2 또는 제3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쓰카모토 선생은 만년에 “루터로 끝난 프로테스탄트나 우치무라 간조로 끝난 무교회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카리 씨는 그 저서 ‘무교회의 논리’에서 “우치무라의 무교회는 상대적 무교회, 그에 대해 쓰카모토의 무교회는 절대적 무교회다. 그리고 상대적 무교회에서 절대적 무교회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다데 요시히코(小館美彦) 씨가 ‘무교회주의의 신격화와 그 원천을 더듬는다’라는 흥미있는 글을 제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만이 그리스도에게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뜻을 지닌 배타적인 무교회주의를 절대적 무교회주의라고 부르고, 교회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에 이르는 수단의 하나로서의 무교회주의를 상대적 무교회주의라고 부르자.”

이와 같이 절대적 무교회주의나 상대적 무교회주의나 또는 무교회주의는 1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2의적 이하의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② 무교회는 교파(sect)나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③ 교회(특히 가톨릭)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과, 마사이케 선생과 같이 무경계주의를 주장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④ 다음은 예언자적 정신 또는 그런 생활방식을 무교회의 특징으로 하는 분과,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 대강입니다만, 우치무라 간조로 시작되어 주된 일본 무교회 지도자들의 무교회론(무교회주의 또는 무교회 정신)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 무교회(모임)의 문제점

실은 여기서부터 오늘 강연의 본론입니다.

(1) 혁신성을 잃은 무교회

라인홀트 니이버의 기도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냉정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것이 어느 편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아멘!”

가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교회와 무교회 이 셋을 비교해서 이 니이버의 말에 가장 인연이 없는 것은 무교회가 아닌가, 현실의 변화에 대해 너무나 둔감한 무교회가 아닌가? 최근 저는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① 우선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보면 아시다시피 1962년부터 1965년까지 3년에 걸쳐 제2바티칸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가톨릭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두 세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교황서간 ‘기원 2000년의 도래’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부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 획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형제자매의 수세기에 걸쳐 행해진 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어라 사과해야 좋을지…….”라고 교황이 공공연히 과거 긴 세월 동안 가톨릭교회가 가담해 온 ‘노예,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제2바티칸공의회와 우리들이 걷는 길’이라는 강연집이 작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4인의 사제가 말한 것인데, 아메미야(雨宮 慧) 사제는 ‘교회는 성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라는 문장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교황청 성서연구소라는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예수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20세기초에 설립되었습니다. 어떠한 동기로 설립되었는가 하면 프로테스탄트가 성서를 토대로 가톨릭의 교리를 비판하기 때문에 ‘성서를 토대로 가톨릭의 교리를 변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철저히 읽어 나가다 보니 교회가 그때까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것과 꼭 맞지 않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dogma(교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성서연구자를 방치할 수 없다 하여 연구소에서 추방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단 쫓겨난 선생들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경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서를 이용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종종 무리가 생기고, 성서를 솔직하게 읽은 결과와 상반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서에 묻는다.’라는 태도를 중요시하려는 자세가 전후에 강하게 나

타났습니다. 제2바티칸공의회는 그와 같은 흐름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다니(粕谷甲一) 사제는 ‘제2바티칸공의회와 세계교회의 길’이라는 글 중에 “아편 전쟁 후에 중국이 굴복해서 홍콩에서 조약을 맺을 때에 북경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진압한 것이 프랑스 군대이고, 진압한 후에 프랑스의 선교단이 ‘승리의 성모’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중국 사람들이 어떠한 눈으로 보았겠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반성의 고백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더 엄격한 비판과 반성이 내부에서 최근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② 다음은 프로테스탄트교회입니다.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에 전념하게 된 후부터 4년 가까이 됩니다만, 교회의 예배설교를 1년에 두세 번 부탁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두 교회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전도 강연회가 아니고 예배설교입니다. 안수례는 물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 줄 알면서 예배설교를 부탁한다는 것은, 새크라멘트(聖禮典)를 경시하는 데 연결되는 것이니,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일본 그리스도교단의 교회에서의 부탁입니다. 동경의 무교회 집회에서 교회의 목사를 초빙해서 일요집회(예배)에 성서강의를 들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③ 다음은 무교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무교회는 가장 보수적이고 혁신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례(實例)를 들어 설명하는 대신 오다테(小館) 씨의 글에 적

절한 내용의 것을 소개합니다. 좀 격렬한 표현도 있어서 귀에 거슬릴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내용은 경청할 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에 무교회의 소수의 젊은이들이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어떤 젊은이가 말한 적이 있다. ‘무교회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시청각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에 좀더 노력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좀더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의 무교회는 이론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젊은이는 들어설 데가 못 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진심으로 수긍했다. 암흑 중에 한줄기 빛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나이 드신 분은 ‘그런 것은 두려워서 할 수 없다. 한발 타협하면 그대로 질질 끌려가서 타락하고 만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나이 드신 분은 ‘수단을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자기의 일상 생활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선교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부수적인 결과밖에 안된다.’라고 반론했다. 감각이나 수단의 추구는 타파해야 할, 속물이나 할 짓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이래서는 무교회가 후계자 교육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들 무교회주의 어른들의 발언은 그 자체는 옳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의 귀함과 그 교육, 그 성장과정의 중요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진리만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속물성과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속물성을 거부하는 것은 속물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속물성에서 도피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길이 아니고 무(無)를 목적으로 하는 선승(禪僧)의 길이다.”

그러면 왜 무교회가 혁신성을 잃고 보수적이 되어 버렸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최대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기독자의 자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만 매달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의 노예가 된다, 그리스도에게만 속박된다, 그로 인해서 다른 일체의 것에 대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전혀 자유로우면 실족해 버립니다.

그런데 무교회 중에는 아직도 인물 숭배가 남아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는 하지만 그뿐만 아니고 때로는 우치무라에게, 때로는 야나이하라에게, 때로는 마사이케에게 연결된다고 한다면 진짜 ‘기독자의 자유’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본래 보수적인 것이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두려워하게 됩니다.

(2) 바리새적 누룩이 들어있는 무교회

주 예수께서는 왜 그다지도 바리새인을 공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종교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만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23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어느 교회원으로 W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약간 젊어서 70세쯤 되는데, 젊었을 때 센다이(仙山)에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센다이 학생 YMCA 활동 중에 체험한 일이겠지요. “우리들 교회인에 대하여 무교회 친구들은 언제나 ‘너희들 신앙은 틀렸다.’라는 눈초리로 보고 있

었다.”라는 말을 그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에 저는 가슴이 찢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학시절의 저 자신이 날카롭게 지적당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종교적 엘리트 의식의 덩어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누가복음의 18장 9~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처음에, 이것은 “자기는 옳은 인간이라고 자만하여 남을 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라고 써 있습니다. ‘남을 알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테스탄트교회나 가톨릭교회 사람들을 알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 엘리트 의식이 무교회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만, 종교적 엘리트 의식의 냄새가 ‘퐁퐁’나는 것 같은 문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무교회 사람들에게서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또 이와쿠마(岩隈 直) 씨 책 중에, 이와쿠마 씨를 무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천국에서도 교회와 무교회와 가톨릭은 따로따로다.”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엘리트 의식이 강한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엘리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무교회의 ‘모임’은 선남선녀만의 모임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요. 어떤 교회원이 무교회에 대단히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무교회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교회 모임에는 약자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다데(小館) 씨는 적절한 글을 쓰셨기에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교회 신도의 면모를 살펴보면 거기에 젊은이가 없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실 것이다. 그것은 그것으로 확실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더 무서운 치명적인 사실이 존재한다. 무교회에는 약자가 없는 것이다. 분명히 노인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공을 세우고 이름이 난 지적 엘리트이고, 내가 말하는 약자와는 다르다. 내가 말하는 약자란 어리석은 자를 말한다. 속물을 말한다. 가난한 자, 탈락자, 교양 없는 자, 불량소년, 범죄자, 장애인, 연소자다. 그러한 약자를 나는 무교회 내에서 보지 못한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무교회 활동의 핵이 되는 것이 철학적 설교이고 고도의 성서연구(대부분 회랍어 히브리어의 지식을 필요로 함)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나는 이 현상을 역시 무교회주의의 신격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약한 분은 무교회 안에도 있습니다만,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느 틈에 떨어져 나가고 만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정말 사랑하신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클레시아)에는 신앙적 약자는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점에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 자인데, 정말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랑이란 모순을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포용할 수 없는 자를 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고 아픔을 지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살고 있어야 할 우리들은 실은 복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독립학원의 7년간의 교장시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교회 사람은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3) 머리만의 신앙이 되어가는 무교회

국제기독교대학(ICU)의 교수 겸 목사였던 후루야(古屋安雄) 씨, 이분은 다카하시(高橋三郎) 선생과도 교우관계에 있고 무교회에도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강연을 두 번 들은 일이 있는데, 처음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듣는 사람은 저 이외에는 전부 교회분들이고, 또 기독교주의 중고교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강연 중에서 “일본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은 귀에서부터 귀의 신앙이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후루야 씨 뿐 아니라 다른 분으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는, 비교적 자주 들어온 말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대만교회는 찬송하는 교회, 일본교회는 논의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논의하는 교회의 첫째는 무교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후루야 씨는 ‘일본 전도론’이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일본 기독교단 교회의 예배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전체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배운다, 이해한다는 자세가 강하다. 기쁨에 넘친다기보다는 조용히 듣는 예배이다. 그 점에서는 가장 토착화한 기독교라는 무교회의 성서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에 가깝다. 같이 성서를 읽고 배우고 이해한다는 지적인 측면이 중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정적인 측면은 경시되기 쉽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한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는 것같이 교회에 나가는 면이 있다. 이 점 다음에 말하려는 소위 복음파와는 대조적이다.”

복음파의 예배가 모두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성서를 배우는 모임(예배)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 욕구의 만족이 대부분이고, 영적인 것이 적고, 기쁨과 찬송이 적은 무교회의 집회(예배)는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교회 기독교 전국집회’라는 것이 이미 11회 열렸습니다. 저는 개근상은 아니지만 정근상을 받을 정도로 참가했습니다. ‘우치무라 기념강연회’에도 최근 몇 번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훌륭한 내용의 강연일지 모르나 영적 충만의 욕구불만을 느끼며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이나 돌아오는 길에 “오늘 ○○ 선생의 말씀은 참으로 성서를 깊이 파헤쳐 주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라는 담화를 때로 듣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영적 욕구불만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놀랐습니다. 좀 과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학문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릅니다만 찬합의 구석구석까지 후비는 것 같은(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파고드는) 강연에 만족한다는 것은 무교회가 지적 집단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강하게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은 세키네(關根正雄) 선생과 하카리(量義治) 씨가 ‘무신앙의 신앙’이라는 것과 “이제 예언시대는 지나가고 묵시의 시대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일입

니다. 오늘의 강연준비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시간을 들여 읽은 것은 하카리 씨의 ‘무교회 논리’와 ‘무신앙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좀 이해되는 것도 있었습디만 몇 번 읽어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신앙의 신앙이란, 신앙파악은 의인(義認)의 신앙의 전혀 새로운 파악이다. 나는 기독교사상 무교회의 획기적인 의의는, 무교회가 ‘무신앙의 신앙’이라는 신앙의 전혀 새로운 파악에 도달한 점에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무신앙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상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앙의 신앙’ 설명에 있어서는 “신앙 즉 무신앙, 무신앙 즉 신앙이다. ‘무신앙의 신앙’이란 절대 모순적 자기동일이라는 영적 근원적 사태를 표현하는 근원어이다. 그리고 더욱 무신앙의 신앙의 논리는 절대 모순적 자기동일의 논리 또는 절대 변증법 또는 즉비(卽非의) 논리, 또는 반대의 일치의 논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글의 앞뒤도 정말 꿈꿨대며 읽었습니다만, 몇 번 읽어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니시다 철학책도 몇 권 읽었습니다만, 그것을 읽었을 때와 같은 느낌입니다.

“예언의 시대는 지나가고, 묵시의 시대다.”라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조금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교회는 본래 묵시적 존재인 것이다. 교회는 묵시적 존재일 수 없다. 그것은, 교회는 이 세상 세력으로서 너무나 역사에 내재

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신앙의 신앙’ 혹은 “예언의 시대는 지나가고 묵시의 시대다.”라는 주장을 비판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것은 달리 기회를 얻어 공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키네 선생이나 하카리 씨가 철학자나 신학자가 모이는 신학연구회 같은 데서 이같은 어려운 표현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흠잡아서 비판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민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말을, 대중집회에서 되풀이하고, 그것도 해설도 없이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나는 거기에 커다란 문제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의 자기 만족과 무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교회의 전국집회 같은 데서도 청중이 알 만한 해설도 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중을 향해 말할 때에는 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려고 마음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4) 예언자 정신이 희박해져 가는 무교회

이것과, 제5로 다음에 말하려는 ‘전도의욕이 희박한 것’에 대하여는 쓰즈미(堤) 선생이 종종 말해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종종 마사이케 선생에게서 ‘타원의 진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원은 초점(중심)이 하나밖에 없지만, 타원은 초점이 둘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의 초점은 복음이요,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마사이케 선생은 “예언이란 사회적 정의실현을 위한 신앙자의 투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이란 미래를

예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땅의 소금 또는 세상의 빛으로
서의 신앙 싸움인 것입니다.

(5) 서민에 대한 전도의욕이 희박한 무교회

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현재의 무교회 모임
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 들었습니다.

좀 시간을 내어서 무교회는 ‘섹트’(sect, 이하 ‘교파’)나 아니나
에 대하여 언급하려 합니다. 이것도 ‘교파’라는 말의 정의를 분명
히 하지 않으면 논의가 공전합니다. ‘sect’에 대해서는 사전을 보
면 ‘종파, 교파, 분파, 분파적 종교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떤 분은 ‘교파’라고 해석하고 있고 어떤 분은 ‘분파’라는 등 해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카자와(中澤治樹) 씨는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라
는 것은 교파적 운동에 대한 저항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반(反)
교회가 아닌 반 교회주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무교회주의는 교파가 아닌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야나이하라 선생은 “무교회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리고 운
동의 역할이 끝나면 무교회라는 것은 없어져도 좋다.”라고도 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무교회주의자는 있다.”라고
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파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에 대한 글들 중에 분명히 교파라고 생각되는 주장
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교파가 아닌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3자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시다만,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광사원(廣謝苑)에도 “우치무라 간조를 조(祖)로 하는 일본 독자의 기독교의 일파, 교회적인 모든 제도를 무시하고 성서연구와 전도를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3자에게는 무교회는 기독교의 일파로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도 역시 하나의 교파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한 종교적 엘리트주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 어떤 분이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들의 무교회주의(이념) 속에는 교파적인 것은 조금도 없으니까 우리들의 집회는 교파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글을 읽으면 종교적 엘리트 의식의 냄새가 짙게 납니다.

우리들은 좀더 겸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목표하는 방향 즉 이상으로 하는 데는 마사이케 선생이 말하신 ‘무경계주의’이지만, 현실의 모임은 이상과는 달리 하나의 교파적인 걸음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교회주의(이념)는 반교파이지만 현실의 모임은 하나의 교파(섹트)라는 겸허한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5. 무교회주의와 내셔널리즘(민족주의)

우치무라 간조는 아시다시피 열렬한 애국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애국심과 신앙이 ‘두 J’라는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독립’이란 말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독립학원의 이름도 되었습니다. 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전도하고 있던 당시의 교회 지도자를 보고 우치무라는 ‘독립’을 강조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나 우치무라의 주님 안에서의 내셔널리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내셔널리즘의 전부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있어서의 우치무라의 신앙의 싸움 중에서 ‘두 J’라는 말이 생기고, ‘독립’이 강조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회의 2대째 전도자들도 ‘애국’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만, 그것도 그 시대에 있어서의 신앙싸움 속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사이케 선생의 젊었을 때의 글에도 ‘애국’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우치무라나 2대째 지도자가 신앙의 싸움, 특히 예언자적 싸움 중에서 말한 ‘애국’이나 ‘독립’이란 말의 무게를 높이 평가하는 데 인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기계적으로 계승하는 데 대해서 저는 오래 전부터 “No!”라고 말해 왔습니다. 21년 전입니다만, 오늘과 마찬가지로 쓰즈미 선생과 같이 이 요코하마(YMCA)에서 있었던 강연회에서 저는 ‘우치무라 간조의 의발’(衣鉢, 계승의 뜻)이라는 연제로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생활 방식 중에서 기본적인 것, 우리들이 이 어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활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치무라가 살아 있다면 과연 ‘두 J’라고 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의 기독교는 ‘하나의 J’만을 강조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조용하고 가는 목소리를 들으며, 혼자서 슬픔을 앗는 생활방식, 굳이 말하자면 시대의 제약을 받은 우치무라 간조의 언동을 극복해서, 예수만을 따르는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우치무라 간조의 의발을 잇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카리 씨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이 일본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 나타남이 무교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우치무라 간조의 존재는 참으로 기독교사에 있어서 하나의 기적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2년쯤 전에 노르웨이의 평신도 전도자 한즈 니르센 하우게(1771-1824)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르웨이의 우치무라 간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약 200년쯤 전에 활약한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노르웨이 국민 거의 전부가 공식적으로는 루터교회의 신자이고, 목사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공식으로 일반 신자가 설교하는 것은 엄히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우게는 농부의 자식으로 빈약한 초등교육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25세 때 소명을 받아 혼자서 전국을 돌며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미지근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권했습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면적은 일본과 비슷합니다만, 거의 도별로 전국을 돌며 전도했습니다. 목사자격이 없는 사람은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10회 구류당하고 최후에는 10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복음을 전한다, 평신도가 전도한다고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많은 찬동자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의 해외전도에 가장 열심인 나라는 노르웨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인구비례로 해외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

입니다.

저는 2년 전에 우연히 이 하우게에 관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무교회 정신과 같은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평신도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을까요? 하나님은 일본에만 무교회 정신을 은혜로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치무라는 ‘독립’(independence)을 강조했습니다. 마사이케 선생은 만년에 “독립도 중요하지만 ‘상호협력’(interdependence) 쪽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내셔널리즘, 이것이 우치무라나 2대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시대는 변해서 이제는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인터내셔널리즘(국제주의)을 강조해야 할 시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6. 새 무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

마지막으로 새 무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으로 6항목을 들겠습니다.

(1) 변해서는 안될 것을 안에서 꼭 지키면서 변해야 할 것은 대담하게 고치는 혁신적인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2) 깨어진 혼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바리새적 누룩이 없는, 그것을 제거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3) 약한 자도 함께하는 모임으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몸에 합당한 에클레시아가 아닐는지요?

(4) 머리만이 아닌 가슴에 호소하는 쉬운 복음의 모임이기를.

(5) 2개의 초점(복음과 예언)을 갖는 타원의 진리에 사는 모임

이기를.

(6) 우치무라나 2대째의 지도자들의 주 안에서의 내셔널리즘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상호협력(interdependence)과 인터내셔널리즘(국제주의)을 강조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 마무리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즉, 참 포도나무에만 연결되는 가지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고, 다른 일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함께 손을 잡고 현재의 모임(무교회)의 변혁, 또는 하나의 새로운 모임의 형성을 이뤄나가지 않으시렵니까?

(’99. 5. 2. 요코하마 기독교독립전도회 주최 강연말씀에 가필)

필 자 소 개

김교신(金敎臣) 1901~1945

1920. 동경에서 성결교회에 입신, 1921~1927. 우치무라 성서연구회 출석, 1927. 일본에서 '성서조선'(聖書朝鮮, 동인지) 창간, 1930. 16~158호 동인지 주필, 1927.부터 성서연구 모임, 1942~1943. '성서조선사건'으로 투옥, 전집 1~8권

함석헌(咸錫憲) 1901~1989

기독교 가정에서 자람, 1924. 우치무라 성서연구회 출석, 1927. '성서조선' 동인, 1928. 귀국 개인전도, 1942~1943. '성서조선사건'으로 투옥, 1947. 월남 개인전도, 1962, 67, 70, 79. 웨이커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 1970. '씨올의 소리', 전집 1~20권

송두용(宋斗用) 1904~1986

1925. 우치무라 성서연구회에서 입신, 1927. '성서조선'지 동인, 1930. 개인전도, 1942~1943. '성서조선사건'으로 투옥, 1946~80. '靈斷, 숨은살림, 성서인생, 성서신앙, 성서신애' 256호까지 발행, 1969~80 푸른학원 운영, 전집 1~6권

노평구(盧平久) 1912~

1935~45. 쓰카모토 도라지 선생의 마루노우치(丸の内) 성서연구회 출석, 1946~1999. '성서연구'(聖書研究)지 500호까지 발행, 1946. 가정모임, 1966~2001. YMCA 성서연구모임, 전집 1~16권

유희세(劉熙世) 1919~

1940. 야나이하라 선생의 '가신'(嘉信)지 구독, 1946. 노평구 선생 성서

모임 참가, 1953. 가정모임에서 삼양동 성서연구모임 현재에 이름, 전
고려대학교 교수, 1986. '우리성경' 1~16호, 1998. '성서강좌' 1~47호

内村鑑三(우치무라 간조) 1861~1930

1882. 삿포로 독립교회 창설, 1891. 제일고등중학교 불경사건, 1900~
1930. '성서지연구'(聖書之研究)지 창간하여 357호 발행, 1901. '무교회'지
창간, 1808~1900. '동경독립잡지'(東京獨立雜誌) 72호 발행, 우치무라 성
서연구회 주관, 전집 1~40권, 한국어판 전집 1~20권과 주해 1~17권

塚本虎二(쓰카모토 도라지) 1885~1973

1910. 우치무라 성서연구회 입회, 1923. 대지진으로 부인 소천, 개인
전도 시작, 1929~1960. 마루노우치(丸の内)성서연구회 주관, 1930~63.
'성서지식'(聖書知識)지 397호 발행, 예수전 1~8권, 저작집 1~10권, 속
편 1~8권

矢内原忠雄(야나이하라 다다오) 1893~1961

1911. 우치무라 성서연구회 입회, 1937. 동경대학 퇴직, '46. 복직,
1951~57. 동경대학 총장, 1932~37. '통신'(通信) 발행, 1938~47. '포도'
(葡萄) 발행, 1938~61. '가신'(嘉信), 동대성서연구회, 가정집회, 토요학
교(土曜學校) 주관, 전집 1~28

政池 仁(마사이케 정) 1900~1985

1923. 우치무라 성서연구회 입회, 1933. '평화론(平和論)사건'으로 학
교 퇴임 독립전도, 1934~82. '성서농촌'(聖書の農村) - '성서일본'(聖書の
日本) 545호 발행, 1935~80. '마사이케 성서연구회' 주관, 일본우화회(友
和會) 이사장, 한일우화회 대표, 제암교회(堤岩教會) 재건차 한국방문
전도, 전집 1~20

岩隈 直(이와쿠마 나오시) 191?~199?

1930. 제7일 안식일교회를 통해 입신, 전도생활, 1937. 교회를 떠나 무교회로, 1944. 마루노우치(丸の内)성서연구회 입회, 1946.부터 독립전도, 1960~76. '무교회주의'지 발행, 각주부회화대역신약(脚註付希和對譯新約) 1~13권, 성서주해쌍서 1~10권

高橋三郎(다카하시 사부로) 1920~

1949. 회심, 이마이칸(今井館) 야나이하라 성서연구회 입회, 1961. 노보리도(登戸) 성서연구회, 1965~2003. 5. '십자가 말씀'(十字架の言) 현재 458호 발행, 1973. 동경대학 강사 퇴임, 개인전도, 저작집 1~11권, 신약성서강해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외 다수

武祐一郎(다케 유키치로) 1925~

1961. 공학박사, 1988~95. 기독교 독립학원(獨立學園) 교장, 독립전도, 우치무라 저서를 통해 입신, 마사이케 선생에게서 신앙지도를 받음, 2003. 일본우화회 이사장

무교회란 무엇이나?

엮은이 이 진 구

펴낸이 김 숙 현

펴낸곳 도서출판 보람 ☎ (02)2688-3111)

등 록

초 판 2003년 7월 일

연락처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148-24

☎ 02) 2617-4337

값 3,000원
